

격몽요결

이이 저 | 정후수 역 “반드시 성인(聖人)이 되리라고 다짐하고, 텔끝만치라도 스스로를 시원찮게 여기거나 한 발 물러서서 불가능하다는 평계를 대서는 안 된다.” 율곡 선생이 초학자들을 위해 지은 올바른 공부의 길잡이. ‘격몽(擊蒙)’은 무지몽매함을 깬다는 의미로, 《주역(周易)》에서 유래한 말이다. 독서방법론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조언까지 기초학문의 정수를 열 개의 장에 담았다.



격동요금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제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격몽요결》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주)헤럴드는 출판인쇄를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후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① 02)720-8278 ② www.olje.or.kr ③ olje classics@olje.or.kr

④ [@olje classics](https://www.facebook.com/olje classics) ⑤ www.facebook.com/olje 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역자 해제

정후수

『격몽요결』은 1577년(선조 10년)에 율곡 이이 선생이 일반 학생들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지은 책이다. 이 책은 덕행과 자식의 함양을 위한 초등과정의 교재로서 근세까지도 여러 번 간행되어,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훈몽자회(訓蒙字會)》 등과 함께 널리 읽혀진 책이다. 율곡은 그가 황해도 해주에 있는 은병정사(隱屏精舍)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책을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니만큼 이 책은 학문을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 하겠다.

특히 이 책의 〈독서장〉에서는 독서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독서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다. 율곡에 의하면 독서는 책 한 권을 선택하여 완전히 숙독하여 통달한 뒤에 다른 책으로 바꿔 읽으라고 하였다. 이것저것 많은 책을 읽느라고 힘을 소비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책을 읽는 순서로는 《소학(小學)》, 《대학(大學)》, 《혹문(或問)》,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시경(詩經)》, 《예기(禮記)》, 《서경(書經)》, 《주역(周易)》, 《춘추(春秋)》를 차례로 말했다. 이밖에도 《근사록(近思錄)》, 《이정전서(二程全書)》, 《가례(家禮)》, 《주자대전(朱子大典)》 등의 책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책은 저술 직후부터 조선시대 초학자는 물론 사람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채택되어 인조 때에는 전국 향교에 이 책을 내려서 교재로 삼게 하였다.

『격몽요결』이 주는 현대적 의미는 아마도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 자세를 알려주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율곡은 그것을 우선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러두기

1 본서는 원전(原典) 편차순에 따라 번역문, 원문, 해설, 어의, 음훈의 순서로 편집했다.

2 번역은 가능한 원문의 뜻이 명확하고 쉽게 전달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3 원문(原文)은 성균관대학교 한국유경편찬센터에서 제공하는 『격몽요결(擊蒙要訣)』 표준 원전(原典)에서 가져왔다.

4 원문과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문장의 마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 : 의문문의 끝에 사용한다. 선택의문문인 경우 마지막에만 물음표를 사용한다.

， : 한 문장 안에서 의미단락을 이루는 매구절의 끝에 사용한다.

、 : 명사나 단구가 병렬되어 있을 때 사용한다.

： : 직접 인용문의 앞에 있는 '曰', '云' 등에 붙여서 사용한다. '曰：', '云：'

； : 대구를 이루는 문장이 있을 경우 사용한다.

“ ” : 1차인용문 인용부호. 직접 인용문의 경우 사용한다.

‘ ’ : 2차인용문 인용부호로 사용한다.

[] : 저자의 원주(原註)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 : 역자의 간주(間註)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 》 : 도서명, 저작물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 〉 : 도서의 부분인 편, 장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차례

역자 해제	5	
격몽요결 서	擊蒙要訣序	9
1. 입지장	立志章 (의지를 세움)	15
2. 혁구습	革舊習 (옛날의 나쁜 습관을 바꿈)	28
3. 지신장	持身章 (몸가짐)	34
4. 독서장	讀書章 (독서)	68
5. 사친장	事親章 (어버이를 섬김)	86
6. 상제장	喪制章 (초상을 치르는 제도)	108
7. 제례장	祭禮章 (제사 지내는 예법)	137
8. 거가장	居家章 (가정 생활)	159
9. 접인장	接人章 (이웃 생활)	183
10. 치세장	處世章 (세상을 사는 방법)	205



격몽요결 서

격몽요결 서 撃蒙要訣 序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데 있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학문이라는 것은 또한 특별히 이상하거나 별다른 물건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아버지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어버이께 효도해야 하고, 신하는 마땅히 임금께 충성해야 하고, 부부(夫婦) 사이에는 마땅히 분별이 있어야 하고, 형제(兄弟)는 마땅히 서로 우애해야 하고, 어린이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親舊) 사이에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날마다 행동하거나 조용히 있는 사이에도 각각 당연한 것을 취해 행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너무 고상한 데 두면서 신기한 효과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자기 욕심에 막혀서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하여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뒤에야 학문에 대한 연구의 목적이 올바르게 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에 꼭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까마득히 높고 멀어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공부하는 것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自暴自棄)함을 편안히 여기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바다의 남쪽에 거처를 정해 살고 있을 때 한두 사람의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배우기를 청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또 꼭 배워야 하겠다는 굳은 뜻이 없이 그저 대강대강 더 배우기를 요청하면 피차에 도움도 없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한 권의 책을 써서 자기의 의지를 세우고, 자기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어버이를 받들고, 세상 사물을 상대하는 방법의 대강을 서술하고 이름을 《격몽요결(擊蒙要訣)》이라 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 책을 보고 마음을 씻고 의지를 굳게 세워 자리를 잡아 그 날부터 공부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 또한 오

랫동안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을 걱정하여 이 책을 가지고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려고 한다.

정축년(丁丑, 1577) 설달 턱수 이이가 쓰노라.

人生斯世，非學問，無以爲人。所謂學問者，亦非異常別件物事也。只是爲父當慈，爲子當孝，爲臣當忠，爲夫婦當別，爲兄弟當友，爲少者當敬長，爲朋友當有信，皆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非馳心玄妙，希覬奇效者也。但不學之人，心地茅塞，識見茫昧，故必須讀書窮理，以明當行之路，然後造詣得正，而踐履得中矣。今人不知學問在於日用，而妄意高遠難行，故推與別人，自安暴棄，豈不可哀也哉？余定居海山之陽，有一二學徒，相從問學，余慙無以爲師，而且恐初學不知向方，且無堅固之志，而泛泛請益，則彼此無補，反貽人譏，故略書一冊子，粗敍立心飭躬、奉親接物之方，名曰《擊蒙要訣》。欲使學徒觀此，洗心立脚，當日下功，而余亦久患因循，欲以自警省焉。

丁丑季冬，德水李珥書。

[해설]

세상에는 남을 탓하는 사람이 많다.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안되면 남의 탓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 잘되건 안되건 자기책임이 아닐까. 특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이런 심정이 더욱 심하다. 그래서 여기 역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역사적 업적을 이룩한 분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좌구명이란 분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그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論語)》에 간혹 나온다. 좌구명은 눈이 먼 장님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어》라고 하는 역사책을 남겼다. 또 《춘추좌씨전》이라는 책도 그가 썼다고 한다.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하는 주나라의 시조는 문왕이었다. 그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어서 한번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왕은 그 감옥 속에서 《주역》이라는 책을 지었다. 원래 《주역》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문왕이 그 내용을 보충하여 엮었던 것이다.

공자는 어떤가. 공자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굶고 있는 적이 있었다. 이때 공자는 굶주림 가운데서도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춘추》라는 역사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은 누가 어떻게 해서 지었을까. 사실 《손자병법》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누구보다도 활동력이 많은 사람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손자병법》은 앉은뱅이 처지였던 손무란 분이 지은 것이다. 두 다리가 잘린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엮은 책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책의 하나로 《사기(史記)》가 있다. 이 책은 사마천이란 분이 지었다. 그런데 사마천은 친구를 변호해주다가 그만 남자로서는 최대의 수치인 궁형(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자 목소리도 여자처럼 가늘어지고 허리가 휘고 수염이 빠지는 부끄러움을 겪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이를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서를 저술했던 것이다.

이제 시야를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우리의 위대한 임금 가운데 한 분인 세종대왕은 어떻게 살았을까. 불행하게도 세종대왕은 젊었을 때부터 많은 병을 앓고 살았다. 여러 가지 병 중에서도 특히 다리병을 심하게 앓았다. 그로 인해 생의 후반기를 절름발이로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임금이었다.

18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한 다산 정약용은 어떤가. 그분은 그토록 긴 세월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수많은 저서를 남겨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난은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내는 것도 모두 자기에게 달렸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책을 읽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책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다. 성실한 태도로 책을 읽는 일에서 모든 것이 탄생한다.

少年易老學難成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一寸光陰不可輕 |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未覺池塘春草夢 | 연못가에 봄풀이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는데
階前梧葉已秋聲 | 섬돌 앞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 소리 들리는구나.

-주자(朱子)

盛年不重來 | 젊음은 거듭 오지 않고
一日難再晨 | 하루에 새벽이 두 번 오지 않나니.
及時當勉勵 | 때가 되거든 마땅히 학문에 힘쓰라.
歲月不待人 |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도연명(陶淵明)

[어의]

- 희기(希覬) : 바람.
- 심지(心地) : 마음. 마음의 본바탕.
- 모색(茅塞) : 마음이 물욕에 가림.
- 망매(茫昧) : 분명하지 아니함. 어두움.
- 조예(造詣) : 학문이나 기술이 깊은 경지에 다다름.
- 포기(暴棄) : 자포자기(自暴自棄)의 약자.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버림. 실망하고 타락하여 조금도 노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자 몸가짐.
- 조서(粗敍) : 대강 서술함.

[음훈]

擊 : 칠(격)	蒙 : 어릴(몽)	要 : 중요할(요)
訣 : 말씀(결)	斯 : 이(사)	亦 : 또(역)
異 : 다를(이)	常 : 떳떳할(상), 항상(상)	別 : 분별할(별)
當 : 마땅(당), 당할(당)	慈 : 사랑할(자)	孝 : 효도(효)
忠 : 충성(충)	婦 : 아내(부)	敬 : 공경(경)
長 : 어른(장), 긴(장)	動 : 움직일(동)	靜 : 고요할(정)
隨 : 따를(수)	馳 : 달릴(치)	妙 : 묘할(묘)
希 : 바랄(희), 바랄(기)	茅 : 떠풀(모)	塞 : 막힐(색)
茫 : 아득할(망)	昧 : 어두울(매)	窮 : 다할(궁), 궁구할(궁)
造 : 지을(조), 나아갈(조)	詣 : 나아갈(예)	妄 : 망령될(망)
遠 : 멀(원)	難 : 어려울(난)	推 : 밀(추)
暴 : 사나울(포)	棄 : 버릴(기)	陽 : 별(양), 남쪽(양)
徒 : 무리(도)	懸 : 부끄러울(참)	恐 : 두려워할(공)
堅 : 굳을(견)	汎 : 뜰(범), 범범할(범)	貽 : 줄(이), 끼칠(이)
譏 : 기롱할(기), 나무랄(기)	略 : 대강(략)	冊 : 책(책)
粗 : 대강(조)	敍 : 펼(서)	洗 : 씻을(세)
脚 : 다리(각)	循 : 따를(순)	警 : 깨우칠(경)
季 : 끝(계)	珥 : 귀걸이(이)	

입지장

입지장 제일 立志章 第一

제1장 의지를 세움

학문을 시작한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훌륭한 성인을 목표로 삼아 자기 의지를 세워 본래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 성인이 되거나 못 되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얼굴 모양·체력·키 등은 하늘이 준 것이기에 고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지혜롭고 어질게 바꿀 수 있다. 다만 의지를 굳게 세우고 실천하며 물러나지 않으면 된다. 말로는 의지를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 공부하는 성의가 부족하다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다만 성실하고 독실하게 공부를 해야 의지를 세운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학문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뜻부터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훌륭한 성인이 되리라고 다짐하고, 털끝만치라도 자기 스스로를 시원찮게 여기거나 한 발 물러서서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대개 평범한 사람과 훌륭한 성인은 원래부터 태고난 본성은 똑같다. 비록 성격과 재능이 사람에 따라 맑은 사람이 있고 흐린 사람이 있으며, 순수한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진실로 능히 몸소 실천할 수가 있어서, 그 옛날에 물들었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착한 인간의 본성을 찾게 된다면, 털끝만치라도 더 보태지 않아도 만 가지 착한 일을 다 구비할 수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찌 자기 스스로 훌륭한 성인이 되겠다고 기대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지로 이를 증명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맹자가 어찌 우리를 속이겠는가?

初學，先須立志，必以聖人自期，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蓋衆人與聖人，其本性則一也。雖氣質不能無清濁粹駁之異，而苟能真知實踐，去其舊染，而復其性初，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衆人豈可不以聖人自期乎？故孟子道性善，而必稱堯、舜以實之曰：“人皆可以爲堯、舜。”豈欺我哉？

[해설]

나도 요순(堯舜)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옛 조상들은 특하면 요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한다. 도대체 요순이 누구인데 그렇게 요순을 들먹일까? 이제 간략하게 요순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양의 역사에서 가장 고대의 인물로 복희씨와 신농씨를 꼽는다. 그리고 요임금과 순임금을 다음으로 꼽는다. 요순과 같은 옛날 임금 중에는 훌륭한 분이 많이 있었는데 기이한 모양을 한 분이 많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복희씨는 뱀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
신농씨는 사람 몸에 소의 머리,
요임금은 두 줄 눈썹에 여덟 가지 색,
순임금은 검은 얼굴,
우임금은 호랑이 코,
문왕은 용의 얼굴에 호랑이 가슴에 젖이 넷,
무왕은 이가 망가졌고,
주공은 왼쪽 다리 절름발이,
진시황은 코가 벌 같으며 목소리는 승냥이,
한나라 고조는 용의 얼굴에 왼쪽 손가락에 72개의 검은 점,
제나라 태조는 용의 이마에 종소리를 내고,
양나라 무제는 양손에 무늬가 있고,
진나라 무제는 양팔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문선제는 몸에 비늘이 달렸고,
당나라 태조는 용과 봉황의 용모,
송나라 태조는 얼굴이 검고 귀가 크다.

이렇듯 위대한 분들 중에는 기이한 분이 많았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기형아나 장애인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분들은 천하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요순은 이들 중에도 가장 위대한 모델이 되는 분이었다. 사실 요임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너무나도 오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임금에게 넘어갔다. 이제 순임금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해보자.

낙하산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낙하산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 상고시대에 있었다.

바로 순임금이 그 낙하산을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한다.

순임금의 아버지는 고수라는 사람으로 장님이었다. 순임금이 임금 자리에 오르기 전의 일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아버지는 새로 아내를 맞았다. 새어머니는 들어

오기 전에 이미 자식을 두었고, 그 후부터 순임금에 대한 구박이 시작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순임금에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손질을 하라고 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린 순임금은 지붕에 올라가면서 우산을 두 개 가지고 갔다. 한 창 지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미리 우산을 준비했던 순임금은 두 개의 우산을 펼쳐들고 낙하산으로 사용해 내려왔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물론 그 뒤에는 계모의 계교가 있었다.

또 한번은 우물에 들어가 우물 손질을 하라고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차린 순임금은 이번에도 손을 썼다. 미리 우물에 들어가 우물 속에 옆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물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이번에도 아버지가 커다란 돌로 우물을 메우는 것이었다. 순임금은 이번에도 미리 옆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모와 미복 아우를 만났다. 끊이지 않는 텁박에도 순임금이 효도를 다하자, 그 가족들은 모두 개과천선했다고 한다. 성인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마저 감동시킨 것이리라.

[어의]

- 초학(初學) : 학문을 처음으로 배움. 또는 그 사람.
- 입지(立志) : 뜻을 세우다.
- 성인(聖人) : 지혜와 도덕이 뛰어나고 사물의 이치에 정통하여 만세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 중인(衆人) : 보통 사람.
- 범인(凡人) : 여러 사람. 여기서는 성인과 반대의 뜻인 평범한 사람.
- 청탁(淸濁) : 맑고 흐림.
- 수박(粹駁) : 순수함과 뒤틀임.
- 맹자(孟子) : 성은 맹(孟),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與, 또는 子車(자거)). 노(魯)나라 추(鄒) 땅에서 태어남.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다. 유학에서는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 하여 '아성(亞聖)'이라고도 한다.
- 요순(堯舜) :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두 임금으로 요·순 모두 선정을 배풀어 성군(聖君)으로 불린다.

[음훈]

須 : 모름지기(수)	期 : 기약할(기)	毫 : 터럭(호)
退 : 물러날(퇴)	託 : 맡길(탁)	清 : 맑을(청)
濁 : 흐릴(탁)	粹 : 순수할(수)	駁 : 섞일(박)
踐 : 밟을(천)	舊 : 옛(구)	染 : 물들일(염)
衆 : 무리(종)	孟 : 맘(맹)	稱 : 일컬을(칭)
堯 : 임금(요)	舜 : 임금(순)	皆 : 다(개), 모두(개)
欺 : 속일(기)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본래 착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인은 유독 성인이 되고, 어찌하여 나는 유독 평범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진실로 자기 의지를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의지를 분명히 세우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리오. 공자의 제자인 안연이 말하기를, ‘순임금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노력하면 순임금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또한 당연히, 안연이 순임금처럼 되어야겠다고 했던 그 목표를 삼아야겠다.”

當常自奮發曰：“人性本善，無古今智愚之殊。聖人何故獨爲聖人？我則獨爲何故衆人耶？良由志不立，知不明，行不篤耳。志之立，知之明，行之篤，皆在我耳，豈可他求哉？”顏淵曰：“舜何人也？予何人也？有爲者亦若是”，我亦當以顏之希舜爲法。

[해설]

세상일은 다 자기 책임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시험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것도 그렇다. 남의 탓이 아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이루어 낼 수 없다. 자신을 이겨야만 가능하다.

음력으로 6월을 서월(暑月)이라고 한다.

서리(暑吏)라는 말이 있다. 얼마나 지독했으면 한여름 더위만큼 독한 관리를 서리라고 했을까. 그러니 가난한 집 사람들은 여름 더위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6월이면 더위가 기승을 부려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오죽하면 피서를 간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 더운 여름에도 벼선을 벗지 않고 한여름을 지냈다. 돈이라도 주고 양반이 되려 했던 돈 많은 하층민들은 그것을 참지 못해 양반을 포기하

기도 했다. 그렇게 더운 여름날 열성으로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다. 과거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 선조들은 여름 공부를 얼마나 지독히 했는지 모른다. 그네들은 베 적삼 세 벌이 땀에 절어 썩을 정도로 앓아 있어야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즘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부채나 하나 있었을 텐데 무더운 날씨에 꼼짝 않고 앓아서 학문에 전념했던 조상들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의]

- 분발(奮發) : 마음과 힘을 돋우어 일으킴.
- 고금(古今) : 옛날과 지금.
- 지우(智愚) :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 안연(顏淵) : 춘추시대(春秋時代) 말기의 학자. 노(魯)나라 사람. 자(字)는 자연(子淵). 공자의 수제자. 십철(十哲)의 한 사람. 32세 때 단명하여 공자보다 앞서 세상을 떠남.

[음훈]

奮 : 뽑낼(분)	發 : 필(발)	智 : 지혜(지)
愚 : 어리석을(우)	殊 : 다를(수)	良 : 진실로(양), 어질(량)
篤 : 도타울(독)	顏 : 얼굴(안)	淵 : 뜻(언)
若 : 같을(약)	法 : 법(법)	

사람의 미운 얼굴 모양은 예쁘게 바꿀 수 없고, 약한 체력은 강하게 바꿀 수 없고, 작은 키는 크게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태고날 때부터 정해진 분수라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의지는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고칠 수 있고, 못난 것을 어질게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것은 원래 비어 있는 것이어서 태고난 분수에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것 중에 지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귀한 것 중에 어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런데 무엇이 괴로워서 어질어지고 지혜로워지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늘이 준 착한 본성을 망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이러한 의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굳게 지키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인(道人)과 같다고 할 수 있다.

人之容貌，不可變醜爲妍，膂力不可變弱爲強，身體不可變短爲長，此則已定之分，不可改也。惟有心志，則可以變愚爲智，變不肖爲賢，此則心之虛靈，不拘於稟受故也。莫美於智，莫貴於賢，何苦而不爲賢智，以虧損天所賦之本性乎？人存此志，堅固不退，則庶幾乎道矣。

[해설]

사람의 신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체는 곁과 속이 있을 것이다. 곁모습이야 보면 알 수 있으나 속은 해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특수 장비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신체를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 성형수술을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속도 바꿀 수 있을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을까? 마음속에 끼어 있는 때를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속이 편안할 것이다.

조선 말기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문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올 때의 일이다. 어느 선교사가 비누 한 상자를 세도 있는 어느 대감 댁에 선물했다. 그 대감은 비누를 자랑하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인 사람들은 대감

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은 아첨을 다 떨었다.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때가 거짓말같이 빠지더군요”라면서 낯을 씻는 사람, 손을 씻는 사람 등 야단법석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상재 선생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집어내더니 비누를 잘라 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 이 사람아. 이것은 과자가 아니고 비누야, 비누!” 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상재 선생은, “이것이 과자가 아닌 줄은 나도 아오. 여러분은 낯이나 손의 때를 씻었지만, 나는 뱃속의 때를 씻으려 하는 게요”라고 말했다. 다 같이 마음속부터 깨끗이 하자는 뜻임을 알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야단법석이던 모양새에서 벗어나 어쩔 줄 몰라하며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한다.

[어의]

- 용모(容貌) : 얼굴 모양.
- 여력(膂力) : 체력(體力).
- 이정지분(已定之分) : 이미 정해진 분수.
- 심지(心志) : 마음과 뜻.
- 불초(不肖) :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자기 자신의 겹침.
- 허령(虛靈) : 허령불매(虛靈不昧)의 약어. 마음은 공허하여 형체가 없으나 그 기능은 맑고 환하여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다.
- 서기(庶幾) : 가까움. 거의 되려 함. 바라건대.

[음훈]

變 : 변할(변)	醜 : 추할(추)	妍 : 예쁠(연)
膂 : 힘쓸(려)	弱 : 약할(약)	強 : 강할(강)
體 : 몸(체)	惟 : 오직(유)	虛 : 빌(허)
靈 : 신령(령)	稟 : 받을(품)	虧 : 이지러질(휴)
損 : 덜(손)	賦 : 줄(부), 받을(부)	庶 : 거의(서)
幾 : 몇(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의지를 분명하게 세웠다고 말하면서, 즉시 학문에 나아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미적거리며 뒷날 해야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곁으로만 의지를 세웠지 실제로는 학문을 하려는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공부를 한다면, 어진 사람이 되는 결과는 자기에게 달린 것이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찾고, 무엇 때문에 뒷날 해야겠다고 미루는가? 뜻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즉시 공부를 시작해도 제대로 못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혹시라도 자기 의지가 정성스럽지도 못하고 독실하지도 못하여 무기력하고 편안한 것을 찾으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죽는 나이가 되어도 어찌 성공할 수 있겠는가?

凡人自謂立志，而不卽用功，遲回等待者，名爲立志，而實無向學之誠故也。苟使吾志誠在於學，則爲仁由己，欲之則至，何求於人？何待於後哉？所貴乎立志者，卽下工夫，猶恐不及，念念不退故也。如或志不誠篤，因循度日，則窮年沒世，豈有所成就哉？

[해설]

인간에게 약속은 어느 정도 중요한가. 이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약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과 조직적인 생활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일 것이다. 이 조직적인 생활이야말로 바로 약속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약속이 없어서는 조직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 뛰어난 인물로는 안자(顏子)와 증자(曾子)를 들 수 있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하니 아이가 뒤쫓아 오면서 울어댔다. 아내는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가야, 빨리 집에 가 있거라. 시장에 갔다 오면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줄게” 하는 약속을 하고 나갔다.

그녀가 시장에 다녀오니 남편인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깜짝 놀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에게 농담으로 한 말인걸요” 했더니 증자는 아내더러, “아이들에게 그런 농담을 해서는 안 되오.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애들이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겠소? 그 아이가 거짓말인 줄 알면 앞으로는 어머니인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게요” 하고는 아이와 약속한 대로 돼지를 잡아 먹였다.

옛날 중국의 농서(瀧西) 지방에 신도도(辛道度)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그가 유학 하던 중 진(秦)나라의 옹주(雍州)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눈 앞에 문득 큰 저택이 나타났고 그 집 앞에 하녀인 듯한 소녀가 보였다. 그 하녀는 신도도를 주인 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으며 신도도는 그곳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식사가 끝나자 여주인이 말했다.

“나는 진나라 민왕(閔王)의 딸로 조(曹)나라로 시집을 가게 되었으나 불행히도 혼자가 되어 23년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었으니 사흘 동안 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주인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신도도는 그녀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약속한 3일 이 지나자 여주인은 황금으로 만든 베개를 그에게 정표로 주고 하인에게 대문까지 전송케 했다. 그런데 신도도가 대문을 나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머물렀던 저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터엔 풀만 무성했다.

훗날 진의 황비가 우연히 시장에서 그 베개를 발견하고 경위를 알아본 결과, 죽은 자기 딸이 신도도에게 준 소지품임을 알게 되었다.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한 황비가 무덤을 파보자 그 베개가 없었다. 비로소 황비는 신도도를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고 그에게 부마도위(駙馬都尉)의 벼슬을 내리게 하였다. 그런 이후 사람들이 왕의 사위를 일러 부마(駙馬)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어의]

- 용공(用功) : 학문에 힘씀.
- 등대(等待) : 미리 기다리고 있음.
- 궁년몰세(窮年沒世) : 나이가 다하여 죽음.

[음훈]

卽 : 곧(즉), 나아갈(즉)	遲 : 더딜(지)	誠 : 정성(성)
苟 : 진실로(구)	猶 : 오히려(유)	及 : 미칠(급)
度 : 보낼(도), 건널(도)	沒 : 죽을(몰), 다할(몰)	就 : 나아갈(취)

학구습

혁구습 제이 革舊習 第二

제2장 옛날의 나쁜 습관을 바꿈

〈혁구습장(革舊習章)〉은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 나쁜 습관을 아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학문에 나아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기 마음을 다지는 데 방해가 되는 여덟 가지 요소를 기록했다. 이 구습을 개혁하는 데는 단칼에 뿌리까지 잘라버리고 아주 작은 줄기도 없애 늘 반성하고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해도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학업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옛날 습관이 가로막아 실패하기 때문이다. 옛날의 나쁜 습관을 조목 별로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나쁜 습관에 대해 만약 뜻을 가다듬어 깨끗이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학문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人雖有志於學，而不能勇往直前，以有所成就者，舊習有以沮敗之也。舊習之目，條列如左，若非勵志痛絕，則終無爲學之地矣。

[해설]

사람의 행동에는 크게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 착한 행동이야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되지만 악한 행동은 어찌 되었건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晋)나라 때 양흠 지방에 주처(周處)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주처의 아버지는 동오(東吳)라고 하는데, 파양 지방의 태수를 지냈으나 일찍 죽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는 주처는 방탕한 생활을 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결심했으나 주위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그래서 하루는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세상이 태평하여 모두들 의식주(衣食住)에 대한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십니까?”

이에 마을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마을에 세 가지 해로움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어찌 태평하겠는가?”

“세 가지 해로움이라뇨?”

“남산에 있는 사나운 호랑이, 장교(長橋) 아래에 있는 교룡(蛟龍)， 그리고 주처 자체이네.”

이 말을 듣고 더욱 더 새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세 가지 해로움을 제거하기로

결심, 남산에 올라가 사나운 호랑이를 잡아 죽이고, 장교 아래의 물에 뛰어들어 교룡과 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목숨만 유지하여 마을로 돌아왔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이에 마을을 떠나 대학자 육기(陸機)와 육운(陸雲)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 새사람이 된다면 자네의 앞날은 무한할 것이네”라고 주처를 격려했다. 이때부터 10여 년 동안 학문을 익히고 덕을 쌓아 주처는 마침내 대학자가 되었다.

[어의]

- 구습(舊習) : 옛날 습관.
- 용왕직전(勇往直前) : 용감하게 곧바로 앞으로 나아감.
- 조렬(條列) : 조목을 열거함.

[음훈]

革 : 가죽(혁)	高 : 고칠(혁)	習 : 익힐(습)	勇 : 용맹할(용)
往 : 갈(왕)		前 : 앞(전)	沮 : 막을(지)
敗 : 패할(패)		條 : 조목(조)	列 : 별릴(렬)
痛 : 아플(통)			

첫째, 자기 마음과 의지를 계을리하고 행동과 몸을 함부로 하여 한가롭게 노는 것만 생각하고 구속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둘째, 항상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안정을 생각하지 않으며, 분주히 이리저리 드나들며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대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이다. 셋째, 같은 것만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여 옛날부터 전해오는 나쁜 풍속에 빠져 조금이라도 고치려 하다가는 혼자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넷째, 글이나 문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받기를 좋아하고, 성인이 가르친 경전(經典)에 있는 글을 따다가 제 글인 체하면서 화려하게 꾸며대는 것이다. 다섯째, 쓸데없이 편지 쓰기를 일삼고, 거문고 타기와 술 마시기를 열심히 하여 공연히 놀고 세월을 보내며 자기 스스로 멋진 운치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여섯째, 한가한 사람을 모아놓고 바둑이나 장기 두기를 좋아하고, 온종일 배부르게 먹어가면서 말씨름만 하는 것이다. 일곱째, 부귀를 부려워하고 벼슬이 낮고 천한 것을 싫어하며, 좋지 않은 옷과 나쁜 음식 먹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여덟째, 매사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재물을 탐내고, 음악과 여색에 빠져 그 맛을 사탕처럼 달게 여기는 것이다. 습관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그 나머지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다. 이러한 습관은 의지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그리하여 오늘 한 일을 내일에 가서도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그 행실을 뉘우쳤다가 저녁에 다시 그런 짓을 저지른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맹스러운 의지로 크게 분발하여 단칼로 시원하게 뿌리를 끊어버리듯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 텔끝만한 꼬투리도 남아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구습을 크게 반성하는 것에 힘써 마음에 한 점이라도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씻어낸 뒤에야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其一：惰其心志，放其儀形。只思暇逸，深厭拘束。其二：常思動作，不能守靜。紛紜出入，打話度日。其三：喜同惡異，汨於流俗。稍欲修飭，恐乖於衆。其四：好以文辭，取譽於時。剽竊經傳，以飾浮藻。其五：工於筆札，業於琴酒。優游卒歲，自謂清致。其六：好聚閒人，圍棋局戲。飽食終日，只資爭競。其七：歆羨富貴，厭薄貧賤。惡衣

惡食，深以爲恥。其八：嗜慾無節，不能斷制。貨利聲色，其味如蔗。習之害心者大概如斯，其餘難以悉舉。此習使人志不堅固，行不篤實，今日所爲，明日難改，朝悔其行，暮已復然。必須大奮勇猛之志，如將一刀快斷根株，淨洗心地，無毫髮餘脈，而時時每加猛省之功，使此心無一點舊染之污，然後可以論進學之工夫矣。

[해설]

세상에 계으르게 사는 사람도 참 많은가 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일 것이다. 하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손과 발 그리고 머리, 심장 등 많은 기관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 기관을 놀리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하늘을 배신하는 일이 아닌가.

남해 바다에 나부어(懶婦魚)라는 물고기가 있다. ‘계으른 며느리 물고기’라는 뜻이다. 물고기 중에도 계으른 고기가 있는지, 《술이기(述異記)》라는 책에 전해오는 이 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양씨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어찌나 계을렸던지 한낮이 되도록 밥도 짓지 않고 집안 청소도 않는다. 그러나 자연 시어머니 눈 밖에 날 수밖에 없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도 계으른지라 집안 말아먹겠다면서 물에 빠뜨려 죽여 버렸다. 그 계으른 며느리가 나중에 나부(懶婦)라는 물고기로 변했다.

지금처럼 기름이 없었던 시절에는 물고기를 잡아 그 기름으로 불을 붙여 밤을 밝혔는데 사람들은 그 물고기 나부를 잡아다 불을 켜곤 했다.

나부 고기에서 짜낸 기름은 등불 켜기에 알맞기는 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거문고를 타거나 바둑을 둘 때 켜면 당장 환한 빛이 비쳐 여러모로 쓸 데가 있었지만 길쌈하려고 켜기만 하면 희미해져서 도통 쓸모가 없어졌다고 한다. 죽어서도 계으른 며느리다.



지신장

지신장 제삼 持身章 第三

제3장 몸가짐

〈지신장(持身章)〉은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학문을 할 때는 충성과 신의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성취를 할 수 있다.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구용(九容)과 구사(九思)를 가지고 마음가짐 · 몸가짐을 살피며, 터럭만큼이라도 우연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며, 의식주에 있어서도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 분수에 맞게 하되 너무 사치해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이외의 것에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장기, 바둑, 여색 등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먼저 끊어야 하나, 만약 가까이 하게 될 경우라도 도를 지나지 않게 단속을 해야 한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마음이 제자리에 있는지, 학문이 진보하지 않았는지, 실천하기에 힘을 썼는지 등을 살펴, 고칠 것은 고치고 나머지는 더 부지런히 힘쓰고 힘써야 한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세속의 자질구레한 일로 자신의 의지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뒤에야 학문을 하는 기초가 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실과 믿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주자(朱子)께서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성실과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진실이 없어서, 악한 일을 쉽게 하고 착한 일을 안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실과 믿음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반드시 성실과 믿음으로 중심을 삼고 용감히 공부를 한 다음에야 능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황면재라는 사람이 이른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애써 공부하라”는 두 마디의 말은 모두 곡진한 의미라 하겠다.

學者必誠心向道, 不以世俗雜事亂其志, 然後爲學有基址, 故夫子曰：“主忠信。”朱子釋之曰：“人不忠信, 事皆無實, 爲惡則易, 爲善則難, 故必以是爲主焉。”必以忠信爲主, 而勇下工夫, 然後能有所成就。黃勉齋所謂心地, 刻苦工夫, 兩言盡之矣。

[해설]

공부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정성껏 해야 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진정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잘 안될 것이다.

진목대사의 일화를 보자. 진목대사가 명월암(明月庵)이라는 곳에서 선정삼매에 들려고 하려는 때 동자승(童子僧)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속가(俗家)의 어머님 생신이라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스님 드실 공양은 지어놓았으니 나중에 시장하면 잡수십시오.”

진목은 그러마하고는 벽을 향해 돌아앉았다. 점점 조용해 가는 요요적적(寥寥寂寂)한 방에서 스스로 참선의 기쁨에 젖은 진목은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그대로 십 년이 하루 같고 백 년이 하루 같은 선정삼매에 깊이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자승이 들어와 인사를 올렸다. “지금 다녀왔습니다. 간밤에 법체(法體) 별고 없으셨는지요?”

그러나 돌부처처럼 벽을 향해 앉아 있는 진묵은 웃소매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동자승이 귀청이 떨어져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저 다녀왔다니까요!” 그제야 진묵대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모친 생신에 간다던 녀석이 여태껏 안 가고 왜 소리만 지르느냐?”

인간 세상의 모든 욕구를 잊어버린 요요적적한 선(禪)의 세계에 빠져 있던 진묵은 그새 하루가 지난 줄 몰랐던 것이다.

[어의]

- 세속잡사(世俗雜事) : 세상의 속된 사람의 잡일.
- 기지(基址) : 터전.
- 공자(孔子) : 중국의 성인.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이며, 노(魯)나라 곡부(曲阜)에서 태어남. 인(仁)과 예(禮)의 도로써 제자를 가르침. 후세에 유교의 시조가 되고 세계 사성(四聖)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으며, 그와 제자들은 언행을 적은 책이 『논어(論語)』이다.
- 주자(朱子) : 주희(朱熹)의 경칭. 남송시대의 대유학자(大儒學者). 호는 회암(晦庵). 경학(經學)에 정통하여 송학을 대성하였는데 그 학문을 주자학(朱子學)이라 한다. 우리나라 유학(儒學)에 큰 영향을 끼쳤다.
- 황면재(黃勉齋) : 남송(南宋)시대의 학자로 이름은 간(幹)이고, 면재(勉齋)는 그의 호이며, 주자(朱子)의 문인(門人)이자 그의 사위임.
- 각고(刻苦) : 대단히 애를 씀.

[음훈]

持 : 가질(지)

雜 : 섞일(잡)

基 : 터(기)

址 : 터(지)

釋 : 풀(석)

勉 : 힘쓸(면)

齋 : 집(재), 재계할(재)

刻 : 새길(각)

苦 : 쓸(고), 괴로울(고)

항상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야하며, 옷과 갓을 반드시 단정히 하고, 얼굴빛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며,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으며, 걸음걸이는 안정되고 자상하게 하며, 말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 번 움직이거나 한 번 쉬는 것이라도 경솔하게 하거나 소홀히 하면서 아무렇게나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한다.

常須夙興夜寐，衣冠必正，容色必肅，拱手危坐，行步安詳，言語慎重，一動一靜，不可輕忽苟且放過。

[해설]

누구에게나 단정한 몸가짐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선 곁모습부터 보고 그 다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공자가 남의 집에 가서 저녁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때에 주인은 공자에게 대접을 잘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다. 이를 본 공자는 얼굴빛을 바꾸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서 공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이유는 좋은 음식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하는 주인에 대한 예절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자는 매사에 예의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공자께서는 잠잘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몸을 함부로 펴고 자지 않았다. 또 집에 있을 때에는 지나친 화장을 하지 않았다.

상복 입은 사람을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고쳐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장님을 보면 비록 개인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예의를 다했다.

천동 번개가 치면 반드시 얼굴빛이 변했다. 이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늘의 진노에 공경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때는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의관(衣冠)을 똑바로 갖추고 앉는다.

공자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혹시라도 하늘과 우주의 움직임에 겸손한 태도가 사라질까봐 스스로 단속한 것이었다.

이와 반대의 이야기가 있다.

진(晋)나라 때 사곤(謝鯤)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웃집에 사는 고씨의 딸이 몹시 예쁘게 생겼다. 사곤은 그 딸에게 마음이 끌려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싶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이웃집 여자는 짜고 있던 복을 던졌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사곤의 얼굴에 맞아 치아 두 개가 부러지고 말았다. 자기가 유혹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으므로 사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수밖에.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장난을 너무 좋아하다가 사곤의 이가 부러졌다”고 했다.

[어의]

- 숙홍야매(夙興夜寐) :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거나 학문을 닦음.
- 공수(拱手) : 공경하는 뜻에서 두 손을 마주잡음.
- 위좌(危坐) : 똑바로 단정히 앉음. 정좌(正坐).
- 방과(放過) : 지나쳐 버림.

[음훈]

夙 : 일찍(숙)

興 : 일어날(흥)

寐 : 잠잘(매)

冠 : 갓(관)

肅 : 엄숙할(숙)

拱 : 두손마주잡을(공)

危 : 위태로울(위)

詳 : 자세할(상)

慎 : 삼갈(신)

輕 : 가벼울(경)

忽 : 소홀히할(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는 아홉 가지 용모인 구용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학문에 나아가 지혜를 더하게 하는 데는 아홉 가지 생각인 구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른바 구용이라는 것은 발 모양은 무겁게 하고, 손 모양은 공손히 하고, 눈 모양은 단정히 하고, 입 모양은 멈춘 듯하고, 소리 모양은 조용히 하고, 머리 모양은 곧게 하고, 숨 쉬는 모양은 엄숙하게 하고,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하고, 얼굴 모양은 장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구사라고 하는 것은 볼 때는 분명히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분명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에는 성실할 것을 생각하고, 일은 정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할 때에는 닥쳐올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이득을 얻으면 의로운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구용과 구사를 마음속에 두어 자기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 이것을 앓는 자리의 구석에 써 붙여서 때때로 눈여겨보아 마음에 새겨야 한다.

收斂身心，莫切於九容；進學益智，莫切於九思。所謂九容者，足容重，[不輕舉也。若趨于尊長之前，則不可拘此。] 手容恭，[手無慢弛，無事則當端拱，不妄動。] 目容端，[定其眼睫，視瞻當正，不可流眄邪睇。] 口容止，[非言語飲食之時，則口常不動。] 聲容靜，[當整攝形氣，不可出嘯咳等雜聲。] 頭容直，[當正頭直身，不可傾回偏倚。] 氣容肅，[當調和鼻息，不可使有聲氣。] 立容德，[中立不倚，儼然有德之氣像。] 色容莊，[顏色整齊，無怠慢之氣。] 所謂九思者，視思明，[視無所蔽，則明無不見。] 聽思聰，[聽無所壅，則聰無不聞。] 色思溫，[容色和舒，無忿厲之氣。] 貌思恭，[一身儀形，無不端莊。] 言思忠，[一言之發，無不忠信。] 事思敬，[一事之作，無不敬慎。] 疑思問，[有疑于心，必就先覺審問，不知，不措。] 忿思難，[有忿必懲，以理自勝。] 見得思義，[臨財必明義利之辨，合義然後取之。] 常以九容九思，存於心而檢其身，不可頃刻放捨。且書諸座隅，時時寓目。

[해설]

아홉 가지 생각은 사람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벽에 써 붙여놓고 늘상 읽어보곤 한다. 좌우명이란 앉아 있는 오른쪽에 걸어 두고 항상 자신의 경계로 삼는 금언을 말한다.

한(漢)나라의 최원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좌우명(座右銘)을 만들었고, 당나라의 백거이 등이 계속해서 좌우명을 만들었다. 좌좌명(座左銘)이라고도 하는데, 좌우는 곁이라는 뜻으로 몸에 가까운 곳을 이른다.

최원의 형 최장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자 최원이 직접 그 원수를 죽이고 도망했다. 후에 용서를 받고 풀려 나와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명(銘)을 지어 항상 앉는 오른쪽에 두었으므로 좌우명(座右銘)이라고 이르게 되었다.

제나라 환공(桓公)이 죽자 묘당(廟堂)을 세우고 각종 제기를 진열해 놓았는데 이상한 술독이 있었다. 비어 있을 때에는 기울어져 있다가도 반쯤 담으면 다시 똑바로 섰다. 그리고 가득 채우면 다시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루는 공자가 그 묘당을 찾았다. 공자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한다.

공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물을 담아보라고 했다. 과연 비스듬하던 물독이 바로 섰다가 가득 채우니 다시 기우는 것이 아닌가. “공부도 이와 같다. 다 배웠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술독처럼 될 것이다.”

[어의]

- 경각(傾刻) : 잠시. 잠깐 동안.
- 좌우(座右) : 앉는 자리의 한 구석.
- 우목(寓目) : 눈여겨 봄.

[음훈]

收 : 거둘(수)	斂 : 거둘(렴)	莊 : 씩씩할(장)
聽 : 들을(청)	聰 : 귀밝을(총)	貌 : 모양(모)
疑 : 의심할(의)	忿 : 성낼(분)	檢 : 검속할(검)
放 : 놓을(방)	捨 : 놓을(사)	座 : 자리(좌)
隅 : 모퉁이(우)	寓 : 붙일(우)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네 가지는 자기를 수양하는 중요한 요점이다. 올바른 예의와 그렇지 않은 예의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의 이치를 끝까지 잘 연구하여 이것의 옳고 그름을 밝혀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실행한다면 이미 생각이 반을 넘었다 할 것이다.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四者, 修身之要也。禮與非禮, 初學難辨, 必須窮理而明之, 但於已知處力行之, 則思過半矣。

[해설]

사물잠(四勿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원래는 《논어》에 나온 말인데, 이것을 송나라 때 정자란 분이 보충 설명해서 유명해졌다. 《논어》에 나온 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 사랑이 아니면 보지 말라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 사랑이 아니면 듣지 말라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 사랑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요즘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과거와 현대의 차이가 그렇다. 물론 사랑과 예가 모두 훌륭한 덕목임엔 틀림없다. 살아가는 방법과 사고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어의]

- 난변(難辨) : 분별하기 어려움.
- 지처(知處) : 아는 것.

[음훈]

辨 : 분별할(변)

但 : 다만(단)

已 : 이미(이), 그칠(이), 이조사(이)

過 : 지날(과), 허물(과)

半 : 반(반)

학문을 하는 일은 날마다 생활하고 일하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만약 평소에 생활함을 공손히 하고, 하는 일을 정성껏 하고, 남과 더불어 생활하기를 성실히 하면 곧 이것을 이름하여 학문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밝히는 것뿐이다.

爲學在於日用行事之間，若於平居，居處恭，執事敬，與人忠，則是名爲學。讀書者，欲明此理而已。

[해설]

학문은 성실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쓸데없는 것은 버려라. 누구를 위하여 학문을 하는가. 남을 위하여 학문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학문을 하는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하기를, “예전의 학자는 자기를 위하여 학문을 하더니 요즘의 학자는 남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구나” 하면서 당시의 폐해를 개탄하였다. 곧 학문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동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문의 목적이다. 때문에 예전의 선비들은 자신의 수양에 학문의 근본을 두었다. 따라서 학문을 통해 어떤 벼슬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2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남을 위해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선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의 학문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행동에 삼가야 할 일들은 소위 ‘경(敬)’이니 ‘신독(慎獨)’이니 해서 이러한 학문 방향에 온 정성을 쏟았다.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의 전형으로 화담 서경덕(徐敬德)을 손에 꼽고 있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어느 누구에게 과시하려는 뜻이 없고 다만 자신의 인격 수양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이다.

[어의]

- 평거(平居) : 평상시(平常時), 평생(平生).
- 거처(居處) : 집에 있음. 있는 곳.
- 집사(執事) : 사무를 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귀인(貴人)을 모시고 그 집안 살림을 맡는 사람.

[음훈]

執 : 잡을(집)

名 : 이름(명)

의복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고 추위를 막을 만하면 된다. 음식은 맛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굶주림을 면할 만하면 된다. 거치는 안락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만 병이 나지 않을 정도면 된다. 오직 학문하는 공력과 마음의 올바름과 몸가짐을 법도대로 함에 대해서 날마다 힘쓰고 힘써 스스로 만족한 체하지 말아야 한다.

衣服不可華侈, 禦寒而已。飲食不可甘美, 救飢而已。居處不可安泰, 不病而已。惟是學問之功, 心術之正, 威儀之則, 則日勉勉而不可自足也。

[해설]

세상에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 그 욕심을 끝까지 따라가다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욕심을 제거하는 데 용감했다. 이를테면 백결선생 같은 분이 그렇다. 그 외에도 황희 정승과 같은 이야기는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서진(西晉) 때 왕연(王衍)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 병처럼 번졌던 청담(清談) 사상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인 왕옹(王戎)의 사촌동생이기도 했다.

왕연은 어려서부터 총명한 기가 넘쳤으나, 애초에 벼슬이나 권력 같은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자연을 벗하며 청담을 일삼는 풍류인이었기 때문에 돈, 권력, 명예 등을 속되다 하여 입에 담으려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사치와 허영으로 꽉 찬 여인이어서 남편의 그런 태도를 곱지 않게 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돈을 돈이라고 하지도 않고 보고 만지려 들지도 않는 남편의 태도는 답답하다 못해 분통까지 터질 일이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남편을 골탕 먹일 작정으로 왕연의 잠자리 주변에 온통 돈을 깔아놓았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왕연은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돈이 사방에 깔린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이 아도물(阿賭物)을 모두 치워라.”

‘아도물’이란 직역을 하면 ‘이 물건’이라는 뜻이지만, 속뜻은 ‘돈’을 말한다. 요즘에도 돈을 ‘배춧잎’이니 ‘쇳가루’니 하는 것처럼, ‘아도물’도 당시에 돈을 가리킨 은어(隱語) 쯤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놀라는 외중에도 왕연은 끝까지 ‘돈’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한다.

[어의]

- 화치(華侈) : 화려하고 사치스러움.
- 어한(禦寒) : 추위를 막음.
- 구기(救飢) : 굶주림을 구원해 줌.
- 안태(安泰) : 편안하고 태평함.
- 심술(心術) : 마음씨.
- 위의(威儀) : 예의에 맞아 위엄 있는 거동. 의식.

[음훈]

華 : 화려할(화)	侈 : 사치할(치)	禦 : 막을(어)
寒 : 찰(한)	飢 : 구원할(구)	飢 : 주릴(기)
泰 : 클(태), 편안할(태)	病 : 병(병)	術 : 술책(술)
威 : 위엄(위)	儀 : 거동(의)	勉 : 힘쓸(면)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공부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이다. 이른바 자기관리라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하늘의 이치와 맞지 않음을 말한다. 반드시 내 마음이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익을 좋아하는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벼슬하기를 좋아하는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는가, 잔치하며 놀기를 좋아하는가, 진기한 보배를 좋아하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이 만일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단호하게 끊어서 짹을 남겨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 뒤에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비로소 올바른 의리에 놓이게 되므로 이길 만한 사욕이 없게 되는 것이다.

克己工夫，最切於日用。所謂己者，吾心所好，不合天理之謂也。必須檢察吾心，好色乎？好利乎？好名譽乎？好仕宦乎？好安逸乎？好宴樂乎？好珍玩乎？凡百所好，若不合理，則一切痛斷，不留苗脈，然後吾心所好，始在於義理，而無己可克矣。

[해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공부를 중요한 공부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 욕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욕구인가. 여기서 선인들은 하늘의 이치, 곧 하늘이 돌아가는 원리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하늘이란 공명정대하여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과는 대조적이다. 하늘, 그것은 자연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산을 깨아 길을 내거나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지 자연의 질서를 유지해나가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한 자연훼손을 동반하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다.

[어의]

- 극기(克己) : 자기의 사욕을 이성으로 눌러 이김.
- 검찰(檢察) : 점검하여 살핌.
- 안일(安逸) : 몸이 편안하고 한가함.
- 연락(宴樂) : 잔치를 베풀고 즐김.
- 진완(珍玩) : 진귀한 완구.
- 통단(痛斷) : 단호히 끊어버림.

[음훈]

檢 : 조사할(검)	察 : 살필(찰)	譽 : 기릴(예), 칭찬할(예)
仕 : 벼슬(사)	宦 : 벼슬(환)	宴 : 잔치(연)
珍 : 보배(진)	玩 : 보배(완), 구경할(완)	斷 : 끊을(단)
苗 : 싹(묘)	脈 : 맥(맥)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해롭다. 일이 없으면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을 가려서 간결하고 신중하게 하라. 때에 맞게 말을 하면 말이 간결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간결하게 하는 것도 도에 가까운 것이다.

多言多慮，最害心術。無事則當靜坐存心，接人則當擇言簡重，時然後言，則言不得不簡，言簡者近道。

[해설]

세상에는 말을 많이 하여 실패를 보는 일이 많다. 특히 말이 많은 사람과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공자는 특히 말 잘하고 얼굴 표정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다. 그만큼 말이란 남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거짓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장점을 말하는 거야 큰일이 없겠지만 남의 단점을 말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조선 중종(中宗) 때 상진(尙震)이란 사람이 있었다. 문과에 급제하고 검열관(檢閱官)이 되어 고향에 돌아갈 때이다.

시골길을 지나가자니 소(牛) 두 마리가 보였다. 심심풀이인지는 몰라도 그가 물어보기를,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하니 그 소 주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귀속 말로 조용히, “짐승들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같은 법입니다. 만약 어느 놈이 낫고 어느 놈이 못나다고 하면 칭찬을 들은 놈은 좋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놈은 성을 낼 것입니다. 사실은 작은 놈이 더 낫습니다” 하더란다.

상진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공은 숨은 군자입니다” 하고 다시는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혹시 어떤 절름발이가 있어 사람들이, “절름발이라 한쪽 다리가 짧다”고 하면 상진은, “다리는 같은데 한쪽 다리가 길다”고 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어의]

- 간중(簡重) : 간략하고 신중함.

[음훈]

慮 : 생각(려)

最 : 가장(최)

術 : 꾀(술), 지을(술)

接 : 접힐(접)

擇 : 가릴(백)

簡 : 간략힐(간)

과거의 훌륭한 임금인 선왕의 법도에 맞지 않는 웃이면 감히 입을 수 없고, 선왕의 법도에 맞지 않는 말이면 감히 말해선 안 되고,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실행해선 안 된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非先王之法服, 不敢服。非先王之法言, 不敢道。非先王之德行, 不敢行。此當終身服膺者也。

[해설]

선왕이란 현재 임금 이전에 살았던 임금이다. 그 선왕의 행동을 본받으란 것이 이 문장의 골자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곧 선왕이란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왕 중에는 걸임금이나 주임금처럼 포악한 임금도 있다. 그런 임금은 제외하고 훌륭한 임금을 선왕이라고 부른다. 그분들의 행동은 천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후세의 사람들은 그분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의]

- 선왕(先王) : 선조. 역대 임금.
- 법복(法服) : 제정된 정식의 의복. 법도에 맞는 의복.
- 복옹(服膺) : 잘 지켜 잠시도 잊지 아니함. 답습해서 적응해 나감.

[음훈]

服 : 웃(복), 둘(복)

膺 : 가슴(옹)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도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할 것이고, 바깥 사물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바깥 사물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일절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만일 장기나 바둑 등의 노름판이 벌어진다면 눈길을 주지 말고 뒷걸음질쳐서 물러나야 한다. 광대와 기생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을 만나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시골 마을의 큰 모임이나 혹은 동네 어른들이 얹기로 만류하여 자리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비록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맑게 하여, 간사한 소리와 음란한 여자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잔치 때 술을 마시더라도 잔뜩 취해서는 안 되고, 몸에 술기운이 젖어들어 얼큰할 정도면 그치는 것이 좋다. 모든 음식은 정도에 알맞게 먹어야 하고, 입에 맞는다고 기운을 해칠 정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말과 웃음은 간결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행동거지는 안정되고 세심해야 할 것이고, 거칠거나 경솔하게 하여 그 몸가짐을 잃어서는 안 된다.

爲學者一味向道，不可爲外物所勝。外物之不正者，當一切不留於心。鄉人會處，若設博奕、樗蒲等戲，則當不寓目，遂巡引退。若遇倡妓作歌舞，則必須避去。如值鄉中大會，或尊長強留，不能避退，則雖在座，而整容清心，不可使奸聲亂色，有干於我。當宴飲酒，不可沈醉，浹洽而止可也。凡飲食當適中，不可快意有傷乎氣。言笑當簡重，不可喧譁以過其節。動止當安詳，不可粗率以失其儀。

[해설]

여기 신기에 가까운 바둑을 두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옛날 당나라 명황(明皇) 때 왕적신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둑을 잘 두어 천하에 자기를 따를 자가 없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그런데 왕적신은 명황이 서쪽으로 피난갈 때 따라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다. 깊은 시골길을 따라가자니 시냇가 외딴 집이 있어 들어가 하룻밤 지내게 되었다. 그 집에는 남자란 없고 시어머니와 며느

리 두 여자뿐이었다. 겨우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밤이 깊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오늘같이 좋은 밤 바둑이나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고부가 자는 방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말로 주고 받으며 바둑을 두는 것이었다.

얼마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더러 말하기를, “네가 졌다. 내가 아홉 점 이겼다”고 하였다.

이튿날 그는 노파에게 가서 바둑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노파는 그를 가만히 보더니 며느리더러, “얘야, 이 사람은 가르쳐볼 만하니 높은 수를 가르쳐주어라” 하여 한수 배우고 돌아왔다. 왕적신은 그 바둑을 배워 천하의 무적이 되었다.

공부가 이쯤 되어야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의]

- 외물(外物) : 바깥 사물.
- 박혁(博奕) : 장기와 바둑. 전하여 도박의 의미로 쓰임.
- 저포(擣蒲) : 쌍륙. 노름. 도박. 옛날에 저(搣)와 포(蒲)의 열매로 주사위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이 이름.
- 준순(浚巡) : 뒷걸음질 침. 후퇴함.
- 창기(倡妓) : 광대와 기생.
- 간성(奸聲) : 간사한 목소리.
- 난색(亂色) : 음란한 기색. 일그러진 얼굴빛.
- 협흡(浹洽) : 두루 미침. 여기서는 술의 취기가 얼큰함을 이룸.
- 쾌의(快意) : 뜻에 하고 싶은 대로 함. 기분이 좋음.
- 흰화(眞諱) : 떠들썩하게 시끄러움.
- 조솔(粗率) : 거칠고 경솔함. 정밀하고 세밀하지 못함.

[음훈]

昧 : 맛(미)	向 : 향할(향)	勝 : 이길(승)
留 : 머물(유)	博 : 장기(박)	突 : 바둑(혁)
樗 : 가죽나무(저)	蒲 : 부들(포)	戲 : 희롱힐(희)
逡 : 주저할(준)	巡 : 돌(순)	倡 : 기생(창)
妓 : 기생(기)	舞 : 춤출(무)	避 : 피할 피
值 : 만날(치)	整 : 가지런할(정)	奸 : 간사할(간)
沈 : 잠길(침)	醉 : 취할(취)	浹 : 무젖을(┑)
洽 : 무젖을(흡)	適 : 갈(적)	快 : 쾌할(쾌)
喧 : 떠들(환)	譁 : 떠들(화)	率 : 거칠(솔), 거느릴(솔)

무슨 일이 생기면 이치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하고, 글을 읽으면 성실하게 이치를 더듬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수습해 거두어 들이고, 잠자히 가라 앉혀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없게 하고, 밝고 밝게 마음을 가다듬어 어리석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정성으로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有事則以理應事, 讀書則以誠窮理, 除二者外, 靜坐收斂此心, 使寂寂無紛起之念, 惺惺無昏昧之失可也。所謂敬以直內者, 如此。

[해설]

공부는 왜 하는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치 못하면 공부를 하는 속도나 실속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 조상들은 무슨 목적으로 공부를 했는가. 바로 옛것을 탐구해서 새것을 창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곧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에 과거의 것을 참고로 했던 것이다. 과거의 것이 단순히 이야기거리만은 아니고 새것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뜻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은 《논어》에 나온다. 공자가 말하기를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 말은 《중용(中庸)》에도 나온다. 한(漢)나라 때 대학자인 정현(鄭玄)은 여기에 주석을 달기를, “온(溫)은 읽어서 익힌다는 뜻이다. 처음 배운 것을 익힌 뒤에, 때때로 반복하여 익히는 것을 온고지신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논어》 주석에도 온고(溫故)는 ‘찾는다, 옛것을 찾는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신(知新)은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에 대한 인식은 함께 필요불가결한 사실이다. 오늘날의 것은 알고 옛 것을 모르는 것은 소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승이 되려면 옛 것까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온(溫)은 다른 뜻도 있다. 한약에 온담탕(溫膽湯)이란 것이 있는데 이 약은 여러 약

재를 섞어 녹여 만든 것으로 온몸에 훈기를 더해 준다고 한다. 곧, “여러 가지 지식을 한 데 섞어 충분이 녹인다”는 의미인 것이다.

[어의]

- 응사(應事) : 일을 감당함. 일에 응합.
- 궁리(窮理) : 이치를 깊이 연구함. 문리 또는 사리를 깊이 연구함.
- 수렴(收斂) : 몸을 단속함. 근신함. 정신을 차림.
- 적적(寂寂) : 쓸쓸하고 고요함.
- 분기(紛起) : 복잡하게 일어남.
- 성성(惺惺) : 스스로 경계하여 깨닫는 모양.
- 혼매(昏昧) : 어리석음.

[음훈]

應 : 응할(응)

除 : 없앨(제), 섬돌(제)

寂 : 고요(적)

紛 : 어지러울(분)

惺 : 깨(성)

昧 : 어두울(매)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게 해야 한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남들이 다 보고 있는 드러난 장소에 앉아 있는 것같이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혼자 있더라도 여럿이 있는 것같이 하여 내 마음을 푸른 하늘의 밝은 태양같이 남들이 모두 바라보는 것처럼 조심하여야 한다.

當正身心，表裏如一，處幽如顯，處獨如衆，使此心如青天白日，人得而見之。

[해설]

사람의 모습에는 겉과 속이 있다. 그 겉과 속이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르는가? 물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고를 것이다. 여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자.

보(步)란 걸음과 걸음 사이를 말한다. 보(步)와 행(行)이 합쳐져 보행(步行)이라는 글자가 되니 쉽게 말하면 '걸어 다닌다'는 뜻이다.

옛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걷는 모양새를 중요시하여, 양반들은 비가 내려도 뛰지 않고 팔자로 천천히 걸었다. 또한 여인들은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걸었으며 천박스럽게 걷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다. 옛 사람들은 걷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걸음걸이는 중요했다. 마음의 안정을 걸음에서 찾았다는 말이다.

연(燕)나라의 한 소년이 조(趙)나라의 서울 한단(邯鄲)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한가롭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보고 한동안 그 걸음을 배웠다. 그러나 완전하게 배우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보니 소년은 조나라 서울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전 자기 고향의 걸음걸이도 잊어버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한단학보(邯鄲學步)'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근본을 잊을 정도로 남의 흉내를 낸다는 뜻으로 이를 경계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은 흔히 볼 수 있는데, 무턱대고 남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좋아가다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껍데기뿐인 자신을 원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의]

- 표리(表裏) : 겉과 속.
- 청천백일(靑天白日) : 말끔히 갠 날. 심사가 명백하여 조금도 은폐하거나 의혹하는 것이 없음.
협의 또는 원죄가 풀림.

[음훈]

表 : 겉(표)

裏 : 속(리)

幽 : 그윽힐(유)

顯 : 드러날(현)

항상 한 가지라도 의롭지 못한 일을 한다거나,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常以行一不義、殺一不辜而得天下，不爲底意思，存諸胸中。

[해설]

불의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백이 · 숙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밟이라는 뜻의 백이와 셋째라는 뜻의 숙제는 은나라의 제후인 고죽국 군주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아우인 숙제를 후사로 세우려 하였으나 숙제는 형인 백이에게 양위(讓位)하려 했다. 그러자 백이는 “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명이시다”라고 말하고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다. 숙제 또한 제위에 오르기를 원치 않아 도망갔으므로 고죽국 사람들은 백이의 아우이며, 숙제의 형인 중자(仲子)를 임금으로 옹립했다. 그 후 백이와 숙제는 문왕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귀속하려고 했으나 문왕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혁명을 일으켜 은(殷)의 주왕(紂王)을 치려 하자 백이와 숙제가 무왕 앞에 나아가 읍소하기를, “부왕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니 이는 효(孝)가 아니요, 신하된 몸으로서 임금을 치려 하니 이는 인(仁)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무왕의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하였으나 태공망만이, “이들이야말로 의인이다” 하고는 부축하여 데려가게 하였다. 무왕이 은(殷)을 멸하고 주(周)를 세우니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 주의 농봉을 받으려 하지 않고 수양산에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먹으며 연명하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그로부터 백이 · 숙제를 절개 있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로, 누구든지 절개를 말하면 이들을 꼽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들보다 더 절개가 굳은 성삼문이 있다. 어느 날 성삼문이 백이 · 숙제의 사당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북경을 지나가는 길에 있다. 여기에 도착한 성삼문은 시를 한 수 써서 백이 · 숙제의 사당 앞에 세워

진 비석에 철썩 붙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

“고사리는 어느 땅에서 생겼는가.”

나 같으면 주나라 땅인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조차 먹지 않고 죽겠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굳은 절개인가. 성삼문의 절개에 감복했던지 백이·숙재의 비석에서 땀이 주르르 흘렀다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꽃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꽃으로 모란을 들었지만, 가장 기품 있고 아름답고 흔들림이 없는 꽃으로는 국화를 첫손에 꼽았다. 그래서 국화를 말할 때 ‘서리에도 꺾이지 않는 꽃’이라 하여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꽃을 소재로 의인화한 가전문학 속에서도 국화는, 화왕(花王)인 모란의 갖은 회유와 권위에도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않는 고고한 선비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과연 국화는 절개가 굳은 꽃임에 틀림없다.

[어의]

- 저의(底意) : 속뜻.
- 흥중(胸中) : 가슴 속.

[음훈]

穀 : 죽일(살)

辜 : 허물(고), 죄(고)

底 : 밑(저)

胸 : 가슴(흉)

공경하는 데 마음을 두어 이것으로 행동의 근본을 세우고,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여 선을 밝히고, 힘써 노력하여 그 진실을 실천해야 하니, 이 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다.

居敬以立其本, 窮理以明乎善, 力行以踐其實。三者, 終身事業也。

[해설]

사람이 평생토록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평생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귀신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평생토록 그 일만 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경지에는 올라야 될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직업을 가졌거나 마찬가지이다. 《장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백정이 임금에게 바칠 소를 잡고 있었다. 기가 막힌 솜씨였다. 임금이 그를 보고, “아! 참 잘도 잡는다. 어찌 그렇게 기술이 훌륭한고?” 하고 묻자 백정은 칼을 놓고 대답하기를, “저 뼈마디 사이는 널찍넓찍하고 이 칼은 이렇게 가느다랗습니다. 이 가느다란 칼을 저렇게 넓은 뼈마디 사이에 집어넣고서 돌리니 아무 데나 칼을 휘둘러도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이 칼을 사용했지만 이 칼날은 새로 솟돌에서 막 갈아 낸 것같이 날카롭습니다” 하였다. 이쯤 되면 가히 귀신의 경지에 들어섰다고 할 만하다.

[어의]

- 거경(居敬) :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여 품행을 닦음.
- 궁리(窮理) : 사리를 깊이 연구함.
- 역행(力行) : 힘써 행함.

[음훈]

踐 : 밟을(천)

實 : 열매(실)

業 : 업(업)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 두 구절은 일생 동안 배워서 실천하더라도 다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이것을 벽에 써 붙여놓아 잠깐 동안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思無邪, 毋不敬, 只此二句, 一生受用不盡, 當揭諸壁上, 須臾不可忘也。

[해설]

열심히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무사(思無邪)’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 없는가?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눈팔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공자가 말년에 엮은 《시경》에 나온다. 그 당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노래와 대궐에서 부르는 노래를 한데 묶은 것이 바로 《시경》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경》을 달달 외웠다. ‘사무사’가 실려 있는 노래를 보자.

살찌고 튼튼한 숫말이 먼 들판에 있는데
참으로 씩씩하구나
은총이말, 얼룩말, 정갱이 흰 말,
두 눈이 흰 말도 있는데
수레를 끌고 군세계 달리는구나
곁눈질도 아니 하고 말이 잘도 달리는구나

대략 이와 같다. 그렇다. 공부도 곁눈질을 안 하고 달려가야 한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는 공부할 시기를 놓치고 만다.

[어의]

- 사무사(思無邪) : 마음에 조금도 사특함이 없음.
- 수용(受用) : 받아 씀.
- 수유(須臾) : 잠깐 동안.

[음훈]

邪 : 간사할(사)

壁 : 벽(벽)

須 : 모름지기(수)

臾 : 잠깐(유)

忘 : 잊을(망)

매일 자주 자신을 점검하여 혹시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데 있지 않은가, 학문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는가, 행실에 힘을 쓰지 않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한다.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것을 고치고, 하나라도 없으면 더 부지런히 힘쓰고 계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반성은 자기 몸이 죽은 뒤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每日頻自點檢，心不存乎？學不進乎？行不力乎？有則改之，無則加勉，孜孜毋怠，斃而後已。

[해설]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증자는 하루에 세 가지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반성을 하고 산다면 세상에 아마 악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다 죽은 계층은 주로 아래 백성들이었다. 선비들은 도리를 위해 절개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도, 실사(實事) 때문에 죽는 일은 극히 드물었던 것이다. 비변사는 실사(實事)를 다스리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실사보다 도리에 치우친 허사가 항상 쟁점이 되곤 해서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국사를 운운하는 비변사에 회의가 있던 날, 이항복이 유독 늦게 출석을 하자 모였던 사람들이, “어찌 늦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마침 오다가 싸움판이 벌어져 구경하느라 늦었소” 했다.

“누가 싸웠기에 국사에 늦는다는 말이오?” 하고 되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고자와 스님이 싸우고 있는데 고자는 스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스님은 고자의 불알을 쥐고 싸우고 있었소.”

이 말을 들은 재상들은 배를 잡고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숙연해졌다. 스님

에게 잡힐 머리카락이 있을 리 없고, 고자에게 불잡힐 불알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정이 아침저녁으로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두고 싸우는 것을 빗대는 뼈있는 풍자였던 것이다. 그들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웃게 한 이항복의 재치였다.

[어의]

- 점검(點檢) : 낱낱이 조사함.
- 자자(孜孜) : 부지런한 모양. 쉬지 않고 힘쓰는 모양.
- 무태(毋怠) :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 폐이후이(斃而後已) : 죽은 뒤에 그만둠.

[음훈]

每 : 매양(매)

頻 : 자주(빈)

點 : 점(점)

檢 : 봉활(검)

孜 : 부지런할(자)

怠 : 게으를(태)

斃 : 죽을(폐)

독서장

독서장 제사 讀書章 第四

제4장 독서

〈독서장(讀書章)〉은 사리를 깊이 연구하고 선(善)을 밝히기 위해서는 독서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다는 것과, 독서하는 자세와 순서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다. 책을 읽을 때는 조용히 앉아 깊이 연구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책을 읽는 순서는 《소학》, 《대학》, 《대학혹문》,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예경》, 《서경》, 《주역》, 《춘추》 등의 순서이다. 유교 이외의 책은 이단이니 보지 말라고 했으며, 독서는 다독(多讀)보다는 정독(精讀)을 권하고 있다.

배우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학문에 두어 다른 사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치를 연구하여 선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뒤에 마땅히 행할 길이 분명히 앞에 있어서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에 들어가는 것은 이치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다. 성현들의 마음 쓴 자취와 선한 일을 본받는 것과 악한 일을 경계해야 할 것들이 모두 이 책 속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學者常存此心，不被事物所勝，而必須窮理明善，然後當行之道，曉然在前，可以進步，故入道莫先於窮理，窮理莫先乎讀書。以聖賢用心之迹及善惡之可效可戒者，皆在於書故也。

[해설]

독서를 많이 하면 저절로 뜻이 통한다고 한다. 또 남자라면 한번 태어나서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독서가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세조 때 영중추부사 김수온(金守溫)은 남에게서 책을 빌려오면 한 장씩 뜯어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외우다가 막히는 곳이 있으면 꺼내보고, 보지 않고서도 외울 만하면 아무 데나 버리는 별난 습관이 있었다.

그때 영의정을 지내던 신숙주에게 진기한 고서 한 권이 있었는데 신숙주는 그 책을 애지중지했다.

하루는 김수온이 신숙주의 집에 왔다가 그 책을 보고 빌려달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빌려주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도 빌려간 책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신숙주는 하는 수 없이 김수온의 집으로 그 책을 돌려받으러 갔다. 집에 들어간 신숙주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책은 온데 간데 보이지 않고 사방 벽은 찢어놓은 책 조각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그래 이게 무어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전에 당신에게 빌려온 책이라고 한다. 더구나 벽에 발라놓은 책들은 모두가 연기에 까맣게 그을어 있었다.

김수온은 겹연쩍은 듯이 말했다. “누워서 읽자니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랬소이다.”

책이란 수장(收藏)하는 사람 따로, 읽는 사람 따로 있나 보다. 책을 보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다.

전한(前漢) 원제 때 재상이 되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에 있던 광형은 젊었을 때 무척이나 가난했다.

그는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도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많은 책을 살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품팔이를 해가며 틈틈이 책을 사서 읽었다.

그러나 품팔이를 하지 않으면 당장 끼니를 걸어야 할 판이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에는 등불을 켜야 하는데 등유를 살 돈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다.

옆집 담에 구멍을 뚫는 것이었다. 물론 몰래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그만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책장을 넘기며 글을 읽었다.

중국 진(晋)나라 때 손강(孫康)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행동거지(行動舉止)가 맑고 굳세었다. 그리하여 그가 사귀는 사람들은 모두가 깨끗하여 지저분한 친구가 없었다. 이에 반해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호롱불조차 결 형편이 안되었다. 그러자니 오죽하랴. 하는 수 없이 겨울이면 마당에 하얗게 쌓인 눈빛을 방안으로 받아들여 거기에 비춰 책을 읽었다. 뒤에 그가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오르니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영설독서(映雪讀書 눈에 비추어 글을 읽다)라고 하고 그가 앉아서 책을 읽었던 책상을 설안(雪案 눈 책상)이라고 하였다. 《진서(晋書)》에 전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말 잘하는 인재를 뽑는다면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를 꼽을 수 있다. 소진의 공부 또한 무섭다.

그는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자기의 머리를 끈으로 매달아 천장에 묶어놓고 졸려서 머리를 끄덕 하면 잡아당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원손에는 항상 송곳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오면 그 송곳으로 허벅지를 마구 찔러대자는 의도였다. 과연 그는 얼마 후 크게 출세했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진(秦)나라에 대항하자는 합종책(合從策)을 펼쳤다.

(한편, 다음과 같이 독서에 관한 대표적 금언들도 있다.)

계창(鷄窓) : 송나라 처종의 서재 창 밑에 기른 닭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처종과 이야기하면서 그의 학식을 도왔다는 고사에서 독서하는 방, 즉 서재를 가리킨다.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 글을 많이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말.

위편삼절(韋編三絕) : 공자가 《주역》을 너무 많이 읽어서 책을 꿰맸던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말.

[어의]

- 효연(曉然) : 환한 모양.
- 진보(進步) : 앞으로 나아감. 차차 발전하여 나아감.
- 가효가계자(可效可戒者) : 본받아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

[음훈]

被 : 입을(피)

曉 : 분명할(효)

莫 : 없을(막), 말(막)

迹 : 자취(적)

效 : 본받을(효)

戒 : 경계할(계)

무릇 책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끓고 앉아서 정성스럽게 책을 대하여 마음을 오로지 한곳에만 쏟고 뜻을 다 쏟아야 한다. 자세히 생각하고 오래 읽어 그 행한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의 뜻을 이해하여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하는 방법을 구해야 한다. 만약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거나,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책은 책대로이고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凡讀書者，必端拱危坐，敬對方冊，專心致志，精思涵泳，〔涵泳者，熟讀深思之謂。〕深解義趣，而每句必求踐履之方，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則書自書、我自我，何益之有？

[해설]

책을 읽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이 읽는 다독(多讀)과 자세하게 읽는 정독(精讀)이 있다. 둘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여기서는 정독을 말했다. 문장 하나하나에 정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경우가 있다. 그것은 책의 내용에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장들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는 사서삼경(四書三經)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예를 들면 《대학》이란 책의 첫머리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곧, 학문을 하는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明德). 백성들과 친한 데 있다(親民).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데 있다(至於至善). 이 세 가지이다. 그런데 여기부터 문제가 있다. 정자(程子)라는 분은 둘째 구절의 친민(親民)은 글자가 잘못된 오자(誤字)라는 것이다. 곧 이 글자는 신민(新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았다.

어쨌든 이런 학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책을 정독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의]

- 단공(端拱) : 손을 단정히 꽂고 있음.
- 위좌(危坐) : 똑바로 앉음. 단정히 앉음.
- 방책(方冊) : 책.
- 천리(踐履) : 걸음. 다님. 밟음. 행함. 이해함.
- 하익지유(何益之有) :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음훈]

端 : 단정할(단)

拱 : 손마주잡을(공)

涵 : 담글(함)

泳 : 혜엄칠(영)

趣 : 향할(취), 재촉할(촉)

踐 : 밟을(천)

履 : 밟을(리)

먼저 《소학》을 읽어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도리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익혀서 힘써 이것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과 《대학후문》을 읽어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 몸을 수양하는 것,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일일이 참되게 알아서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논어》를 읽어 어진 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며, 심성을 닦는 공부에 대해 일일이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체득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맹자》를 읽어 의리(義理)와 이(利)를 명확히 판단하고, 사람의 욕심을 막고,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학설에 대해 일일이 밝게 살펴서 확증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중용》을 읽어 성정(性情)의 덕과 옳은 길로 미루어 나가는 공과 천지가 제 자리를 얻고 만물이 생육하는 미묘한 이치를 일일이 알아서 여기에 얻는 것이 있게 할 것이다.

先讀《小學》，於事親、敬兄、忠君、弟長、隆師、親友之道，一一詳玩而力行之。

次讀《大學》及《或問》，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一一真知而實踐之。

次讀《論語》，於求仁爲己，涵養本原之功，一一精思而深體之。

次讀《孟子》，於明辨義利，遏人慾、存天理之說，一一明察而擴充之。

次讀《中庸》，於性情之德，推致之功，位育之妙，一一玩索而有得焉。

[해설]

《소학(小學)》이란 무슨 책인가. 어려서부터 경전을 읽기에는 벅찬 경우가 있다. 더 구나 《논어》니 《맹자》니 하는 책은 그 내용이 어려워서 감히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실린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어려서는 그에 맞는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학》이다. 《소학》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걸음걸이라든가, 인사법이라든가, 말하

는 법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행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배운들 행동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어의]

- 소학(小學) : 여섯 편으로 이루어짐. 송나라 주희(朱熹)의 편(編)이라 하나 실은 그의 문인(門人) 우자징(劉子澄)의 저(著). 경서나 고금의 전기 중에서 수신과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것.
- 상완(詳玩) : 자세히 익힘.
- 대학(大學) : 사서(四書)의 하나. 이 책의 원 저자는 증자(曾子)라고 하나 미상임. 삼강령(三綱領) · 팔조목(八條目)으로 윤리와 정치의 이념을 기록하고 설명했다.
- 흑문(或問) : 주자(朱子)의 『대학흑문(大學或問)』. 어떤 사람의 물음에 대하여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학』을 해설한 것.
- 논어(論語) : 사서(四書)의 하나. 20편으로 구성.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 또는 당시의 사람들과 문답한 대화와 제자들끼리 주고받은 말들을 공자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편수했음. 공자 사상에 있어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정치 · 교육 등에 대한 것을 주로 기술했다.
- 함양(涵養) : 학식을 넓혀서 심성을 닦음.
- 본원(本原) : 본원(本源). 근원에 근본을 둠.
- 맹자(孟子) :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철인(哲人).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輿). 노(魯)나라 사람. 『맹자』 7편을 저술하여 왕도(王道)와 인의(仁義)를 존중하였으며 성선설(性善說)을 주장. 아성(亞聖)이라고 함. 『맹자』는 송대(宋代)에 비로소 높여 경서(經書)에 포함됨.
- 명변(明辯) : 명확히 판단함.
- 확충(擴充) : 넓혀 충실하게 함.
- 중용(中庸) : 사서(四書)의 하나. 원래 『예기(禮記)』 속의 한 편이었으나 뒤에 정자(程子)가 사서에 편입시킴. 유교의 종합적인 해명이 주 내용. 공자(孔子)의 손자 자사(子思)의 저(著).
- 성정(性情) :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
- 추치(推致) :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
- 위육(位育) : 천지가 바른 위치를 찾고 만물이 화육함.
- 완색(玩索) : 글의 깊은 뜻을 곰곰이 생각하여 찾음.

[음훈]

隆 : 높을(웅)

玩 : 볼(완), 구경할(완)

次 : 벼금(차)

眞 : 참(진)

遏 : 막을(알)

慾 : 욕심(욕)

察 : 살필(찰)

擴 : 넓힐(화)

充 : 찰(충), 채울(충)

推 : 밀(추)

育 : 기를(육)

妙 : 묘할(묘)

索 : 찾을(색)

다음에 《시경》을 읽어 타고난 성정의 간사하고 바른 것과 착하고 악한 것을 권장하고 경계하는 일들을 일일이 깊이 해석하여 마음속에 저절로 감동되어 이로써 행동에 옮겨 나간다.

다음에 《예경》을 읽어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예절에 관한 문장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에 관한 제도를 일일이 강구해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서경》을 읽어 두 임금(堯·舜)과 세 왕(禹·湯·文·武)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대법에 대해 일일이 요령을 알아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 《역경》을 읽어 길흉, 존망, 진퇴, 소장의 기미에 대해 일일이 관찰하여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춘추》를 읽어 성인이 착한 이를 칭찬하고 악한 이를 벌주며, 잘못하는 일을 억제하고 잘하는 일은 드날리며, 모든 일을 조종하는 그 자세한 말씀과 오묘한 뜻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연구하여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次讀《詩經》，於性情之邪正，善惡之褒戒，——潛繹感發而懲創之。

次讀《禮經》，於天理之節文，儀則之度數，——講究而有立焉。

次讀《書經》，於二帝三王治天下之大經大法，——領要而滙本焉。

次讀《易經》，於吉凶存亡進退消長之幾，——觀玩而窮研焉。

次讀《春秋》，於聖人賞善罰惡、抑財易操縱之微辭奧義，——精研而契悟焉。

[해설]

사서삼경이란 무엇인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四書)라고 한다. 네 가지 책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한다. 세 가지 경전이란 말이다. 이렇게 해서 사서삼경이 되는데 여기에 《예기》와 《춘추》를 보태면 모두 아홉 가지 책이 된다. 이것을 사서오경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사서삼경 또는 사서오경을 다 읽었다. 여기서 읽었다는 말은 거기 실린

내용을 전부 다 외웠다는 말이다. 요즘에는 외우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지만 과거에는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만 과거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 지금도 몇몇 서당에서는 이 중 일부를 외우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장을 외우고 나면 그것을 활용할 기회가 상당히 많다. 이 문장을 모두 외우고 있다면 아마도 모든 한문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서가 그 중 가장 먼저 외워야 할 내용이고, 다음으로 삼경, 나머지 두 가지 경전 까지인데, 이것이 사서오경으로서 학문의 기초 서적이 되는 것이다.

[어의]

- **시경(詩經)** : 중국 상고의 시를 모은 책 이름으로 최고(最古)의 시집. 오경(五經)의 하나. 임금 이 민정을 알기 위하여 채시(采詩)라는 관리를 두어 각지의 가요를 채집시킨 것. 삼백 십일 편으로 되어 있음.
- **사정(邪正)** : 사곡(邪曲 마음이 바르지 아니함)과 정직(正直).
- **포계(褒戒)** : 칭찬하고 경계함.
- **잠역(潛繹)** : 깊이 궁구함.
- **징창(懲創)** : 징계. 자기 스스로 과거에 당한 일을 돌아보아 뉘우치고 경계함.
- **예경(禮經)** : 《예기(禮記)》. 오경(五經)의 하나. 진한시대(秦漢時代)의 고례(古禮)에 관한 것을 수록한 책. 《주례(周禮)》, 《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라 함.
- **천리(天理)** : 천지자연의 이치.
- **질문(節文)** : 적절히 꾸며 훌륭하게 함. 또 사리에 따라 정한 조리(條理).
- **의칙(儀則)** :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
- **도수(度數)** : 정한 제도.
- **서경(書經)** : 중국 최고의 경서. 오경(五經)의 하나. 우(虞), 하(夏), 상(商), 주(周) 사대(四代)의 사실(史實)과 사상(思想)을 기록한 책. 《서(書)》 또는 《상서(尚書)》라고도 함.
- **이제삼왕(二帝三王)** : 이제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이고, 삼왕은 하(夏)나라의 우왕(禹王)과 은(殷)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나라의 문왕(文王) · 무왕(武王)이다.
- **대경대법(大經大法)** :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원리와 법칙.
- **영요(領要)** : 요령.
- **역경(易經)** : 오경(五經)의 하나. 복서(卜筮)를 통하여 윤리 도덕을 설명한 책. 《주역(周易)》이

라고도 함.

- 관완(觀玩) : 자세히 관찰하여 익숙하게 함.
- 춘추(春秋) : 공자(孔子)가 저술한 노(魯)나라의 역사.
- 상선(賞善) : 선을 기리어 상을 줌.
- 역양(抑揚) : 혹은 누르고 혹은 찬양함.
- 미사(微辭) : 은근히 돌려서 하는 말과 언어. 완곡(婉曲)한 말.
- 오의(奧義) : 깊은 뜻.

[음훈]

褒 : 칭찬할(포)	潛 : 잠길(감)	繹 : 생각할(역)
懲 : 징계할(징)	創 : 징계할(창)	究 : 연구할(구), 궁구할(구)
領 : 알(령)	遡 : 거스를(소)	消 : 사라질(소)
幾 : 기미(기)	研 : 갈(연), 궁구할(연)	罰 : 벌줄(벌)
操 : 잡을(조)	縱 : 놓을(종)	奧 : 깊을(오)
契 : 합할(계)	悟 : 깨달을(오)	

오서오경을 번갈아 가며 많이 읽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여 뜻과 이치가 날이 갈 수록 밝아지게 해야 한다. 송나라의 선현들이 지은 《근사록(近思錄)》에 《가례(家禮)》, 《심경(心經)》,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典)》, 《어류(語類)》와 그 밖의 성리학설 같은 것을 틈틈이 정독해서 뜻과 이치가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라도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남은 여가에 또한 역사책을 읽어 옛날과 지금의 사건에 대해 통달하고 사물의 변화에 통달하여 식견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잡류 같은 바르지 못한 책은 잠깐 동안이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

五書五經，循環熟讀，理會不已，使義理日明。而宋之先正所著之書，如《近思錄》、《家禮》、《心經》、《二程全書》、《朱子大全》、《語類》及他性理之說，宜閒閒精讀，使義理常常浸灌吾心，無時閒斷，而餘力亦讀史書，通古今，達事變，以長識見。若異端雜類不正之書，則不可頃刻披閱也。

[해설]

책이라고 모두 다 좋은 책은 아니다. 요즘도 이른바 나쁜 책이 있다고 한다. 보지 않았으면 하는 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자나 맹자를 가장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이단도 그 나름대로 훌륭한 학설을 가지고 있다. 《목자》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보자.

사람들이 물들이는 방법을 발견해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물들이는 방법은 있었나 보다.

원시시대 동굴벽화에 채색 그림이 있는 걸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둑자라는 사람은 어떤 물건에 물들이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심지어는 물들이는 것을 보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어째서인가?

아마 물을 들인다는 것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외형을 꾸

민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이를 통해 묵자는 자기의 논리를 편다.

선과 악이 외물(外物)에 의해서 쉽게 움직이는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이 준 천기(天機)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말이다. 《묵자》의 ‘물들임’에 의하면 묵자가 실에 염색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푸른색에 물들이면 푸르게 되고, 누른색에 물들이면 누르게 되니, 들어가서 변하는 대로 또한 그 색이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염색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묵자다운 말이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자신도 나쁘게 된다는 말과 같다.

[어의]

- 오서(五書) : 《소학(小學)》,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 오경(五經) :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예기(禮記)》, 《춘추(春秋)》
- 이회(理會) : 깨달아 앓.
- 불이(不已) : 마지않음. 그만두지 않음.
- 선정(先正) : 선철(先哲). 선현(先賢).
- 근사록(近思錄) : 송나라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편찬한 책.
- 가례(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이르는 말. 송나라 주희가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네 가지 예법에 관하여 기록한 책.
- 심경(心經) : 송나라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책. 성현들의 마음을 논한 격언(格言)을 모아 주를 단 것.
- 이정전서(二程全書) : 송나라의 정호(程顥) · 정이(程頤) 형제의 유저(遺著)이다.
- 주자대전(朱子大全) : 송나라의 주재(朱在)가 주자(朱子)의 글을 모아 엮은 책.
- 어류(語類) :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말함. 송나라의 여정덕(黎靖德)이 주자가 남긴 말을 문인(門人)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편집한 책.
- 성리지설(性理之說) :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설명한 유교 철학. 송나라의 주염계(周濂溪), 장횡거(張橫渠),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주희(朱熹) 등이 주장한 학설.
- 이단잡류(異端雜類) : 유교에서 유교 이외의 모든 학설이나 책에 대해 일컫는 말.
- 경각(頃刻) : 잠깐 동안.
- 피열(披閱) : 펼쳐 봄.

[음훈]

環 : 고리(환)

熟 : 익을(숙)

程 : 공부(정) · 길(정)

灌 : 물댈(관)

斷 : 끊을(단)

變 : 변할(변)

披 : 헤칠(파)

閱 : 볼(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권을 익숙하게 읽어서 뜻을 다 깨달아 통달하고 의심이 없어진 다음에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 많이 읽기를 욕심내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힘쓰면서 바쁘게 여러 책을 이것저것 읽지 말아야 한다.

凡讀書，必熟讀一冊，盡曉義趣，貫通無疑，然後乃改讀他書，不可貪多務得，忙迫涉獵也。

[해설]

공부를 하는 경우 이 책 저 책을 한꺼번에 내놓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방법이 반드시 옳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부란 단계가 있는 것이다. 단번에 뛰어 올라 지식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쌓아졌는지는 남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중국 최고의 시인 이태백이 산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내려올 때다. 제 땐에는, “이 정도면 내 공부도 어지간히 되었겠지” 하고 여유 만만한 미소를 머금었다. 원래 술을 좋아하는 그가 주막집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막 평상에 앉았다. 술을 한 사발 마시고 있노라니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다.

궁금한 이태백은 그 일이 무언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할머니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쇠로 된 절굿공이를 숫돌에 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태백은 매우 기이한 일이라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할머니,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의 말이 더욱 놀라웠다.

“절굿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려고 하네.”

“아니 쇠로 만든 절굿공이가 어떻게 바늘이 된단 말입니까?”

“언젠가는 바늘이 될 날이 있겠지.”

이 소리를 들은 이태백은 내려오던 산을 다시 올라갔다. 10년 공부만 가지고는 부

족했던 자신을 깨닫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어의]

- 진효(盡曉) : 모두 깨달음.
- 의취(義趣) : 뜻과 뜻이 나가는 것.
- 섭렵(涉獵) :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음. 여러 가지 물건을 구하려고 널리 돌아다님.

[음훈]

忙 : 바쁠(망)

迫 : 급박할(박)

涉 : 건널(섭)

獵 : 사냥할(렵)



사친장

사친장 제오 事親章 第五

제5장 어버이를 섬김

〈사친장(事親章)〉은 부모를 섬기는 것에 관한 글이다. 내 몸은 부모의 분신이므로, 몸을 주신 분께 꼭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부모께 여쭈어 부모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펴 드리고, 새벽에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등 자식이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말고,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잠깐이라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되며, 돌아가시기 전까지와 짧은 기간 동안 정성과 힘을 다해 극진히 모셔야 한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면서도 효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경(詩經)》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셨도다. 그 은혜를 갚으려 해도 저 하늘과 같이 끝이 없구나” 하였으니, 자식이 태어날 적에 받은 본성과 목숨과 피와 살은 모두 어버이가 남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숨을 쉬어 호흡할 적에 기맥이 서로 통하니, 이 몸은 나의 개인적인 사유물이 아니고 바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기운이니 부모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경》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으시느라 수고하셨도다!”라고 하였으니, 부모의 은혜가 어떠하겠는가? 어찌 감히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멋대로 다루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항상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생길 것이다.

詩不云乎？父兮生我，母兮鞠我。欲報之德，昊天罔極。人子之受生，性命血肉，皆親所遺，喘息呼吸，氣脈相通，非我私物，及父母之遺氣也。故曰：哀哀父母！生我劬勞。父母之恩，爲如何哉？豈敢自有其身，以不盡孝於父母乎？人能恒存此心，則自有向親之誠矣。

[해설]

가장 부모님이 생각나는 때는 언제인가? 물론 부모님이 필요할 때일 것이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인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다. 효도를 받아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라는 말이 있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나오는 말로써 직역을 하면,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 두질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속뜻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싶으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자고로 동양에서는 효를 만행의 근본으로 삼았던 바 효를 노래한

시가 많다.

자기 아이가 천 마디를 하면 그대가 듣기에 싫지 않고
부모가 한 번 입을 열면 한가로워 간섭한다고 하는구나.
한가로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어버이 마음에 걸리고 끌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
고 백발이 되도록 알고 단련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여보게, 노인의 말을 공경해 받들고 젖비린내 나는 입으로 잘잘못을 다투지 말라.

아이의 오줌과 똥을 그대는 싫어하는 빛이 없되
노인의 침 흘리는 것은 도리어 증오하는구나.
육척의 몸뚱어리 어느 곳에서 왔는고.
부모의 정기가 네 몸을 만들었노라.
여보게, 늙어 가는 노인을 공경해 받들어라.

[어의]

- 막부지(莫不知) : 알지 못함이 없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즉, 모두 안다.
- 심선(甚鮮) : 몹시 드물다.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 천식(喘息) : 숨이 차서 혈떡거림. 기관지에 경련이 생겨 숨이 차서 담이 성하는 병.
- 기맥(氣脈) : 혈맥(血脈). 기미가 서로 통함. 의사소통.
- 위여하재(爲如何哉) : 어떠한가?

[음훈]

甚 : 심할(심)	鮮 : 드물(선), 적을(선)	兮 : 어조사(혜)
鞠 : 기를(국)	罔 : 없을(망)	極 : 다할(극)
喘 : 혈떡거릴(천)	息 : 쉴(식)	呼 : 부를(호), 숨내뿜을(호)
吸 : 숨들여마실(흡)	哀 : 슬플(애)	劬 : 힘쓸(구)
勞 : 수고로울(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과 모든 행실을 감히 제멋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의 명령을 받은 뒤에 실천해야 한다. 만일 해야 할 일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시거든, 반드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허락을 해주시거든 실행할 것이다. 만일 부모를 설득해도 끝끝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凡事父母者，一事一行，毋敢自專，必稟命而後行。若事之可爲者，父母不許，則必委曲陳達，頷可而後行。若終不許，則亦不可直遂其情也。

[해설]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논어》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3년 동안은 아무리 부모가 나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란 나쁜 것을 말할까?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상의 잘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잘못으로 빠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경험도 부족한 젊은 사람이 자기 고집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의]

- 품명(稟命) : 상관의 명령을 받음.
- 위곡진달(委曲陳達) : 자세히 여쭙. 자세히 설명함.
- 합가(頷可) : 머리를 끄덕여 승낙함.

[음훈]

專 : 제멋대로할(전), 오로지(전) 粟 : 여쭐(품) 許 : 허락할(허)
陳 : 아뢸(진) 頌 : 허락할(함)

날마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서 부모의 잠자리에 나아가 숨을 낮추고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방이 따뜻한지 추운지, 자리가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쭙는다. 날이 어두우면 잠자리에 찾아가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펴본다. 낮 동안 반들어 모실 때는 항상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공경하여 응대하고 좌우 곁에서 봉양할 때는 그 정성을 극진히 해야 한다. 밖에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절을 하고 말씀 드리고 절한 다음 인사를 여쭙고 뵙는다.

每日未明而起，盥櫛衣帶，就父母寢所，下氣怡聲，問燠寒安否。昏則詣寢所，定其褥席，察其溫涼。日間侍奉，常愉色婉容，應對恭敬，左右就養，極盡其誠。出入必拜辭，拜謁。

[해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부모님께 아침 문안인사를 드렸다.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했다. 이것을 혼정신성(昏定晨省)이라고 한다. 곧 우리말로 풀이하면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편안하게 정해 드리고 아침에는 다시 살핀다는 뜻이다. 지금도 예의가 반듯한 집안에서는 물론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멀리 떠나 며칠씩 걸리는 경우는 반드시 자세하게 목적지와 일정을 말씀드린다. 이래야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전화가 널리 보급되었고, 더구나 휴대전화까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므로 궁금할 때마다 알아볼 수가 있어서 편리해졌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란 항상 자식 걱정이 앞서는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것이다.

[어의]

- 미명(未明) : 날이 아직 밝기 전. 날샐 녘.
- 침소(寢所) : 잠자리. 자는 곳.
- 하기이성(下氣怡聲) : 숨을 낮추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함.
- 유색완용(渝色婉容) : 얼굴빛을 기쁘게 하고 태도를 부드럽게 함.

[음훈]

盥 : 세수할(관)	櫛 : 빗질할(즐)	帶 : 띠(대)
就 : 나아갈(취)	寢 : 잘(침)	怡 : 화할(의)
燠 : 더울(윽)	諳 : 나아갈(예)	褥 : 요(윽)
涼 : 서늘할(량)	侍 : 모실(시)	奉 : 받들(봉)
愉 : 화할(유)	婉 : 공손할(완)	拜 : 절(베)
謁 : 뵙(암)		

지금 사람들 대부분은 부모가 길러준 은혜를 입고서도 자기 힘으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물어물 세월만 보낸다면 끝내 정성으로 봉양할 때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직접 집안일을 맡아서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한 뒤에야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부모님께서 기어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는 비록 집안일을 맡아 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먼저 돋고 있는 힘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부모님의 입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만일 마음과 생각을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 쓸는다면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왕연(王延)이 몹시 추운 한겨울에 걸칠 옷도 없으면서 어버이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드린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今人多是被養於父母，不能以己力養其父母，若此奄過日月，則終無忠養之時也。必須躬幹家事，自備甘旨，然後子職乃修。若父母堅不聽從，則雖不能幹家，亦當周旋補助，而盡力得甘旨之具，以適親口可也。若心心念念，在於養親則珍味亦必可得矣。每念王延，隆冬盛寒，體無全衣，而親極滋味，令人感歎流涕也。

[해설]

《논어》나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늙으면 항상 추위를 느끼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춥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항상 춥다고 하며, 항상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노인들을 불만스러워 한다. 과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맹종이란 사람이 있었다. 편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무척 효자였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병으로 누웠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 맹종은 너무도 안타까웠다. 병석의 어머니는 도통 음식을 들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번은 죽순(봄철에 나는 대나무 씩)이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때는 겨울이었다. 죽순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맹종은 죽순을 구하러 나갔다. 대밭에 가서 대순이 돋아나도록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리고 나니 이상하게도 눈을 뚫고 새파란 죽순 하나가 돋아 나오는 것이 아닌가.

눈 속에서 죽순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지극한 정성은 그것을 가능하게도 하나 보다. 효자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모두들 까마귀는 재수가 없다고 싫어한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바로 효도를 가장 잘 하는 새라는 것은 알고 있을까.

‘반포보은(反哺報恩)’은 “입에 있는 것을 토해내서 부모에게 먹여줌으로써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로, 자식이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기를 양육해 주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까마귀라 하면 우리는 흔히들 재수 없고 불길한 새, 시체나 뜯어 먹는 더러운 새쯤으로 생각하고 눈에 띄기가 무섭게 돌부터 집어 들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장 효성이 지극한 새로 높이 평가했다. 다른 새들은 다 자라서 성조(成鳥)가 되면 어미 새의 곁을 떠나지만 까마귀만은 늙은 어미 곁에 머물면서 먹이를 물어다 먹여 살렸기 때문에 까마귀를 일러서 ‘반포지조(反哺之鳥)’ 혹은 사랑이 넘치는 새란 뜻의 ‘자조(慈鳥)’라 불렸다.

이러한 까마귀의 습성은 역사서나 문학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개원(開元) 25년에 농주 지역에서 까마귀가 먹이를 어미에게 먹여주다’라는 기록이 전해진다.

또 양무제(梁武帝)의 〈효사부(孝思賦)〉라는 문장을 보면, ‘慈鳥反哺 以報親(까마귀가 제 어미를 먹여 살리므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백거이(白居易)의 시에도 나와 있기를, ‘慈鳥鳥中之曾參(까마귀는 새들 중의 증삼이다)’이라는 시구가 있다.

[어의]

- 간가사(幹家事) : 집안일을 다스림. 집안일을 주간함.
- 감지(甘旨) : 맛있는 음식.
- 왕연(王延) : 전조(前趙) 사람. 자는 연원(延元).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정성껏 초상을 치르고 계모에게도 효도를 다했음. 벼슬은 상서좌승에 이름.
- 웅동(隆冬) : 몹시 추운 겨울. 한겨울. 엄동(嚴冬).
- 유체(流涕) :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 흘리는 눈물.

[음훈]

奄 : 문득(엄)	幹 : 주간할(간)	備 : 갖출(비)
旨 : 맛(지)	旋 : 주선할(선)	延 : 뻗을(연)
滋 : 불어날(자)	歎 : 탄식할(탄)	

사람들은 부자간의 사랑이 공경보다 더 지나치기 쉽다. 이것은 반드시 낡은 습관이므로 철저히 씻어버려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극진히 존경해야 한다. 부모가 앓고 누우신 곳에는 자식이 감히 앓고 누워서는 안 되고, 부모가 손님을 맞이하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자기 손님을 맞아서는 안 되며, 부모가 말을 타고 내리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말을 타고 내리지 않아야 한다.

人家父子間，多是愛逾於敬，必須痛洗舊習，極其尊敬。父母所坐臥處，子不敢坐臥；所接客處，子不敢接私客；上下馬處，子不敢上下馬可也。

[해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다못해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신다. 자식이 원하면 밭도 씻어준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밭을 정성껏 씻어주셨다. 그 동안 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밭을 내맡기고 있었다. 이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을까? 혹자들은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그것도 효도가 아니겠느냐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음의 이야기를 보자.

깊고 깊은 산중에 두 내외(內外)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외아들이라 응석받이로 길렀다. 장난삼아 아들이 부모 내외(內外)를 때리면 “잘한다, 잘한다! 네 아비 때려라, 네 어미 때려라!” 하고 되레 사랑스럽게 보았다. 자랄수록 부모가 좋아한다고 해서 들며 나며 부모를 두드리는 것을 유일한 효도로 알았으나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자란 청년이 된 아들은 어머니 때리는 것을 효도로 알아, 이웃 하나 없는 산골에서 어머니는 맞아죽게 되었다. 어느 날 야지(野地)에 사는 유복한 노인이 유람 차 다니다가 저물어 이 집에 이르렀다. 마침 아들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무엇보다 사람이 그립던 어머니는 반갑게 손을 맞아 사정을 호소하며 아들의 매에 죽겠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산에서 돌아온 아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때리며, “이것이 효도가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노인은 “나를 따라 세상 구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젊은이를 꾀었다. 산속에서만 자란 아들은 좋다고 하며 집 떠나 있을 며칠 동안의 뜻을 모아 어머니를 때려주고 떠났다. 먼저 그 노인의 집에 들렀더니, 이것 보게! 아들, 손자가 마루 아래에서 문안을 여쭙고 팔, 머느리가 밥상을 들여와 시중을 들고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때려만 주던 아들은 그만 놀라고 말았다.

“그래, 댁에서는 왜 늙은이를 때려주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 노인은 대답한다. “몽둥이질은 구식 효도고 신식 효도는 이렇게 한다네. 이제는 자네도 신식 효도를 좀 하게나.” 그래서 집에 돌아온 아들은 잘못된 효도를 버리고 착한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

[어의]

- 인가(人家) : 일반 사람의 집.
- 통세(痛洗) : 철저히 씻음.
- 구습(舊習) : 낡은 습관.

[음훈]

逾 : 넘을(유)

痛 : 아플(통)

洗 : 씻을(세)

臥 : 누울(와)

부모의 뜻이 세상의 의리에 해롭지만 않다면, 자식은 마땅히 부모의 뜻을 먼저 알아차리고 순종하여 조금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모의 뜻이 세상의 의리에 해로운 경우라면, 자기의 기운을 온화하게 하고 낯빛을 즐겁게 하고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말씀드려야 한다. 그럴 경우, 그 뜻을 반복해서 설명하여 반드시 이해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라야 한다.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 則當先意承順, 毫忽不可違。若其害理者, 則和氣怡色柔聲以諫, 反覆開陳, 必期於聽從。

[해설]

만약에 자기 부모가 도둑이나 강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참으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럴 때는 과거 훌륭했던 분들은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순임금의 처신을 보자.

역사상 최고의 성인君子(聖人君子)를 들라면 당연히 순임금을 들 것이다. 그 순임금도 바닷가로 도망을 간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감추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한 행위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가설적인 이야기이다.

순임금 아버지의 이름은 ‘고수’다. 그가 어느 날 살인을 했다. 잡히기만 하면 사형은 당연한 일이었다. 순임금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순임금은 남몰래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 바닷가로 도망을 가서 세상에서 그 일을 잊을 때까지 숨어 지냈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충(忠)을 주장하는 세상에서는 순임금을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충이 효(孝)에 앞설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자기 아버지에게 닥친 일이었으니 말이다. 요즘의 개념과는 그 근본이 다르다.

순임금이 바닷가로 도망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순임금은 아무 생각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자기 아버지가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 더구나 아버지의 죽음은 자기의 불효를 뜻한다고 생각했을 뿐,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다.

[어의]

- 화기(和氣) : 온화한 기색. 화락한 마음.
- 유성(柔聲) : 음성을 부드럽게 함.
- 반복(反覆) : 되풀이함.
- 개진(開陳) : 진술함.

[음훈]

忽 : 갑자기(毫)	違 : 어길(위)	害 : 해로울(해)
柔 : 부드러울(유)	諫 : 간할(간)	覆 : 반복할(복)
開 : 열(개)	期 : 기약할(기)	

부모님께서 병환이 있으시거든 마음으로 근심하고 낯빛을 찡그려, 다른 일은 제쳐 두고 다만 의사에게 묻고 약을 짓는 일에만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병이 나으시거든 처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父母有疾, 心憂色沮, 捨置他事, 只以問醫劑藥爲務, 疾止, 復初。

[해설]

부모의 질병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적엔 기껏 해야 동네 의원에게 보이고 약을 짓거나 침을 맞거나 해서 고쳤다. 그런데 세상에는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 그럴 경우 과거 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중국 한나라 때에는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부모에게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런 일이 하도 많이 생기자 나라에서는 금지하라는 법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일이 있다. 그 시절엔 효자도 참 많았다.

양건(兩蹇)이란 사람은 황희 정승의 5대손이다. 원래 이름은 황대중(黃大中)이며, 양건이라는 이름은 두 다리를 모두 절었기 때문에 얻게 된 별칭이다. 그가 다리를 절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벼슬을 받아 내려갔을 때, 하루는 양건과 그의 친구 정경달(丁景達)이 찾아왔다. 세 사람은 뜻이 맞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이것저 것 나랏일을 의논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양건과 정경달에게 같이 일할 것을 청했다. 그랬더니 황대중이, “저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없겠으나 틈나는 대로 들리도록 하지요” 하자 이순신 장군이 “아, 효자로군요. 그런데 실례되는 말이오나, 다리가 불편하신 듯한데…”라고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정경달이 말을 받았다.

“언젠가 홀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리셨을 때, 바로 허벅다리의 살을 베어드림으로써 병구완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순신 장군은 크게 감동했다. 세 사람의 귀중한 만남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 예상대로 남해안에 왜적의 침입이 있었는데, 황대중은 불편한 다리로 몸소 적진에 나가 싸웠다. 그는 지혜롭고 용감하여 왜군 1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날아든 탄환이 다리에 박히고 말았다. 마침 근처에 있던 아군에 의해 구출되어 목숨을 건졌다. 치료를 했으나 나머지 한쪽 다리마저 절름발이가 되었다.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은 상처를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장하도다. 황대중! 원쪽 다리는 효성의 절름발이요, 오른쪽 다리는 충성의 절름발이로다. 충효를 위해 두 다리를 바쳤으니 양건(兩蹇)이라 부르리다!”

[어의]

- 심우(心憂) : 진심으로 걱정함.
- 색저(色沮) : 마음에 내키지 않는 기색. 염려하는 기색.
- 사치(捨置) : 버려둠.
- 복초(復初) :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여느 때와 같이 함.

[음훈]

沮 : 막을(저)

捨 : 둘(사), 버릴(사)

置 : 둘(치)

劑 : 약지울(제)

藥 : 약(약)

務 : 힘쓸(무)

일상 생활을 하는 사이 잠깐 동안이라도 부모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의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고, 예의나 법도도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놀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모두 부모를 잊은 사람들이다.

日用之間，一毫之頃，不忘父母，然後乃名爲孝。彼持身不謹，出言無章，嬉戲度日者，皆是忘父母者也。

[해설]

어른들을 만나 인사를 할 때 으레 물어보시는 말이 있다. 고향이나 본관이 어딘지, 그리곤 부모님 연세는 얼마나 되셨는지 이런 것들이다. 부모의 연세는 왜 물으시는 것일까? 《논어》에는 부모의 연세를 모르면 안 된다고 했다. 하나는 부모님이 오래 살아계셔서 기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론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옛날 암행어사가 밤길을 가고 있었다. 문득 어느 집 앞에 다다르자 그 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니 북소리도 들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노랫소리도 들리는 것이었다.

희한하게 생각한 어사가 문틈을 비집고 몰래 살펴보니 남자 한 명이 북을 치고, 머리를 수건으로 둘러쓴 젊은 아나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아랫목에는 노파 한 명이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더욱 궁금증이 생긴 어사가 체면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까닭을 물으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오늘은 제 어머님 생신이십니다. 그러나 집이 워낙 가난해 변변히 차려드릴 수가 없어서 아내의 머리를 깎아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연세 많은 어머님께서 즐거우시라고 이렇게 북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륵한 효성에 감격한 어사는 서울로 돌아온 후 임금님께 아뢰니 임금도 감격한 나머지 이들에게 후한 상을 내려주고 백성들이 본받도록 일렀다고 한다.

[어의]

- 일호지경(一毫之頃) : 잠깐 사이.
- 희희(嬉戲) : 즐거이 장난함.
- 도일(度日) : 세월을 보냄.

[음훈]

忘 : 잊을(망)

謹 : 삼갈(근)

嬉 : 장난할(희)

戲 : 희롱할(희)

세월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버이를 오래도록 섭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된 자는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를 섭기면서도 항상 자기의 정성이 모자라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옛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옛날 사람은 하루의 봉양을 삼공의 귀한 지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른바 날짜를 아낀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日月如流，事親不可久也，故爲子者須盡誠竭力，如恐不及可也。古人詩曰：“古人一日養，不以三公換。”所謂愛日者如此。

[해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 점차 오래 사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젊은 사람은 한창 일하고 즐길 나이에 늙은 부모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죽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돌아가시면 그뿐, 효도를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은가.

그대가 새벽시장에 들어가
떡을 사고 또 사는데
부모에게 드린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고
아이에게 준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어버이는 맛도 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먼저 배부르니
자식의 마음은 어버이께 음식을 드려서 기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여보게, 떡 살 돈을 많이 내서
늙은 어버이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모시소.

어버이 봉양은 단 두 분인데
형제가 서로 안 모시겠다고 다투는구나.

자기 자식이 열 명이나 되는데도
그대는 모두 자기가 기른다고 하는구나.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지는 부모가 항상 물어보았는데
부모님이 배고픈지 추운지는 마음에 두지 않는구나.
여보게, 어버이 공양에 힘을 다하소.
당초에 부모가 그대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빼앗겼느니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의]

- 여공불급(如恐不及) : 만일 미치지 못할까 두려움.
- 삼공(三公) :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높은 세 가지 벼슬.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을 말함.
- 애일(愛日) : 날을 아낀다, 즉 하루라도 남보다 더 많이 효도하려고 함.

[음훈]

竭 : 다할(갈)

換 : 바꿀(환)

愛 : 사랑(애), 아낄(애)

상제장

상제장 제례 喪制章 第六

제6장 초상을 치르는 제도

〈상제장(喪制章)〉은 상제(喪制)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글이다. 사람이 죽어서 발인까지의 여러 가지 의식, 조문을 받는 상주와 주객의 자세, 부모의 상에 가려야 할 음식, 여묘살이, 곡(哭) 등 여러 가지 초상의 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예법보다는 슬픔과 공경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스승과 친구의 상에는 마음으로 하는 심상(心喪)이 있다. 상제에 관한 것은 시대에 따라 형식이 많이 변해왔으나 그 슬픔이나 상제를 행하는 마음가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틀에 박힌 형식보다는 슬픔과 정성을 지극히 함이 오히려 더 오래 간직해야 할 덕목이다.

상중에 상복을 입는 제도는 한결같이 주문공(朱文公)의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이나 어른 가운데 예(禮)를 아는 분에게 물어서 반드시 그 예를 극진히 해야 한다.

喪制當一依朱文公《家禮》，若有疑晦處，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必盡其禮，可也。

[해설]

우리의 예절 가운데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있다. 성년이 되면 관례를 올리고, 혼인을 할 때는 혼례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지내는 상례가 있고,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가 있다. 그 중 가장 복잡하고 말이 많은 것이 상례, 곧 초상이다. 초상의 예는 집안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남의 집 초상에 가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의]

- 상제(喪制) : 상중(喪中)의 상복(喪服)을 입는 제도.
- 당일(當一) : 마땅히, 오로지.
- 의회(疑晦) : 의심나고 모르는 것.
- 장자(長子) : 어른, 존장자(尊長者).

[음훈]

喪 : 초상(상)

制 : 지을(제)

依 : 의지할(의)

疑 : 의심할(의)

晦 : 어두울(회)

초혼할 때에 세속의 관례를 보면 반드시 어렸을 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은 예가 아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어른이라면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때에 부르던 호칭을 따르는 것이 옳다. (부녀자는 더더욱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復時，俗例必呼小字，非禮也。少者則猶可呼名，長者則不必呼名，隨生時所稱可也。
[婦女，尤不宜呼名。]

[해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그 중에 초혼(招魂)이라는 형식이 있다. 글자를 풀이하면 혼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까?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갖는 것이 이름이다. 물론 이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개똥이도 이름이다. 이는 오래 살라고 붙여준 이름으로 우리나라 고종황제의 어렸을 적 이름이 개똥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점잖지 못하다. 돌쇠란 이름도 있다. 이런 이름은 돌이나 쇠처럼 단단하라고 붙여준 이름이다. 뜻은 그럴듯하게 좋지만 부르기에는 역시 점잖지 못하다.

그래서 웬만한 집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어 부르는 이름 외에 진짜 이름이 있다. 이 진짜 이름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국가 기관에서 사용할 때만 불렸다. 그래서 이 이름을 관명(官名 관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 했다. 그 대신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자(字)라는 것이다. 어려서는 아명(兒名)을 부르다가 관례를 올리고 나서는 자(字)를 부르는 것이다. 그밖에 어느 정도 사회적 명성도 얻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다시 호(號)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자(字)는 누구든지 있지만 호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죽은 사람에게 시호(謚號)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경우는 특별해서 적어도 정부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아

니면 시호가 없다. 임금이 지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용하는 경우도 각각 다르다.

[어의]

- 복(復) : 초혼(初魂)할 때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옥상(屋上)에 올라가 복쪽을 향해 “복복복(復復復)” 하고 외친다. 이것을 고복 또는 초혼이라 한다. 망령(亡靈)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한다는 의식인데, 그래도 죽은 사람이 소생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 확실함을 알고 초상을 알릴 곳에 알린다.
- 소자(小字) : 아명(兒名).

[음훈]

例 : 법식(례)

隨 : 따를(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그러므로 축문도 모두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를 기준으로 지어야 한다.

母喪, 父在則父爲喪主。凡祝辭, 皆當用夫告妻之例也。

[해설]

사람이 죽을 때에 반드시 어른이 먼저 죽는 것은 아니다. 부부 사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죽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었을 경우 남편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절을 해야 할까? 물론 절을 해야 한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에 안영이라는 명재상이 있었다. 이 안영의 수레에는 언제나 수행원이 따르기 마련이었는데 그 가운데 수행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마부가 있었다.

이 마부는 재상의 수레를 몰기만 하면 언제나 사람들이 굽실굽실했으므로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래서 언제나 으스대고 다녔다.

어느 날 마부의 아내가 대문 틈으로 보자니 정작 안영 대감은 겸손한 모습으로 수레를 타고 가는데 하찮은 마부인 남편이 오히려 어깨를 으스대는 것이 아닌가.

주위 사람들이 인사를 하자 안영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 답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부는 큰기침을 하며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마부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리 오만하게 구십니까? 안영 대감은 공손하시던데요. 창피해서 못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부는 크게 깨닫고 아내에게 절을 했다.

다음날부터 마부는 전에 없이 공손해졌다. 이것을 본 안영은 깜짝 놀랐다. 사연을 듣고 보니 그의 아내도 참 훌륭했지만 아내의 말을 따른 마부가 더 훌륭해 보였다.

마부는 훗날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어의]

- 축사(祝辭) : 축문(祝文).

[음훈]

祝 : 빌(축)

부모가 돌아가시면 즉시 아내와 첨,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와 옷고름을 풀며 맨발을 한다. (소렵을 한 뒤에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 중에 남의 양자가 된 자와 이미 출가한 딸이 있으면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갓을 벗는다.)

父母初沒, 妻妾婦及女子, 皆被髮。男子則被髮, 扱上衽, 徒跣。[小斂後, 男子則袒括髮, 婦人則髽。]

若子爲他人後者及女子已嫁者, 皆不被髮, 徒跣。[男子則免冠。]

[해설]

초상을 치를 때 우선 가장 달라지는 모습이 복장이다. 지금이야 간략하게 옷을 입지만 옛날식으로 옷을 갖춰 입자면 매우 복잡하다. 머리에 쓰는 것을 비롯해서 허리에도 굵은 새끼로 띠를 하고, 신발도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기도 한다. 왜 그럴까? 예절이란 원래 근본에 충실하다는 것인데 근본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태초에 생활하던 모습을 근본이라고 한다. 인간이 태초에 살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죽는 것을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태초에 입었던 옷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이므로 그런 복장을 하는 것이다.

[어의]

- 피발(被髮) : 머리를 풀다.
- 흡상(扱上) : 거두어 들임.
- 도선(徒跣) : 맨발.
- 소렵(小斂) : 시체를 옷과 이불로 쌈.
- 팔발(括髮) : 머리를 묶다.

[음훈]

沒 : 가라앉을(몰), 죽을(몰) 被 : 흐트러질(피)

扱 : 미칠(급), 거둘(흡), 꽂을(삽) 祷 : 옷깃(임)

髮 : 터럭(발)

跣 : 발벗을(선)

시체가 침상에 있고 아직 빈소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남녀가 시체 곁에 자리를 잡는데, 그 위치는 남쪽을 윗자리로 한다. 이것은 시체의 머리 쪽을 위로 삼기 때문이다. 빈소를 마련한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마루 위에 자리를 잡는데 남쪽을 윗자리로 삼는다. 남자들은 뜰 아래에 자리를 잡는데 그 위치는 당연히 북쪽을 위로 삼는다. 이것은 빈소가 있는 곳을 위로 삼는 것이다. 발인을 할 때는 남녀의 위치가 다시 남쪽을 위로 삼는다. 이것은 영구가 있는 곳을 위로 삼는 것이다. 이렇듯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것은 각각 예를 갖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尸在牀而未殯，男女位于尸傍，則其位南上，以尸頭所在爲上也。旣殯之後，女子則依前位于堂上，南上，男子則位于階下，其位當北上，以殯所在爲上也。發引時，男女之位，復南上，以靈柩所在爲上也，隨時變位，而各有禮意。

[해설]

빈소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 땅에 묻어야 한다. 그런데 땅에 묻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게 되면 그들을 맞아야 하는데 이때 조문하는 장소를 빈소라고 한다. 그러면 조문기간은 며칠로 할 것인가? 과거에는 일반인들의 장사에도 최소한 일주일은 잡아야 했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연락을 해야 하고 문상 오는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이야 전화를 통해 연락이 빨리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일일이 인편으로 연락을 해야 했다. 서울에서 초상이 나서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려면 적어도 열흘은 걸려야 했다. 그 사람이 문상을 하러 오는 데 다시 열흘이 걸려야 했으므로 최소한 20일은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조문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어의]

- 빙(賓) : 시체를 모신 관을 장지로 가기 위하여 발인할 때까지 안치함. 빙소(賓所).
- 발인(發引) : 시체를 모신 관을 장지로 가기 위하여 모시는 것.
- 영구(靈柩) : 시체를 넣은 관.

[음훈]

賓 : 빙소(賓)

傍 : 곁(傍)

階 : 섬돌(계)

引 : 가슴걸이(인)

柩 : 널(구)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매양 조문하는 손님들이 위로를 할 때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 있기만 한데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하는 손님이 위패(영좌)에 절을 하고 나오면 상주도 당연히 상주의 자리에서 나와 조문하는 손님을 향해 두 번 절하고서 곡을 하는 것이 옳다(조문하는 손님도 마땅히 답배를 해야 한다). 상복과 수질(首經)이나 요질(腰經)은 질병이 있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지 말아야 한다.

今人多不解禮，每弔客致慰，專不起動，只俯伏而已，此非禮也。弔客拜靈座而出，則喪者當出自喪次，向弔客再拜而哭可也。〔弔客當答拜〕衰絰，非疾病服役，則不可脫也。

[해설]

빈소에 찾아가면 무엇이라 인사말을 해야 할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런 큰일을 당하다니 웬말이십니까?”

등의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안녕”이란 말만 삼가면 되겠다. 그와 비슷한 말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 이런 일은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수(拱手)라는 말이 있다. 두 손을 맞잡고 예를 드리는 모양으로,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고 여자는 왼손이 아래로 가게 잡는 방법이다.

또한 초상집에 가거나 제사 때, 설날 세배를 할 때 손을 잡는 방법이 다르다. 초상집에서는 평소와 반대로 손을 잡는다. 그러나 3년상을 마치고 난 뒤의 제사 때에는 다시 평소와 마찬가지가 된다. 초상은 흥사(凶事)이고 제사는 길사(吉事)이기 때문이다.

성묘를 가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가 된다.

문상과 제사, 성묘의 경우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므로 두 번 절을 해야 한다. 대원군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세도 있던 시절, 한 시골 선비가 대원군을 찾 아갔다. 그가 절을 했으나 대원군이 본체만체하므로 하는 수 없어 다시 절을 했다. 그랬더니 대원군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은 사람이냐, 왜 두 번이나 절을 하느냐?”

절을 한 사람은 난처해졌다. 그러나 대원군을 찾아갈 정도의 인물이니 보통은 넘 는다.

“아까는 찾아뵙는다는 절이고, 지금은 돌아간다는 절입니다.”

여간 재치가 있는 게 아니다. 대원군은 그의 재주를 아껴 등용했다는 일화가 전한 다.

[어의]

- 치위(致慰) : 위로를 함.
- 영좌(靈座) : 영위(靈位), 신주(神主), 위패(位牌), 상차(喪次)를 말함.
- 최질(衰絰) : 상복을 말함.
- 수질(首絰) : 머리에 매는 끈.
- 요질(腰絰) : 허리에 매는 끈.

[음훈]

慰 : 위로함(위)

俯 : 숙일(부)

伏 : 엎드릴(복)

衰 : 상복(憔)

絰 : 끈(질)

《가례(家禮)》에 의하면 부모의 초상엔 상복을 입는 성복 날에 처음으로 죽을 먹는다. 졸곡 날에 비로소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나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는다. 소상이 지난 뒤에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예문이 이와 같으니,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예문을 따라야 한다. 사람이 어찌다가 너무 예에 치우친 나머지 3년 동안 죽만 먹는 자가 있다 한다. 만일 효성이 남보다 출중해서 조금도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에 지나치더라도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하여 예를 지나치게 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家禮》, 父母之喪, 成服之日, 始食粥。卒哭之日始疏食, [糲飯也。] 水飲, [不食羹也。] 不食菜果。小祥之後, 始食菜果。[羹亦可食。] 禮文如此, 非有疾病, 則當 從禮文。人或有過禮而啜粥三年者, 若是誠孝出人, 無一毫勉強之意, 則雖過禮, 猶或可也。若誠孝未至, 而勉強踰禮,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

[해설]

3년상을 지내면서 먹는 음식은 어떠했을까? 목욕은 제대로 했을까?

물론 음식은 당연히 변변치 못한 것으로 먹었다. 부모도 안 계신데 잘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수도 안 했다. 돌아가신 후 1년 동안은 세수와 목욕을 금했기 때문에 몸이 말이 아니었다. 영양결핍에다 몸이 불결해서 생기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야 간단하게 세수를 할 수 있었고 상복을 벗었다. 만 2년하고 3개월을 그렇게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산소 옆에 장막을 치고 사는 모습은 그야말로 귀신 형상 같았을 것이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생활이다. 그렇게 해야만 효자라고 한 시절이 있었다.

[어의]

- 성복(成服) : 초상이 나서 상복(喪服)을 입는 것.
- 졸곡(卒哭) :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즉 사람이 죽은 지 석달 되는 초정일(初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 소사(疏食) : 거친 밥.
- 소상(小祥)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맞는 제사. 기년제(朞年祭).
- 철죽(啜粥) : 죽을 먹음.
- 유례(餽禮) : 예의에서 벗어남.

[음훈]

粥 : 죽(죽)

蔬 : 거칠(소)

菜 : 나물(채)

果 : 과실(과)

祥 : 길할(상)

啜 : 마실(절)

踰 : 넘을(유)

오늘날 예법을 안다는 가문에서는 대부분 장사를 지낸 뒤에 반혼을 한다.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법이다. 다만 요즘 사람들은 무턱대고 남의 흉내를 내서 마침내 여묘하는 풍속을 없애고, 반혼 뒤에는 저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처자와 함께 지낸다. 예법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니 매우 한심스럽다. 대개 어버이를 잃은 사람은 스스로 일일이 헤아려 예법을 따라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점이 없으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 반혼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옛 풍속에 따라 여묘상을 하는 것이 옳다.

今之識禮之家，多於葬後返魂，此固正禮。但時人效顰，遂廢廬墓之俗，返魂之後，各還其家，與妻子同處，禮坊大壞，甚可寒心。凡喪親者，自度一一從禮，無毫分虧欠，則當依禮返魂，如或未然，則當依舊俗廬墓可也。

[해설]

장사를 지내고 나면 그로부터 보통 3년상을 치른다. 3년상이란 산소 옆에 작은 장막을 치고 3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인사를 여쭙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다. 효자 중에 효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3년 동안 세수도 하지 않는데 단 1년에 한 번 세수를 허용한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법이 그렇다. 고기반찬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한다.

[어의]

- 반혼(返魂) : 장사를 지낸 뒤에 죽은 이의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일.
- 효빈(效顰) : 월(越)나라의 미인 서시(西施)가 불쾌한 일이 있어 얼굴을 찡그렸더니, 한 추녀(醜女)가 그걸 보고 흉내 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무턱대고 남의 흉내 내는 것을 말함.
- 여묘(廬墓) : 상제가 거처하는 무덤 근처에 있는 오두막집. 여막(廬幕).
- 예방(禮坊) : 예를 맡은 관청.

[음훈]

葬 : 장사지낼(장)

返 : 돌아올(반)

魂 : 혼(혼)

罿 : 징그릴(빈)

廢 : 폐할(폐)

廬 : 집(려), 움집(려)

壞 : 무너질(괴)

坊 : 막을(방)

度 : 헤아릴(탁)

虧 : 이지려질(휴)

欠 : 모자랄(흠), 하품(흠)

어버이의 초상에 성복을 하기 전에는 곡을 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운이 없어지면 하인에게 대신 곡을 하게 한다.) 장사 지내기 전에 곡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때가 없이 슬픔이 많으면 곡을 한다. 졸곡 후에는 아침저녁으로 두 번만 한다. 예문이 대개 이와 같으나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여 곡하고 우는데 어찌 정해진 분수가 있으리오. 초상에는 슬픔은 부족한데 예가 충분하기보다는, 차라리 예가 부족할지언정 슬픔이 충분한 것이 더 나으니, 초상 치르는 일이란 그 슬픔과 공경을 다 쏟을 뿐이다.

親喪成服之前，哭泣不絕於口。〔氣盡則令婢僕代哭。〕葬前，哭無定時，哀至則哭，卒哭後則朝夕哭二時而已，禮文大概如此。若孝子情至，則哭泣豈有定數哉？凡喪，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喪事，不過盡其哀敬而已。

[해설]

초상을 치를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슬퍼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상 더할 것이 있으랴.

동대문 밖에 거지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 죽음의 신은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찾아오게 마련이어서 초상을 치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배운 게 없으니 제문을 짓기는커녕 읽지도 못했다. 이때 동원되는 사람이 동네 서당의 훈장이다. 훈장은 그들의 제문을 지어주는 것만 아니라 초상이나 제사에 참여하여 제문을 읽어주기까지 해야 했다. 이때 거지들은 무조건 소리소리 질러가며 슬퍼했다고 한다. 아마 웃기도 하며 초상이나 제사를 치르는 요즘 사람들 보다 그 당시 거지들이 훨씬 더 효자였는지 모른다.

[어의]

- 곡읍(哭泣) :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우는 것. 통곡을 하며 우는 것.
- 비복(婢僕) : 남녀 종. 비(婢)는 여종. 복(僕)은 남종.

[음훈]

泣 : 읊(읍)

概 : 대개(개)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어버이 초상 때가 그려하다”라고 하셨다. 죽은 사람을 잘 보내드린다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일에 정성을 다 쏟지 않으면 어디에 정성을 쏟으리오. 옛날에 소련과 대련은 상중에 있을 때 정성을 다해서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 동안 슬퍼하고 또 슬퍼하였으며,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거상하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잘한다. 그러나 효성이 모자란 사람은 힘써 예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曾子曰：“人未有自致者也，必也親喪乎？”送死者，事親之大節也。於此不用其誠，惡乎用其誠。昔者，少連、大連善居喪，三日不怠，三月不懈，期悲哀，三年憂，此是居喪之則也。誠孝之至者，則不勉而能矣，如有不及者，則勉而及之，可也。

[해설]

왜 하필이면 3년일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드려야 한다는데, 3년이란 세월을 생각해 보자. 사람이 태어나 몇 년이 지나야 혼자 살 수 있을까? 물론 독립해서 살려면 10년, 20년까지 걸리겠지만 혼자 걷거나 먹을 것을 찾아 먹으려면 최소한 3년은 지나야 한다. 그 전에는 곁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한다. 3년이 지나면 조금씩 부모 품을 떠나 걷기도 한다. 아이들이 이 세 살이 되면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에게 받았던 은혜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3년상을 치르는 연유다.

[어의]

- 자치(自致) : 스스로 다했다 함. 스스로 정성을 다했다 함.
- 송사(送死) : 주검을 장사지냄.
- 오호(惡乎) : 어찌 ~하리오. 반어사(反語辭).
- 소련(小連) · 대련(大蓮) : 옛날 사람의 이름. 삼년상을 잘 치렀다 함.
- 불급자(不及者) : 미치지 못하는 사람.

[음훈]

送 : 보낼(송)

惡 : 미워할(오), 악할(악)

懈 : 게으를(해)

悲 : 슬플(비)

사람이 거상을 할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간혹 사람의 자질은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예를 실행하는 것만이 효도가 되는 줄 알고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잊는 것인 줄 모른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슬퍼해서 병이 생겼는데도 차마 임시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명을 잊는 자도 간혹 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런 까닭으로 너무 슬퍼해서 몸이 수척하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을 군자들은 일러 ‘불효’라고 말하는 것이다.

人之居喪，誠孝不至，不能從禮者，固不足道矣。間有質美而未學者，徒知執禮之爲孝，而不知傷生之失正，過於哀毀，羸疾已作，而不忍從權，以至滅性者或有之，深可惜也。是故，毀瘠傷生，君子謂之不孝。

[해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내는데 이때 음식을 조심해 먹는다. 특히 고기 종류를 금하는 관습이 있다. 그리고 3년 내내 슬픔에 잠겨 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채식만 계속한다면 아마 영양결핍으로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 하에 계신 부모님이 슬퍼하실까, 아니면 기특하게 여기실까? 아무리 3년상을 잘 치르려고 했더라도 중간에 쓰러진다면 3년상을 다 마치지 못했으므로 그것도 헛 일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예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문공이 세자 시절에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뒤 아버지인 정공(定公)이 돌아가셨을 때 연우(然友)라는 신하를 시켜 맹자를 찾아보고 초종범절(初終凡節)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다. 맹자는 연우에게 흡족하게 일려주었다.

“자식으로서 애통한 뜻을 다할 것이며,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사지내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일을 예로써 하라고 증자(曾子)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3년간 상을 입는데, 비단옷을 걸치지 않고 좋은 것을 먹지 않는다 합니다. 하(夏), 은(殷), 주(周) 3대에 걸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자는 연우가 전하는 대로 3년상을 치르기로 했다. 그런데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반대를 했다.

“나는 원래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해서 글공부를 게을리했던 탓에 내가 3년 복상(服喪)을 하겠다 해도 모두들 듣지 않으니 다시 한번 선생께 부탁드립니다.”

연우가 다시 맹자를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자 맹자는, “여러 사람이 나를 못 믿어 듣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고 두려워해야(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공자도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잎은 자연 나부끼게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세자는 3년 복상을 했고, 신하들도 모두 따라하게 되었다.

[어의]

- 질미(質美) : 바탕이 좋음. 본질은 아름다움.
- 집례(執禮) : 지켜 행할 예(禮).
- 상생(傷生) : 생명을 상하게 함.
- 애훼(哀毀) : 슬퍼서 몸을 해침.
- 훼척(餽瘠) : 너무 슬퍼서 몸이 수척해짐.

[음훈]

毀 : 훼손할(훼)

贏 : 파리할(리)

滅 : 멸할(멸)

惜 : 아낄(썩)

瘠 : 수척할(척)

무릇 상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초상이 났을 때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해야 한다.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라면 그 집에 도착하여 상복을 입고, 만일 초상에 가지 못할 경우라면 4일 만에 상복을 입는다. 만약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상복을 입기 전 3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서 곡한다. [자최복에서 대공으로 낫추어 상복 입을 자도 이와 같다.]

凡有服親戚之喪, 若他處聞訃, 則設位而哭。若奔喪, 則至家卽成服。若不奔喪, 則四日成服。若齊衰之服, 則未成服前三日中, 朝夕爲位會哭。[齊衰降大功者, 亦同。]

[해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간 상복을 입고 지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년간이며,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년보다 짧은 9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촌수가 멀어질수록 한 단계씩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상복 입는 기간을 정하는 원칙이다. 자기와 피가 섞였는지를 기준으로 이것이 정해진다. 자기 부모와 자기의 장인이나 장모는 촌수가 같지만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자기 부모가 더 길다. 왜 그런가? 그것은 피가 섞였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어느 촌수까지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이며, 아래로는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다. 옆으로도 마찬가지다. 곧 위로 4대, 아래로 4대, 옆으로 즉 형제간으로 4대, 처가 4대, 외가 4대까지다. 이것이 바로 사돈의 팔촌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원칙이지만 이것이 옛날의 예법이었다. 특히 그 집안의 종손은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보면 한 집안에서 초상이 일어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따라서 한 집안의 종손은 상복을 벗고 지내는 기간이 거의 없다. 평생 상복을 입고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 전통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과거 농경시대에도 지키기 어려웠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전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일이다.

[어의]

- 설위(設位) : 신위(神位)를 설치함. 죽은 사람의 자리를 마련함.
- 분상(奔喪) : 먼 곳에서 친상(親喪)을 당하여 급히 집으로 달려감.
- 자최(齊衰) : 다섯 가지 상복 중의 하나. 자(齊)는 상복의 아랫단을 혼 것. 어머니의 복, 최(衰)는 상복의 아랫단을 흐지 않은 것. 아버지의 복. 자(齊)는 본래 재(齋).
- 회곡(會哭) : 반드시 곡을 함. 회(會)는 꼭, 반드시의 뜻.
- 대공(大功) : 다섯 가지 상복의 하나. 가까운 친척의 초상에 9개월 입는 상복.

[음훈]

戚 : 친척(척), 슬픔(척)

訃 : 부고(부)

奔 : 달아날(분)

衰 : 상복(최), 쇠할(쇠)

齊 : 웃자락(자), 가지런할(제), 재계할(재)

스승과 친구로서 의리가 남달리 가까운 사람과, 친척 중 상복을 안 입어도 되나 정의가 남달리 두터운 사람과, 서로 아는 사람으로 교분이 친밀한 사람이 모두 상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길이 멀어서 그 초상에 갈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해 놓고 곡을 한다. 스승이면 그 정의의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삼상 3년, 혹은 1년상인 기년,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을 한다. 친구이면 비록 가장 중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 싶은데 분상 할 수 없으면,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여 4일만에 그친다. (4일째 아침에 그치는데 정이 깊은 자라면 이 기간 안에 그치지 않는다.)

師友之義重者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與 凡相知之分密者，皆於聞喪之日，若道遠不能往臨其喪，則設位而哭。師則隨其情義深淺，或心喪三年，或期年，或九月，或五月，或三月。友則雖最重，不過三月。若師喪，欲行三年期年者，不能奔喪，則當朝夕設位而哭，四日而止。[止於四日之朝。○若情重者，則不止此限。]

[해설]

초상을 당한 집에서 부고를 알려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찾아가서 조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 우리의 예법에는 이 조문을 대단히 신성하게 여겼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양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가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평양 까지 천천히 간다면 아마 1주일은 걸릴 것이다. 이 친구는 평양성 안에 들어가서 친구의 집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에게서 자기가 찾아가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그는 초상을 당한 친구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걸음을 돌려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조문을 하기 위해 평양의 친구 집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것이었다. 왜 이리 복잡하게 했을까? 처음에 평양에 갔던 것은 친구를 찾아 놀러가던 길이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조문을 갈 수는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와 조문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출발한 것이

다. 조문이란 이렇게 중요한 풍습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현대인의 생활에 맞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예절이란 결국 현재 자신에게나 주위 사람에게 맞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예(禮)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어의]

- 심상(心喪) : 상복은 입지 않으나 상제와 같은 마음으로 애모(哀慕)하는 일. 탈상(脫喪)한 뒤에도 진심으로 슬퍼하여 상중(喪中)에 있는 것 같이 근신하는 일.
- 분밀자(分密者) : 교분(交分)이 친밀(親密)한 사람.

[음훈]

深 : 깊을(심)

淺 : 얕을(천)

대체로 상복을 입게 된 사람은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을 하며, 스승과 벗은 비록 상복은 입지 않으나 또한 이와 같다. 달수가 이미 찼으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는다. 그 사이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을 해도 좋다.

凡遭服者，每月朔日，設位，服其服而會哭。〔師友雖無服，亦同。〕月數既滿，則於次月朔日，設位服其服，會哭而除之，其間哀至則哭可也。

[해설]

공자께서는 장수하셨다. 7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평균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신 것이다. 공자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가 3년 동안 마음으로 상복을 입고 지냈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은 무려 6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다. 자기는 공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3년상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늘일 수도 있다. 당시에 3년은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이란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짧게 할 것을 염려해서이며, 이보다 더 길게 하면 생활에 무리가 갈 것을 걱정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

[어의]

- 조복자(遭服者) : 복제(服制)에 해당되는 초상을 만난 사람.
- 삭일(朔日) : 초하루.
- 복기복(服其服) : 그 상에 해당되는 복을 입음.

[음훈]

遭 : 만날(조)

朔 : 초하루(삭)

滿 : 가득할(만)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은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까닭 없이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남의 조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초상을 치르고 예를 논의하면서 다른 일을 삼가야 한다.

凡大功以上喪, 則未葬前, 非有故, 不可出入, 亦不可弔人, 常以治喪講禮爲事。

[해설]

3년상을 지내는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적인 일은 물론 남들과 사귀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물론 전혀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하게 지낼 수만은 없지 않은가. 뭐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 읽는 책이 있다. 《예기》라는 책이다. 《예기》는 초상을 비롯해서 모든 예의 범절까지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3년상을 치르는 기간에는 다른 책보다 이 《예기》를 가장 중요시하고 읽는 것이다.

[어의]

- 강례위사(講禮爲事) : 예를 논의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제례장

제례장 제칠 祭禮章 第七

제7장 제사 지내는 예법

〈제례장(祭禮章)〉에서는 시제, 묘제, 기제 등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어떤 제사든 간에 제사 지내기 며칠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정성을 다해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사라는 것은 사랑과 정성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가정 형편에 맞게 제수(祭需)를 마련할 것이며, 분수에 넘치게 호화롭게 장만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제례도 상제와 마찬가지로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제사 지내는 예는 당연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당을 세워 선조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제전(祭田)을 마련하고, 제기(祭器)를 준비하여 맏아들이 이를 주관한다.

祭祀，當依《家禮》。必立祠堂，以奉先主，置祭田，具祭器，宗子主之。

[해설]

사당이란 무엇인가. 곧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으로, 이곳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갖가지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므로 이곳에는 항상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사당 곧 묘(廟)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사당, 즉 선조의 신주나 존상(尊像)을 안치하여 제사를 지내는 당우(堂宇 집)를 말한다. 일반 사람들의 선조 사당을 가묘(家廟)라 하고, 임금의 선조 사당을 종묘(宗廟)라 한다.

둘째, 성현(聖賢)을 제사하는 당우(堂宇)를 말하며 문묘(文廟 공자 사당)와 관왕묘(關王廟)가 있다. 관왕묘를 무묘(武廟)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관운장을 모신 사당이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에 신설동 큰길 옆에 세웠다. 청(淸)나라 시대에는 문묘와 병렬해서 송배했고, 송(宋)나라 시대에는 악비(岳飛)를 합사(合祀)하여 관악묘(關岳廟)라고 했다. 이것은 관우(關羽)가 의리가 출중한 현장(賢將)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외국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당사를 말한다. 만동묘(萬東廟)는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명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의 사당인데 대원군 집정 때 노론(老論)의 근거지라 하여 철폐했다가 26대 고종 11년(1874)에 부활했다.

묘정배향(廟庭配享) : 공로가 있는 신하를 죽은 뒤에 연고가 있는 임금의 사당에

배향하는 일이 있었다.

묘향(廟享) : 태조(太廟)의 제사를 말한다. 곧 종묘의 제사를 이른다.

묘현(廟見) : 신부가 시집을 가서 처음으로 시가의 사당에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송(宋)나라 빈주 땅의 왕사종(王嗣宗)이 신을 모시는 사당에서 여우를 잡았다는 고사가 있다.

왕사종이 빈주 고을에 수령이 되었다. 빈주 땅에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전해 오기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신이 직접 나와서 제사에 썼던 술과 고기를 먹는다’고 하여 그 사당을 신성시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당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어 여러 마리의 여우들이 모여 있다가 제사를 지낸 뒤 사람들이 사라지면 굴에서 나와 술과 고기를 먹었던 것이다. 음식이 사라지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왕사종은 어느 날 몰래 숨어서 살펴보았다.

얼마 있자 과연 여우들이 나타나 남겨 놓은 음식을 다 먹어치웠다. 왕사종은 여우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구멍에 불을 때서 여우가 나오는 대로 때려잡았다. 그리고 사당을 지키는 산지기의 불기를 때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각 고을마다 특유의 풍속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믿는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어의]

- 사당(祠堂) : 한 집안의 조상신(祖上神)의 위패(位牌)를 모셔놓은 집.
- 선주(先主) : 선조(先祖)의 신주(神主).
- 제전(祭田) : 수입을 조상의 제사에 쓰기 위하여 마련해 놓는 전답.
- 제기(祭器) : 제사에 쓰이는 그릇.
- 종자(宗子) : 맏아들. 적장자(嫡長子).

[음훈]

祠 : 사당(사)

宗 : 마루(종)

사당을 주관하는 자는 매일 새벽마다 대문 안에 들어가 뵙고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인을 따라 함께 뵙는 것도 무방하다.)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고한다.

主祠堂者, 每晨, 謁于大門之內, 再拜。[雖非主人, 隨主人同謁無妨。] 出入必告。

[해설]

사당에서 집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집사란 그 일을 담당한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제사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하는 사람이다.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구입하거나 준비하고 진설하는 일들이 모두 이 집사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집사는 제사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음훈]

- 晨 : 새벽(신)
- 謁 : 뵙(암)
- 拜 : 절(배)
- 告 : 고할(고), 아뢸 (곡)

혹 수재나 화재나 도둑을 당하면, 먼저 사당을 구원하여 신주와 유서를 옮기고, 다음에 제기를 옮기고, 그런 뒤에 집안 재물을 옮긴다.

或有水火盜賊，則先救祠堂，遷神主、遺書，次及祭器，然後及家財。

[해설]

사람이 살다보면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재(火災)다. 그런데 사당에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신주부터 옮겨야 한다. 신주란 요즘 제례에 흔히 쓰는 영정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사당을 다시 지어 조상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다. 신주 자체가 바로 조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주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연천군에 가면 '승의전'이란 사당이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 임금을 모셔 놓은 사당이다. 곧 고려시대 종묘에 해당하는 사당이다. 이 사당에 모실 신주를 실은 배가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승의전에서 조금 더 올라간 '썩은소'라는 곳에 배를 댔다. 그리고 특별히 쇠로 만든 단단한 밧줄로 묶어 두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배를 묶었던 쇠밧줄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배는 현재 승의전이 있는 곳에 멈춰 있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는 아마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이리라. 할 수 없으니 이곳에 사당을 세우자'고 하여 승의전이 이곳에 마련된 것이다. 지금도 '썩은소'라는 지명이 있는데, 곧 밧줄이 썩은 웅덩이라는 뜻이다.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임금 때 이야기다. 당시 미자(微子)라는 신하가 있었다. 일설에 그는 주임금의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미자는 자기 조카인 임금이 하도 포악한지라 선정을 펼 것을 여러 번 청했으나 도무지 듣지를 않자 하는 수 없이 사당에 보관하고 있는 신주와 제사 때 사용하는 물품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은 이미 후손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

도였을 것이다.

[어의]

- 선구(先救) : 먼저 구한다.
- 유서(遺書) : 선조가 남겨 놓은 책.
- 가재(家財) :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물건.

[음훈]

盜 : 도적(도)

賊 : 도적(적)

遷 : 옮길(천)

정월 초하루(正朝)와 동지(冬至), 매월 초하루(朔)와 보름(望)이면 사당에 참배하고, 속절(명절)이면 그 절기에 나는 음식을 올린다.

正 [正朝。] 至 [冬至。] 朔, [一日。] 望 [十五日。] 則參, 俗節則薦以時食。

[해설]

제사는 언제 지내는가? 초상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곧 지내는 것이고, 제사는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지내는 것이다. 따라서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와 명절 때 지내는 제사로 나눌 수 있다. 꼭 명절이 아니라도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24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일까? 보통은 정월 초하루와 추석을 친다. 그러나 과거에는 동짓날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날로 여겼다. 왜냐하면 동짓날은 일 년 중에 태양이 처음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기는 첫날인 것이다. 이 동짓날에 얹힌 이야기를 보자. 달마가 소림사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혜가(慧可)가 와서 가르침을 청했으나 달마는 면벽참선만 할 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날이 바뀌어 눈이 오는 아침이 되었어도 혜가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혜가의 집념에 마음이 움직인 달마가 이윽고 말했다.

“흰 눈이 빨갛게 변하여 쌓이면 그때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 말을 되새기던 혜가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왼쪽 팔을 칼로 싹둑 잘라버렸다. 잘린 팔에서 선혈이 솟구쳐 땅에 쌓여 있는 눈 더미를 빨갛게 물들였다. 혜가의 구도를 향한 결연한 의지에 감복한 달마는 그를 제자로 맞아들이기로 했다.

달마는 혜가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물었다.

“그대가 팔을 자르면서까지 내 제자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혜가가 말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입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의 편치 않은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

“찾아보니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됐다. 그대 마음은 편해졌다.”

이리하여 혜가는 달마를 6년 동안 모셨고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만 합장을 하는 독특한 소림사 승려들의 합장법은 외팔이가 된 혜가선사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가 팔을 자른 날이 바로 동짓날이었다.

[어의]

- 속절(俗節) : 명절.
- 시식(時食) : 시절의 음식.

[음훈]

望 : 바랄(망), 보름(망) 參 : 참배할(참), 참여할(참), 석(삼) 薦 : 올릴(천)

시제에는 산재를 4일간 하고 치재를 3일간 하며, 기제에는 산재를 2일간 하고 치재를 1일간 한다. 또 참례는 1일간 재숙을 한다. 이른바 산재라는 것은 남의 초상에 조문하지 않고, 질병에 문병하지 않으며, 훈채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으며, 모든 흥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길에서 흥하고 더러운 것을 우연히 만나면 눈을 가리고 피하여 보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치재라는 것은 음악을 듣지 않고, 출입하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제사 지낼 분만을 생각하여,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거쳐하시던 곳을 생각하며, 웃고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즐기시던 것을 생각함을 말한다. 이렇게 한 뒤에 제사 지낼 때에 그분의 모습을 뵙는 것같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하여 정성을 다하면 신이 와서 차려 놓은 음식을 흡향하게 된다.

時祭則散齊四日，致齊三日。忌祭則散齊二日，致齊致齊一日。參禮則齊宿一日。所謂散齊者，不弔喪，不問疾，不茹葷，飲酒不得至亂，凡凶穢之事，皆不得預。〔若路中猝遇凶穢，則掩目而避，不可視也。〕所謂致齊者，不聽樂，不出入，專心想念所祭之人，思其居處，思其笑語，思其所樂，思其所嗜之謂也。夫然後當祭之時，如見其形，如聞其聲，誠至而神享也。

[해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치 조상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이 정성껏 지내야 한다. 산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꿈을 꾸어도 산 꿈을 꾸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도 여행이다. 마찬가지다. 돌아가신 부모 생각을 간절히 하는 사람은 꿈속에서 부모를 만나 뵙게 되는 것이다.

공자는 평소에 주나라 주공을 존경해왔다. 그래서 항상 꿈속에서도 주공을 만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요즘엔 꿈에 주공을 볼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그만큼 공자도 이미 몸과 마음이 노쇠해져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꿈 속에 부모나 조부모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효자에 가까울 것이다.

한나라의 하후흔이 그 어머니의 병을 구완하는데, 옷을 벗지 않고 지낸 지가 여러 해였다. 하루는 꿈에 그 아버지가 일러주기를, ‘하느님이 너의 효성을 가륵히 여겨 하늘의 약을 내리셨으니 집 뒤 뽕나무 가지에 있느니라’고 하는 것이었다. 흔이 깜짝 놀라 가보니 과연 약이 있어서 갖다 드렸더니 그 어머니의 병이 금방 나았다고 한다.

진(晋)나라 양호(羊祜)란 사람을 기리는 비를 현산비(幌山碑)라고 한다. 눈물을 흘리는 비라 하여 일명 타루비(墮淚碑)라고도 한다.

양호는 산수를 좋아하여 매양 풍경이 좋은 때면 반드시 현산에 가서 술 마시고 시짓고 얘기하며, 해가 지도록 돌아올 줄을 몰랐다.

한번은 탄식하며 종사관인 중랑 추담 등을 돌아보며, “이 우주가 생기면서 이 산이 있게 되었다. 옛날부터 현달한 훌륭한 선비들이 이 산에 올라, 나와 자네들처럼 멀리 바라보며 노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데 모두 죽어버리고 이름도 남지 않았으니, 슬픈 생각이 저절로 난다. 만일 죽은 뒤에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산에 올라와 노닐 것이다. 양양의 백성들이 이 현산에 양호가 살아 있을 때에 노닐던 곳에 비를 세우고 사당을 지어서,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낼 것이고, 비석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후에 비를 세워 타루비(墮淚碑)라 했다.

[어의]

- 시제(時祭) : 춘(春) · 하(夏) · 추(秋) · 동(冬) 사시(四時)에 일월(日月)과 산천(山川) 등에 지내는 제사. 시사(時祀).
- 산재(散齋) : 7일간의 재계.
- 치재(致齋) : 3일간의 재계.
- 기제(忌祭) :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 재숙(齋宿) : 재계(齋戒)하고 하룻밤을 지냄.
- 여훈(茹葷) : 여(茹)는 테치는 것. 훈(葷)은 마늘 · 파와 같은 채소. 훈채(葷菜)를 데쳐서 먹음.
- 흉예(凶穀) : 흉하고 더러움.
- 신향(神享) : 신이 흡향함.

[음훈]

散 : 흩을(산)

忌 : 꺼릴(기)

茹 : 먹을(여), 태칠(여)

葷 : 마늘(훈)

穢 : 더러울(예)

預 : 참예할(예)

猝 : 갑자기(졸)

掩 : 가릴(엄)

笑 : 웃을(소)

嗜 : 좋아할(기)

享 : 누릴(향)

제사는 사랑과 공경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집의 형편에 따라 할 것이요, 병이 있으면 근력을 해아려 실행한다. 재력이 충분한 사람은 스스로 마땅히 예법대로 행하면 된다.

凡祭, 主於盡愛敬之誠而已。貧則稱家之有無, 疾則量筋力而行之, 財力可及者, 自當如儀。

[해설]

제사음식은 어떻게 차려야 하는가?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제사상은 차이가 있을까? 구두쇠는 음식 차리기가 아까워서 종이에 음식을 그려서 차린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너무 많은 음식을 차리는 것이나 적게 차리는 것도 예가 아니라고 한다. 반드시 정해진 정도의 음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보다 지나치면 사치가 되고 이것보다 적으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장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음식은 후손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조의 일화가 있다. 세조는 임금이 된 지 몇 해 후 몸에 종기가 생기더니 차츰 퍼지기 시작해 나중에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말인즉, 그가 단종을 죽이기 전날 밤 꿈에 형수인 현덕왕후의 혼령이 나타나서 무수히 꾸짖고 욕하던 끝에 그에게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묻은 자리에서부터 종기가 발창(發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 종기를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쓰며 온갖 약을 다 써봐도 낫지 않자,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찾아다니며 산천기도와 불전공양(佛殿供養)을 드리게 되었다.

어느 해 여름, 오대산 월정사로 행차했을 때의 일이다. 불전(佛殿)에 기도를 드리려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는데 순간 웬일인지 머리가 쭈뼛해지며 공포가 엄습해 왔다. 그리하여 주춤거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의 곤봉포 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양이를

쫓았으나 고양이는 피하려 하지 않고 더욱 악착같이 달려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허!” 하며 고양이를 피하여 물러나고, 군사에게 명하여 법당 안을샅샅이 뒤져보라 했다. 법당 불탑 아래 세 명의 도부수가 시퍼런 칼을 들고 숨어 있었는데, 이들은 단종을 위해 세조를 암살하려는 자들이었다.

죽을 뻔한 목숨을 고양이가 살려주어 불공을 마치고 회정할 때, 세조는 5백 석지 기를 장만케 하여 그 고양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도록 현납했다. 이 묘답(猫答)은 지금도 월정사에 남아 있다 한다. 고양이에게도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물이 귀한 나라다. 물론 서쪽으로 가면 높은 산이 있어 물이 있기는 하지만 동쪽으로 오면 사정이 다르다. 산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하다. 오죽하면 중국은 한번 가물었다 하면 7년을 가물고, 홍수가 났다 하면 9년을 내리 홍수다. 치산치수(治山治水)란 말은 중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탕(湯)임금이 걸(傑)왕을 친 다음 7년 동안 가물었다. 얼마나 날이 뜨거웠던지 돌들이 다 부스러질 정도였다.

이를 본 태사가 점을 쳐보고 말했다.

“사람을 죽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탕 임금은,

“내가 비를 빌려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성을 죽여 희생 시킨다면 비는 빌어서 무엇하랴” 하고는 스스로 목욕재계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 손톱을 자르고 몸을 흰 띠풀로 싸서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 뽕나무 숲에 나가 하늘에 기도했다.

사람을 죽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비가 온다고 했던 태사의 말은 적중하지 못했다. 과연 그의 말대로 한다면 누구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건지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의]

- 가급자(可及者) : 미칠 수 있는 사람.
- 여의(如儀) : 예법대로.

[음훈]

量 : 헤아릴(량)

筋 : 힘줄(근)

요즘에는 묘제와 기제를 자손들이 돌아가며 지내고 있는데 이것은 예(禮)가 아니다. 묘제는 비록 돌려가며 지내더라도 모두가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제 때에 신주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지방을 써 붙여 놓고 제사를 지내니, 이는 몹시 미안한 일이다. 비록 돌려가며 지낼 수밖에 없더라도 반드시 제사 음식을 준비하여 가정의 사당(家廟)에서 지내는 것이 그래도 옳을 것이다.

墓祭、忌祭，世俗輪行，非禮也。墓祭則雖輪行，皆祭于墓上，猶之可也。忌祭不祭于神主，而乃祭于紙榜，此甚未安，雖不免輪行，須具祭饌，行于家廟，庶乎可矣。

[해설]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하는가? 장남만 맡아서 지내야 할까? 조선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고려시대로 가보면 제사 지내는 일을 형제들이 돌려가며 했다. 여기에는 물론 여자들도 참여했다. 시집간 딸들도 친정 제사에 참여하여 제사를 올렸고, 더구나 그 제사를 자기가 맡아서 지내기도 했으니 모든 자식들이 골고루 자식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 돌아가신 부모가 남겨주신 재산도 모든 형제가 골고루 나누어 갖게 되었고 시집간 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자식들에게는 재산 분배가 더 많이 가도록 했다. 참으로 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 제도가 변하게 되어 장남 위주로 제사를 맡게 되었고 재산도 많이 물려받게 된 것이다. 어느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일까?

[어의]

- 묘제(墓祭) : 무덤 앞에서 지내는 제사.
- 지방(紙榜) : 신주(神主) 대신 종이에 조상의 서열 관계와 관직을 적은 것.
- 제찬(祭饌) : 제수(祭需)로 마련한 음식.

[음훈]

輪 : 바퀴(륜), 돌(륜)

紙 : 종이(지)

榜 : 방불일(방)

饌 : 음식(찬), 반찬(찬)

廟 : 사당(묘)

상례와 제례 같은 두 예법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할 일이다. 이미 돌아가신 어버이를 뒤쫓아 봉양할 수 없으니, 만약 상중에 그 예를 다하고 제사에 그 정성을 다 쏟지 않는다면, 하늘이 다하도록 아픔을 어디다 둘 곳 없고, 또 풀만한 때가 없을 것이니, 자식 된 정에 어떻게 하겠는가?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장례를 삼가 모시고 먼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운 데로 몰려갈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喪祭二禮，最是人子致誠處也。已沒之親，不可追養，若非喪盡其禮，祭盡其誠，則終天之痛，無事可寓，無時可洩也。於人子之情，當如何哉？曾子曰：“慎終追遠，民德歸厚矣。”爲人子者，所當深念也。

[해설]

사당에는 한결같이 공통적인 이름이 있다. ‘추원재(追遠齋)’가 그것이다. 전국 어느 곳을 다녀 봐도 추원재라고 쓰인 곳은 일단 사당이다. 어째서 그런가? ‘추원(追遠)’이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면 “먼 조상을 추모한다”란 말이다. 그러니 사당의 이름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제 여행을 가서 어떤 유적의 현판에 ‘영모정(永慕亭)’이라고 써 있다면 그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영모정이란 이름은 전국에 흔한 이름으로 이도 ‘영원히 사모한다’는 뜻이므로 아마 사당의 기능을 하는 곳이리라.

[어의]

- 추양(追養) : 뒤쫓아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함.
- 신종(慎終) : 마침을 삼가다. 즉 어버이의 상사(喪事)를 정중히 함.
- 추원(追遠) : 조상을 생각하고 제사 지냄.

[음훈]

沒 : 죽을(몰), 빠질(몰)

洩 : 샐(설), 털(설)

遠 : 멀(원)

요즘의 풍속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제사 지내는 의식이 집집마다 같지 않으니 몹시 우습다. 만약 예법을 정하여 통일하지 않으면 마침내 문란해지고 질서가 없어져 오랑캐의 풍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에 제례를 뽑아 책 끝에 부록으로 만들고 또 그림까지 붙이니 꼭 자세히 살피고 본받아 행해야 한다.〔편집자 주 : 《율곡전서》 등 판본에 따라서는 도록이 있는 것도 있으나, 현대에 《격몽요결》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치 않다고 보아 생략함. 〈상례장〉과 〈제례장〉은 《격몽요결》 완성 이후에 당시의 예법을 바로잡고자 덧붙인 것이다.〕 만일 부형이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 마땅히 간곡히 말씀드려 바른 데로 돌아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今俗多不識禮，其行祭之儀，家家不同，甚可笑也。若不一裁之以禮，則終不免紊亂無序，歸於夷虜之風矣。茲鈔祭禮，附錄于後，且爲之圖，須詳審倣行。而若父兄不欲，則當委曲陳達，期於歸正。

[해설]

우리나라는 각 집안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제사를 지내는 양식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는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가 하면 어느 집안에서는 반드시 생선을 올려야만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제사법인가?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일로 각각이 모두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후기에 와서 《가례편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하자는 의도였다.

[어의]

- 이로지풍(夷虜之風) : 오랑캐의 풍속.
- 위곡(委曲) : 자세함. 따라 굽힘. 불만이 되는 점이 있어도 몸을 굽혀 일의 성취를 바람.

[음훈]

紊 : 문란할(문)

夷 : 오랑캐(이)

虜 : 오랑캐(로)

茲 : 이(자)

鈔 : 뽑을(초)

附 : 불일(부)

審 : 살필(심)

倣 : 같을(방), 본뜰(방)

委 : 간곡할(위)

曲 : 간곡할(곡), 굽을(곡)



거가장

거가장 제팔 居家章 第八

제8장 가정 생활

〈거가장(居家章)〉은 집안에 있어서의 처사에 관한 글이다. 가정 경제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항상 검소하게 하여 불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동기간에는 우애를 부부간에는 분별을 자식에게는 조기에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비록 하인이라도 주인의 가풍을 더럽히지 않도록 예법을 가르친다. 군자는 도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를 걱정해야지 가난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부귀에 대하여 염두에 두지 않고 빈천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며, 의롭지 않은 것이면 취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집에 있을 때에는 예법을 삼가고 지키면서 처자와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한다. 그들에게 직책을 나누어 주고 할 일을 맡겨 주어 성과가 오르도록 독려하며, 재물의 씀씀이를 절약하여 수입을 해아려서 지출을 계획한다. 집안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들 옷과 음식에 소용되는 것을 쓰도록 한다. 또 모두 차등을 세워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할 것이다. 쓸데없는 비용을 조절하여 줄이고 사치와 호화를 금지하여 항상 다소 남는 게 있도록 해서 뜻밖의 쓸 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관례와 혼례의 제도는 마땅히 《가례(家禮)》에 의거할 것이요, 구차스럽게 세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凡居家，當謹守禮法，以率妻子及家衆，分之以職，授之以事。而責其成功，制財用之節，量入以爲出，稱家之有無，以給上下之衣 食。及吉凶之費，皆有品節，而莫不均一，裁省冗費，禁止奢華，常須稍存贏餘，以備不虞。冠婚之制，當依《家禮》，不可苟且從俗。

[해설]

세상의 일은 가정에서부터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결정된다.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안정되고 진취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을 다스리는 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쉽다면 애초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명심보감》에 나온 금언을 몇 가지 소개한다.

凡諸卑幼 事無大小 毋得專行 必咨稟於家長

모든 아랫사람들은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 맘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에게 여쭈어 봐야 한다.

待客 不得不豊 治家 不得不儉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다.

痴人畏婦 賢女敬夫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아내는 지아비를 공경한다.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

혼인을 하는 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다.

[어의]

- 가중(家衆) : 집안 식구.
- 용비(冗費) : 쓸데없는 비용. 잡비(雜費).
- 사화(奢華) : 사치와 호화로움.
- 영여(贏餘) : 남은 재물.
- 불우(不虞) : 생각지도 못한 일. 즉 뜻밖의 일.

[음훈]

謹 : 삼갈(근)

率 : 거느릴(솔)

授 : 줄(수)

費 : 쓸(비)

冗 : 잡될(옹)

奢 : 사치할(사)

稍 : 조금(초)

贏 : 남을(영)

虞 : 해아릴(우), 나라이름(우)

형과 아우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더불어 한몸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저와 내가 간격이 있게 보아서는 안 되며, 음식이나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똑같이 해야 한다. 가령 형이 굽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뚱이 안에 있는 사지가 한쪽은 병들고 한쪽은 튼튼한 것과 같은 경우이니, 몸과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형제가 만일 좋지 못한 행실이 있으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충고해서 차차 올바른 도리로 깨우쳐 기어이 감동되어 깨닫게 해야 할 것이요, 갑자기 노여운 안색을 하거나 거슬리는 말로 그 형제간의 화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兄弟，同受父母遺體，與我如一身，視之當無彼我之間，飲食衣服有無，皆當共之。設使兄飢而弟飽，弟寒而兄溫，則是一身之中，肢體或病或健也，身心豈得偏安乎？今人兄弟不相愛者，皆緣不愛父母故也。若有愛父母之心，則豈可不愛父母之子乎？兄弟若有不善之行，則當積誠忠諫，漸喻以理，期於感悟，不可遽加厲色拂言，以失其和也。

[해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강조된 이야기다. 더 이상 말로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본다.

지금의 양화대교에 있던 공암진(孔岩津) 나루터에 의(義) 좋은 형제가 나룻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윽고 그물을 걷어올리자 고기는 얼마 없고 커다란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다. 깜짝 놀란 형제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금덩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를 했다.

먼저 아우가 입을 열어 형에게 말하기를, “형님은 식솔들이 많으시니 형님이 금덩이를 가지시지요” 하니 이 말을 들은 형이 손을 휘휘 저으면서 말했다.

“무슨 소리, 너도 이제 장가 들 나이가 되었으니, 네가 가져가 밑천이나 삼으려무나.”

금덩이를 놓고 수차례 실랑이를 벌이던 형제는 금을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다.

반으로 쪼갠 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우는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금덩이를 다시 강물에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형이 의아해서 물어보니 동생이 하는 말,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더니, 웬지 형님 것이 자꾸만 더 크게 느껴지고 사악한 생각이 들길래 버렸습니다” 했다.

이 말을 들은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미련 없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금덩이 때문에 형제간에 의리가 깨질까봐 걱정해서 그런 것이다.

조선조 3대 왕인 태종(太宗)에게는 4형제가 있었다. 첫째가 양녕(讓寧)이고, 둘째가 효녕(孝寧), 셋째가 뒤에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忠寧), 넷째가 성녕대군(誠寧大君)이다. 원칙대로라면 세자의 자리는 당연히 맏이인 양녕의 차지여야 했지만, 부왕의 마음이 셋째인 충녕에게 가 있음을 간파한 양녕이 일부러 미친 짓을 하여 세자의 자리를 아우에게 양보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둘째인 효녕도 세자가 될 수 없음에 실망한 나머지 불도에 귀의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하루는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형 양녕도 보고 울적한 정회도 풀 겸 자신이 거처하는 회암사(檜岩寺)로 양녕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양녕은 건달패들을 거느리고 술에 잔뜩 취한 채 당도하여 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대경실색(大驚失色)한 효녕이 맨발로 뛰어 내려가서 만류하며 말했다.

“형님, 이제 아우가 공양(供養)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청정도량(淸淨道場)에서 무슨 해괴한 짓이오니까?”

그러자 양녕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세상에 나만큼 아우들을 잘 둔 형이 또 있는가? 살아서는 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니 두려울 게 무엇이며, 즐겁지 않을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양녕의 거침없는 대답에 효녕도 더 이상 형을 나무랄 수 없었다. 형제간의 의리가

바탕이 되었기에 샛째 충녕, 즉 세종이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어의]

- 설사(設使) : 가령. 그렇다순 치더라도.
- 지체(肢體) : 팔·다리의 사지(四肢)와 몸.
- 여색(厲色) : 노여운 낯빛.
- 불언(拂言) : 거슬리는 말.

[음훈]

飽 : 배부를(포)	肢 : 사지(지)	健 : 튼튼할(건), 건장할(건)
緣 : 인연(연)	偏 : 치우칠(편), 편벽될(편)	積 : 쌓을(적)
喻 : 깨우칠(유)	悟 : 깨달을(오)	遽 : 급할(거)
厲 : 사나울(려)	拂 : 떨(불)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록 학문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독실한 사람이 드물다. 부부들은 이부자리 위에서 흔히 정욕을 함부로 부려서 그 위의(威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친압하지 않고 서로 공경하는 자가 몹시 적다. 이와 같이 하면서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바로잡고자 한들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남편은 온화하면서 의리를 가지고 아내를 거느리고, 아내는 유순하면서 정당한 도리를 가지고 남편을 받들어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야 집안일을 다스릴 수가 있다. 만일 종전처럼 서로 친밀하기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려고 하면 그 자세가 뜻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모름지기 아내와 함께 서로 경계하면서 반드시 예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차츰차츰 예의 바른 길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 아내가 만일 나의 몸가짐이나 말하는 것이 한결같이 올바른 데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점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今之學者，外雖矜持，而內鮮篤實。夫婦之間，衽席之上，多縱情慾，失其威儀，故夫婦不相昵狎，而能相敬者甚少。如是而欲修身正家，不亦難乎？必須夫和而制以義，妻順而承以正，夫婦之間，不失禮敬，然後家事可治也。若從前相狎，而一朝遽欲相敬，其勢難行。須是與妻相戒，必去前習，漸入於禮可也。妻若見我發言持身，一出於正，則必漸相信而順從矣。

[해설]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로부터 부부유별이란 말이 있다. 부부 사이에도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으로 맺어져야 할 것이지 겉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옛날에 한 천한 신분의 사내가 있었다. 그는 어찌다가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어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그 사내는 보잘것없는 자신이 어떤 신분의 출신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온갖 사치(奢侈)와 갖은 호사(豪奢)로 공주를 만족하게 해주고자 애썼

다. 그러나 공주는 어쩐 일인지 도대체 웃는 일이 없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침울해지는 공주의 모습을 보다 못한 사내는 어느 날, 모르는 게 없다는 도사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도사는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너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훌륭한 밥상에 군침을 삼키지만 늘 사치(奢侈)하고 호사를 누리던 사람에게는 훌륭하게 차린 밥상이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법이다. 그렇듯이 공주는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랐으므로 황금을 가지고는 그 마음을 살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내는 딱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주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도사는 짤막하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거야 간단하지. 공주의 마음을 사려면 마음을 주어야지,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네.”

집으로 돌아간 그 사내는 그 뒤로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공주를 보살피고 위하자 비로소 공주는 얼굴에 웃음을 보이며 흡족해 했다고 한다.

[어의]

- 임석(衽席) : 요. 까는 요. 침실. 눈앞.
- 일압(昵狎) : 벼룩없이 너무 지나치게 친함.

[음훈]

矜 : 자랑할(궁), 씩씩할(궁)	衽 : 요(임)	縱 : 늘어질(종)
昵 : 친압할(닐)	狎 : 친압할(狎)	勢 : 기세(세)

자식을 낳아 약간 아는 것이 생길 때부터 마땅히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렸을 때에 가르치지 않고 장성함에 이르면, 나쁜 것을 익히고 방심하게 되어 이를 가르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 자식을 가르치는 차례는 마땅히 『소학(小學)』을 따라야 한다. 대개 한 집안에 예법이 잘 시행되고 책과 글쓰기 이외에 다른 잡기가 없다면, 자제들도 또한 마음을 밖으로 내달아 학문을 저버리는 병통이 없을 것이다. 형제의 아들은 내 자식과 같다. 그러니 그를 사랑함과 그를 가르치기를 마땅히 내 자식과 똑같이 할 것이요, 조금도 가볍고 무겁고 두텁고 얹은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生子，自稍有知識時，當導之以善。若幼而不教，至於既長，則習非放心，教之甚難。教之之序，當依《小學》。大抵一家之內，禮法興行，簡編筆墨之外，無他雜技，則子弟亦無外馳畔學之患矣。兄弟之子，猶我子也，其愛之，其教之，當均一，不可有輕重厚薄也。

[해설]

세상에 자식 가르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으랴. 『땡자』에서도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남에게 보내서 가르친다고 했다. 남의 자식은 가르칠 수 있어도 자기 자식은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일이다.

황희 정승에게는 수신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수신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술을 즐겨서 걸핏하면 마을의 술집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뿐만 아니라 심하게 취하면 아예 잠을 자고 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황 정승은 틈나는 대로 아들 수신에게 빼대 있는 집안의 자손답게 몸가짐을 바로 잡고,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그러나 수신은 아버지의 태이름을 궐전으로 흘려버렸다. 행동을 조심하고 책상 앞에 앉는 듯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술집으로 달려가기가 일쑤였다.

“술집에서 내 아들로서의 체통을 저버리거나, 자고 오는 일이 있다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라는 황 정승의 호통에 수신은 굳은 맹세를 했다. 그러면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난 수신은 사양하면서도 술을 자꾸 받아 마셔 마침내 몹시 취했고, 그날 밤도 정신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불안한 마음으로 술집 문을 나서는데, 평복을 입은 채 기다리고 있던 황 정승이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수신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며 아버지를 일으켰지만 막무가내였다.

“도련님, 저도 도련님과 같은 자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도련님을 보니 자식 생각이 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에는 할 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과 같은 도령께서 술탄령이나 하신다면 장차 이나라는 어찌 될까요?”

아버지의 깊은 충정(忠情)을 안 수신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자식을 몹시 엄하게 키우는 선비가 있었다.

어느 날 옆집 노인을 모신 자리에서 자기의 아들을 호되게 매질을 했다. 그 노인이 무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여 보다 못해 점잖게 참견을 했다.

“애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처럼 엄하게 다루시오? 거 웬만하면 그만두시오.”

선비가 뚱하게 대답했다.

“아까 어르신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어르신의 쌈지에서 돈 만 냥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단단히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자기 쌈지를 들추며 고개를 겨우뚱거렸다.

“내 돈 만 냥을 훔쳤다고? 내 쌈지엔 동전 한 냥밖에 없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한 냥은 없어졌구려. 하지만 뭔가 잘못 알고 있소.”

그 말을 듣고, 선비가 여전히 뚱하게 대답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녀석이 지금은 한 냥을 훔쳤음에 불과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만 냥 훔치는 도둑이 될지 어떻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냥을 훔친 아들이지만 훗날을 위해서 만 냥을 훔친 듯이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쁜 버릇은 시작할 때 고쳐야지 그냥 두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노인은 할 말을 잊었다.

[어의]

- 습비(習非) : 잘못이 버릇됨.
- 간편(簡編) : 책. 서적.
- 반학(畔學) : 학문을 배반함.

[음훈]

導 : 인도함(도)

抵 : 대저(저)

技 : 재주(기)

馳 : 달릴(치)

畔 : 배반함(반)

종들은 나를 대신하여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음에 위엄을 보여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임금이 백성을 대하는 것이나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이나 그 이치는 똑같은 것이다. 임금이 백성을 구제하지 않으면 백성은 흘어지고, 백성이 흘어지면 나라는 망하며, 주인이 종을 구제하지 않으면 종은 흘어지고, 종이 흘어지면 집안이 반드시 폐망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주인은 반드시 추위와 굶주림을 염려해서 옷과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살 곳을 얻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잘못과 악한 행실이 있으면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들에게 고치도록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비로소 그 후에야 매를 가한다. 그 순간 그들 마음에 주인이 좋아리를 때리는 것은 가르치고 깨우치려는 데서 그려는 것이지,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婢僕，代我之勞，當先恩而後威，乃得其心。君之於民，主之於僕，其理一也。君不恤民則民散，民散則國亡。主不恤僕則僕散，僕散則家敗，勢所必至。其於婢僕，必須軫念飢寒，資給衣食，使得其所。而有過惡，則先須勤勤教誨，使之改革，教之不改，然後乃施楚撻，使其心知厥主之楚撻，出於教誨，而非所以憎嫉，然後可使改心革面矣。

[해설]

과거에는 집안에 노비를 둔 집이 많았다. 이 노비를 종이라고도 한다. 노비를 어떻게 부려야 하는가. 곧 아랫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는 문제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말 모는 어떤 하인이 술을 좋아했다. 밤낮 시간만 나면 술탄령이다. 하루는 정승(宰)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정승의 수레에 토를 해 놓았다. 담당 관리가 이를 보고 화가 치밀어 그 하인을 내쫓으려고 했다. 그러자 정승은 관리를 보고, “술에 취해 실수한 걸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게 구느냐. 만약 그 사람을 내쫓으면 당장 어디 가서 발을 붙이겠느냐. 담당관은 그대로 두어라. 정승의 자리를

더럽힌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더냐” 하였다.

《한서(漢書)》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의]

- 훌민(恤民) : 가난한 백성을 구제함. 이재민(罹災民)을 구제함.
- 진념(軫念) : 임금의 마음. 임금이 아랫사람을 생각하여 근심함. 여기서는 주인이 하인을 생각하여 근심함.
- 자급(資級) : 급여(給與).
- 초달(楚撻) :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림.
- 증질(憎嫉) : 미워하고 질투함.

[음훈]

婢 : 계집종(비)	僕 : 남자종(복)	飢 : 주릴(기)
資 : 재물(자)	給 : 줄(급)	誨 : 가르칠(회)
革 : 고칠(혁)	施 : 배풀(시)	楚 : 회초리(초), 초나라(초)
撻 : 종아리칠(달)	憎 : 미워할(증)	嫉 : 미워할(질)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예법을 가지고内外를 분별하여야 한다. 비록 종일 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한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남자 좋은 심부름을 할 때가 아니면 함부로 안에 들어가지 말게 하고, 여자 좋은 모두 정해진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는 자라면 내쫓아 따로 머물게 해서 집안의 풍속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남녀 종들끼리도 마땅히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할 것이니 만일 싸우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엄중히 금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治家當以禮法，辨別內外。雖婢僕，男女不可混處。男僕非有所使令，則不可輒入內。女僕皆當使有定夫，不可使淫亂。若淫亂不止者，則當黜使別居，毋令汚穢家風。婢僕當令和睦，若有鬪鬭喧噪者，則當痛加禁制。

[해설]

역시 비슷한 이야기다. 누구나 아랫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인가보다.

주나라의 윤(尹)씨는 살림을 어찌나 지독하게 관리하는지,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낮없이 일에 시달리는 형편이었다. 그 가운데 늙은 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젠 고생에 찌들어서 몸이 몹시 쇠약해졌는데도 윤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힘든 일만 시키고 있었다. 늙은 종은 온종일 일에 시달린 나머지 밤만 되면 정신없이 잠에 빠지곤 했다. 그렇게 잠이 들면 밤마다 꿈 속에서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 백성들을 거느리고 정치를 하며, 대궐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한편 윤씨도 공연한 일에 신경을 쓰고 살림살이에만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지쳐서 밤만 되면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곤 했다. 그런데 밤마다 꿈 속에서는 남의 집 하인이 되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 잠시도 쉴 새가 없고, 게다가 툭하면 꾸중이고 걸핏하면 매질을 당하기 일쑤라 꿈결에도 헛소리를 중얼거

리며 매에 못 이겨 신음소리를 내다가 날이 밝아야만 겨우 그치는 형편이었다.

윤씨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친구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낙이 있으면 고통도 따르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겠는가. 낮이고 밤이고 자네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일세.”

황희(黃喜) 정승의 또 다른 이야기를 보자.

황희 정승이 어느 날 대청에 나와 책을 읽고 있노라니 계집종이 와자지껄 떠들며 싸우는 소리가 난다. 그러길 무려 몇 식정이 지났다. 이제는 조용하겠거니 했더니 웬걸 그중 한 계집종이 졸래졸래 쫓아와서 하는 말이,

“나리, 제가 저기 저 애하고 서로 다투었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제가 옳고 저 계집애는 아주 악질입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황희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했다.

조금 있자 또 다른 계집종이 쫓아와 하는 말이,

“나리, 제가 저 애하고 서로 다투었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제가 옳고 저 계집애는 아주 악질입니다” 하자 황희는 또 “그래 네 말이 옳다”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마침 황희의 조카가 옆에 앉아 있었다. 듣고 보니 답답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질 않고 무조건 옳다고만 하니. 그래서 한 마디 했다. “참 답답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아이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황희는,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는 읽던 책을 마저 읽었다.

[어의]

- 사령(使令) : 심부름을 함.
- 투혁(鬪鬪) : 형제가 서로 다툼. 같은 쳐지에 있으면서 서로 다툼.
- 흰조(喧噪) : 시끄러움. 떠들썩함.
- 통가(痛加) : 통렬히 가함. 엄중히 가함.
- 금제(禁制) : 금지한 제도.

[음훈]

輒 : 문득(첩), 곧(첩)

淫 : 음란할(음)

黜 : 내쫓을(翛)

汚 : 더러울(오)

睦 : 화목할(목)

鬪 : 싸울(투)

鬪 : 싸울(혁)

喧 : 떠들 훈

噪 : 떠들(조)

군자는 도를 근심할 것이지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생활할 수 없으면 마땅히 가난을 구제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집안이 굽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으면 되고, 풍족하게 쌓아두고 지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세상의 지저분한 일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숨어 사는 사람 중에서는 짚신을 삼아 팔아서 먹고 산 사람도 있고, 땔나무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산 사람도 있고, 지팡이를 꽂아 놓고 김을 매며 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부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런 생활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 만일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비교하고, 풍성함과 가난함을 헤아릴 생각을 가졌다면 어찌 마음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을 먹을 것이다.

君子憂道，不當憂貧。但家貧無以資生，則雖當思救窮之策，亦只可免飢寒而已，不可存居積豐足之念，且不可以世間鄙事，留滯于心胸之間。古之隱者，有織屨而食者，樵漁而活者，植杖而耘者，此等人，富貴不能動其心，故能安於此。若有較利害計豐約之念，則豈不爲心術之害哉？學者要須以輕富貴守貧賤爲心。

[해설]

부자로 살면 과연 잘사는 것일까? 꼭 부자라야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떠랴.

중국 초(楚)나라 왕이 신하를 보내서 어릉(於陵)에 사는 자종(子終)이란 사람을 찾았다. 평소에 들어왔던 자종의 인물 됨됨이를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임금이 그를 중용하려고 한 것이다.

임금의 신하가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대궐로 들어가자고 하자 자종은 그 일을 아내에게 말했다.

“임금께서 나를 국가 원로직에 앉히겠다는 분부가 계셨소. 그렇게 되면 당장에라도 사두마차(四頭馬車)를 타고 요란히 행차할 수 있고, 또 매일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게요.”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달랐다.

“당신은 비록 신을 삼으면서 생활을 이어갈망정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거문고가 없습니까, 책이 없습니까? 사두마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를 것 없어요. 분수가 지나쳐서 조금 더 호강을 하고 조금 더 많이 먹는 대가로 초나라 전체의 근심을 도맡으시렵니까? 쓸데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짧게 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종은 심부름 온 신하에게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다.

임금의 어명을 거역한지라 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 농사를 지으며 안락한 일생을 마쳤다.

[어의]

- 우도(憂道) : 도에 어긋나지 않는가 근심함. 도에 벗어나지 않는가 걱정함.
- 자생(資生) : 어떠한 사물에 의하여 생장하거나 생활함.
- 유체(留滯) : 머물러 쌓임.
- 직구(織履) : 신을 삼음. 신을 만들.
- 초어(樵漁) : 맷나무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음.
- 식장(植杖) : 지팡이를 꽂음.
- 풍약(豐約) : 빈부(貧富), 성쇠(盛衰), 다과(多寡)의 뜻.

[음훈]

策 : 꾀(책)	豐 : 풍년(풍)	鄙 : 더러울(비)
滯 : 막힐(체)	織 : 짧(직)	履 : 신(구)
樵 : 나무할(초)	漁 : 고기잡을(어)	活 : 살(활)
杖 : 지팡이(장)	植 : 심을(식), 꽂아놓을(식)	耘 : 김맬(운)
較 : 비교할(교)	賤 : 천할(천)	計 : 헤아릴(계), 계산할(계)

집안이 가난하면 반드시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 지켜야 할 것을 잃는 사람이 많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주의해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곧 궁한 처지에 있으면 하지 않아야 할 바를 살펴보고, 가난한 사람이면 취하지 않아야 할 바를 살펴본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은 곤궁하면 잘 못을 저지른다”라고 했다. 만일 가난에 마음이 움직여 옳은 행실을 할 수 없다면 학문은 해서 무엇에 쓰겠는가? 사양하거나 받거나, 얻거나 줄 때는 반드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자세히 생각해서 의로우면 받고 의롭지 않으면 받지 아니하여, 텔끝만큼이라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한다. 친구 사이에는 재물을 빌려주는 의리가 있으므로 주는 것은 다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내가 궁핍하지 않은 데도 쌀이나 옷감을 주면 그때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서로 아는 사람이면 다만 명분이 있는 선물은 받을 것이요, 명분이 없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 이른 바 명분이 있다는 것은 상사 때의 부의나, 여행 때의 노자나, 혼인 때의 부조나, 굶주릴 때의 도움 등이 그것이다. 만일 대단히 악한 사람이어서 마음으로 더럽고 나쁘게 여기는 자라면, 그 선물이 비록 명분이 있더라도 받았을 때 반드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치 못하면 억지로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맹자가 말하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의(義)를 실행하는 법이다.

居家貧窶，則必爲貧窶所困，失其所守者多矣。學者正當於此處用功。古人曰：“窮視其所不爲，貧視其所不取。”孔子曰：“小人，窮斯濫矣。”若動於貧窶，而不能行義，則焉用學問爲哉？凡辭受取與之際，必精思義與非義，義則取之，不義則不取，不可毫髮放過。若朋友則有通財之義，所遺皆當受，但我非乏，而遺以米布則不可受也。其他相識者，則只受其有名之饋，而無名則不可受也。所謂有名者，賻喪、賚行、助昏禮，周飢乏之類是也。若是大段惡人，心所鄙惡者，則其饋雖有名，受之心必不安，心不安則不可抑而受之也。孟子曰：“無爲其所不爲，無欲其所不欲”，此是行義之法也。

[해설]

가난할 때일수록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황희 정승은 한 나라의 정승이면서도 집이 가난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승의 아내가 삽바느질을 해서 먹고살아야 했다. 그런데 그것도 황희 정승 때문에 그만 두어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만약 정승 부인이 삽바느질을 한다고 하면 바느질감을 모두 우리집에 맡기려고 할 것이 아니오. 정승인 나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오. 그렇게 되면 삽바느질을 하는 사람 중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은 무얼 먹고 산단 말이오.”

정승의 아내는 삽바느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어의]

- 빈구(貧窶) : 가난하여 초췌함.
- 부상(賙喪) : 장사(葬事) 때에 초상난 집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일.
- 신행(贊行) : 전별(餞別)함.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노자.

[음훈]

窶 : 가난할(구)	困 : 괴로울(곤), 곤궁할(곤)	濫 : 넘칠(람), 퍼질(람)
髢 : 터럭(발)	乏 : 가난할(핍)	賙 : 부의(부)
贊 : 노자(신)	饋 : 선물할(궤)	

중국에서는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각자 사사로운 녹봉을 받는다. 그러므로 남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위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령들이 별도로 받는 녹봉이 없이, 다만 나라의 곡식으로 일상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남에게 준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죄가 되어, 심하면 장물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 또한 그렇게 된다. 선비가 되어 수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는 바로 금하는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그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뒤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찌 금하는 법을 어기게 되겠는가? 수령의 선물은 대개 받기가 어렵다. 만일 나라 창고의 곡식을 개인적으로 준다면 그 사람과의 사이가 가까운지 그렇지 않은지,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와 주는 물건이 많은지 적은지를 막론하고 모두 받지 말아야 한다. (만일 친분이 두터운 수령이 관아에 있는 사재(私財)로 다급한 사정을 도와준다면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中朝則列邑之宰有私俸，故推其餘，可以周人之急矣。我國則守令別無私俸，只以公穀，應日用之需。而若私與他人，則不論多少，皆有罪譴，甚則至於犯贓，受者亦然。爲士而受守令之饋，則是乃犯禁也。古者，入國而問禁，則居其國者，豈可犯禁乎？守令之饋，除酒肉飲食外，若私與官庫之穀，則不論人之親疏，名之有無，物之多寡，皆不可受也。[若分厚邑宰，以衙中私財周急，則或可受也。]

[해설]

윗사람이 주는 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만약에 올바른 일로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옳지 못한 이유로 준다면 사양해야 마땅할 것이다. 옳지 못한 일로 주는 것은 반드시 뒤탈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다.

동진 때의 시인인 도잠(陶潛 365~427)으로 말하면 중국 역대 시인 중 굴원(屈原), 이백(李白), 두보(杜甫)와 더불어 4대 시인으로 손꼽히는 절필 중의 절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풍은 유가적 기질과 노장적 초월을 접목시킨, 운치가 높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벼슬을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니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가 처음 맡은 벼슬은 강주 지역의 교육장(教育長)이었는데, 번거롭기 짜이 없는 관리생활을 이기지 못해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 뒤 손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동안 친구들에게, “현령이라도 해볼까?”라고 했던 말이 씨가 되어 평택현의 현령이 되었다. 그러나 현령이 된 뒤에도 그가 고작 명한 일이라고는 술을 빚을 수 있도록 찹쌀을 심게 한 일밖에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찰관이 평택현에 오게 되었다. 고을 아전들이 연명에게 허둥대며 아뢰기를, “예를 갖추지 않고 순찰관을 맞으면 큰일이 납니다”라고 하자 “내 어찌 오두미(五斗米)로 인해 허리를 꺾고 시골 아이를 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 하고는 그날로 관직을 버리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지으며 낙향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오두미란 작고 보잘것없는 봉급을 말한다.

중국 당(唐)나라 숙종(肅宗) 임금의 스승은 혜충(惠忠) 스님이다. 혜충은 보통 충국사(忠國師)라고도 한다.

충국사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숙종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선생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올릴까요?” 충국사는 답답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배부른 사람에게 무슨 음식을 더 드리면 좋겠느냐고 자꾸 묻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생로병사를 다 초월하고 달처럼 원만한 인간의 완성을 보려는 순간에 웬 뚩딴지같은 소리인가?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보채듯 읊는 임금이야 말로 주책일 수밖에 없었다. 충국사는 너무 귀찮은 나머지 그냥, “정 그러시면 나를 위해 무봉탑(無縫塔) 퀘맨 자국이 없는 탑)을 하나 세워주시죠”라고 했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도 임금은 그 말이 무슨 소린지 모르고 다시, “탑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제자인 탐원에게 말을 해두었으니 제가 죽거든 물어보시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 자꾸 주려고 하니 그것도 답답한 일이다.

[어의]

- 중조(中朝) : 중국의 조정.
- 수령(守令) : 태수(太守)와 읍령(邑令). 우리나라 고대의 원 · 부윤(府尹) · 목사(牧使) · 군수(郡守) · 현감(縣監) · 현령(縣令) 등.
- 공곡(公穀) : 공공의 곡식.
- 죄견(罪譴) : 죄(罪). 허물.

[음훈]

俸 : 봉급(봉)	穀 : 곡식(곡)	需 : 구할(수)
譴 : 꾸짖을(견)	贓 : 장물(장)	疏 : 성글(소)
寡 : 적을(과)	衙 : 마을(야)	

접인장

접인장 제구 接人章 第九

제9장 이웃 생활

〈접인장(接人章)〉은 남을 접대하는 것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 같은 마을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면 정을 통하여 가까이 지내고, 착하지 않은 사람과는 왕래를 안 하는 것이 좋다. 혹 남이 나를 헐뜯고 비방하거든 잘못이 있는지 돌이켜 보고,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온화하고 공손함, 아랫사람에 대한 도타운 사랑, 남에게 은혜를 베풀, 사물을 구제해주는 것 등으로 인도(人道)를 배워야 한다.

사람을 사귈 때는 마땅히 온화한 태도로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 나보다 나이가 갑절이나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열 살이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다섯 살이 많으면 역시 어느 정도 공경해서 대접한다. 가장 조심할 것은 학문을 믿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 기운을 자랑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凡接人，當務和敬。年長以倍，則父事之；十年以長，則兄事之；五年以長，亦稍加敬。最不可恃學自高，尙氣陵人也。

[해설]

옛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집안은 시원찮다.

저녁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는 것은 예가 아니다.

동현(董賢)이란 사람이 있었다. 한나라 애제 때의 신하로서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언젠가 애제와 함께 낮잠을 자는데 그는 애제의 옷자락을 깔고 잤다. 먼저 잠에서 깨 애제는 일어나야 할 텐데 옷자락이 깔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자기 옷자락을 칼로 자르고 나서야 일어났다. 사랑하는 신하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다.

한 나라 광무제 때에 엄자릉이란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친구지간이었기 때문에 광무제가 엄자릉을 불러 벼슬을 시키려고 했으나 오질 않았다. 겨우 불러온 뒤 어느 날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엄자릉의 잠버릇이 고약한 건지 아니면 일부터 그러는 건지 엄자릉이 광무제의 배 위에 다리를 엎어놓고 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때 별을 보고 관상을 보던 일관(日觀)이 깜짝 놀랄 일을 하늘에서 보았다. 어디서 온 별이 임금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닌가. 일관은 급히 임금의 쳐소로 뛰어와 큰일났다고 말했다.

“객성(客星)이 범어좌(犯御座 王위를 범함)할 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광무제는 걱정 말라며 친구가 내 배에 다리 좀 얹었기로 뭐 그리 대수냐고

밀했다고 한다.

[어의]

- 화경(和敬) : 온화하게 공경함.
- 초가경(稍加敬) : 약간 공경을 더함.
- 최불가(最不可) : 가장 안 되는 것.

[음훈]

務 : 힘쓸(무)

倍 : 곱절(배)

恃 : 믿을(시)

陵 : 능멸할(릉)

벗을 사귈 때에는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며, 착한 것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하며, 곧고 신실한 사람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타이르고 경계하는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의 모자라는 점을 다스려야 한다. 만일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고 유약하고 아첨하며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사귀어서는 안 된다.

擇友, 必取好學、好善、方嚴、直諒之人, 與之同處, 虛受規戒, 以攻吾闕。若其怠惰、好嬉、柔佞、不直者, 則不可交也。

[해설]

좋은 친구 사귀는 법을 말했다. 그런데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세상에 정말 이런 친구가 있을까? 없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친구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많은 조건 중 하나만 있어도 사귈 만한 친구가 아닐까.

[어의]

- 방엄(方嚴) : 품행이 방정하고 엄함.
- 허수(虛受) :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임.
- 오궐(吾闕) : 나의 모자람.
- 유녕(柔佞) : 유미(柔媚). 점잖은 체하며 아첨함.

[음훈]

擇 : 가릴(택)

諒 : 믿을(양), 신실할(양)

闕 : 빠질(궐)

惰 : 게으를(타)

嬉 : 희롱할(희)

佞 : 아첨할(녕), 말잘할(녕)

고을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면 반드시 친하게 사귀며 다정하게 지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쁜 말로 그의 더러운 행실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와는 그저 범연하게 지내며 서로 왕래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만일 전에 알던 사람이라면 서로 만났을 때에 안부나 묻고 다른 말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점점 멀어질 뿐이요, 또 원망하고 노여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鄉人之善者，則必須親近通情；而鄉人之不善者，亦不可惡言揚其陋行。但待之泛然，不相往來。若前日相知者，則相見，只敍寒暄，不交他語，則自當漸疏，亦不至於怨怒矣。

[해설]

살다보면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있다. 좋은 친구라면 언제까지라도 잘 지내야 하겠지만 나쁜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무조건 등을 돌리기에는 너무 매정한 듯하고 곤란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너무 멀리 대하면 섭섭하게 여길 것이고 또 언젠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한(漢)나라 고조의 공신으로 소하(蕭何), 장량(張良)과 함께 삼절이라 일컬어지는 한신은, 후에 여후(呂后)와 소하의 계책에 의해 삼족(三族)이 멸해졌다.

처음에 한신은 집이 가난하여 성 아래에서 낚시질을 했다. 그때 빨래하는 노인이 한신이 짚는 것을 보고는 밥을 주었다. 그가 이를 고마워하며, “내가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노인이 화를 내며, “대장부가 스스로 먹지 못하기에 불쌍히 여겨 밥을 준 것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하였다.

또 하루는 한신이 길을 가다 도살장에서 일하는 소년을 만났는데 그가 한신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한신아, 죽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살려거든 내 바짓가랑이 밑으로 지나가거라” 하니 한신이 고개를 숙이고 그 밑으로 기어 나왔다. 이를 보고 모

두가 한신의 겁많음을 비웃었다.

후에 한신은 높이 되어 성 아래에서 빨래하던 노인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자기를 비웃던 소년을 용기 있다고 하여 벼슬을 주었다. 시원찮은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다.

[어의]

- 범연(泛然) : 데면데면함.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 한훤(寒喧) : 한온(寒溫). 일기의 춥고 더움을 말하여 서로 인사함.
- 점소(慚悚) : 차차 사이가 떨어짐.

[음훈]

敍 : 차례(서), 펼(서)

暄 : 따뜻할(훤)

怨 : 원망할(원)

같은 소리는 서로 반응을 하게 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된다. 만일 내가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나는 반드시 학문을 하는 선비를 찾게 될 것이고,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반드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학문을 한다는 평계로 집안에 잡된 손님을 많이 모아 놓고 시끄럽게 떠들며 날을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좋아하는 것이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同聲相應, 同氣相求。若我志於學問, 則我必求學問之士, 學問之士, 亦必求我矣。彼名爲學問, 而門庭多雜客, 喧囂度日者, 必其所樂, 不在學問故也。

[해설]

집안에는 항상 손님이 찾아와야 좋은 일이라고 한다. 그런 손님 중에는 나중에 도움이 될 사람도 많기 때문일까. 하여튼 수가 많다보면 그 중에는 뛰어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을 주머니 속의 송곳 같다[囊中之錐]고 한다. 아무리 주머니에 숨겨놓으려고 해도 결국은 주머니를 뚫고 빠져나오는 것이다.

평원군 조승은 조나라 혜문왕의 동생이므로 조나라 공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좋아하여 그에게로 몰려온 손님이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는 제나라 맹상군, 위나라 신능군, 초나라 춘신군과 같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비들을 초청해 후하게 대우하던 시대였다.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도읍지인 한단을 포위했다. 조나라에서는 평원군을 파견하여 초나라와 동맹을 맺으려 했다. 평원군은 식객 중에 용기와 문무를 겸비한 사람 20명과 동행하려 했다. 그러나 19명까지는 선발했지만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식객 중 모수(毛遂)란 사람이 거기에 가담하겠다고 했다.

“선생은 우리 집에 와서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삼 년 되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마치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끝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우리 집에 머문 지 삼 년이나 되었는데도 들은 적

이 없군요. 결국 선생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주머니 속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찍부터 주머니 속에 넣어주셨다면, 송곳 끝은 물론 송곳 자루까지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모수의 지략은 마침내 합종책을 성공시켰다.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의]

- 문정(門庭) : 대문 안의 뜰. 집 안.
- 훤효(喧囂) : 떠들썩함.

[음훈]

庭 : 뜰(정)

喧 : 떠들썩함(훤)

囂 : 떠들(효)

절을 하거나 읍을 하는 예법은 미리 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개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분께는 당연히 절을 해야 하고, 동네 사람 중에 나이가 15세 이상 많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벼슬의 품계가 당상이고 나보다 10세 연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고향 사람 중에 나이가 20세 연상인 사람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높이고 낮추는 곡절은 때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이 예에 구애될 것은 없다. 다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생각을 가슴속에 두는 것이 옳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온순하고 온순하게 남을 공경함이 오직 덕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였다.

凡拜揖之禮，不可預定。大抵父之執友則當拜；洞內年長十五歲以上者當拜；爵階堂上而長於我十年以上者當拜；鄉人年長二十歲以上者當拜。而其間高下曲折，在隨時節中，亦不必拘於此例，但常以自卑尊人底意思，存諸胸中可也。《詩》曰：“溫溫恭人，惟德之基。”

[해설]

절을 해야 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부모와 스승, 임금 등등이다. 공자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친구가 상을 당했으면 반드시 위로하는 예의를 표시했으며, 장님에게도 그에 걸맞은 예의를 표시했다. 이렇듯 절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에 따라 또는 나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의]

- 당상(堂上) : 묘당(廟堂)에 올라갈 수 있는 지위.
- 곡절(曲折) : 자세한 사정. 복잡한 내막.
- 수시절중(隨時節中) : 때에 따라 알맞게 조절함.
- 저의사(底意思) : 마음속의 의사.

[음훈]

爵 : 벼슬(작)

階 : 섬돌(계), 계급(계)

底 : 밑(저)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나에게 실제로 비방을 받을 만한 행실이 있으면 스스로 자신을 꾸짖고 잘못을 고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나의 잘못이 아주 작은데 더 보태어 늘려 말했다면 그 말이 비록 지나치지만 나에게 실제로 비방 받을 만한 징이 있는 것인니, 마땅히 예전의 잘못을 없애 털끝만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내가 본래 허물이 없는데 거짓말을 꾸며서 말했거든 그는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망령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수 있겠는가? 또 그런 허황된 훼방은 바람이 귓전을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비방이 올 때에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없도록 힘쓴다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만약 잘못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두려워하는 생각을 두지 않고 꼭 자신을 잘못이 없는 처지에 두려고만 한다면 그 잘못이 더욱 심해져 비방을 듣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문중자가 말하기를, “스스로 수양을 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다시 더 말해 달라고 청하자 대답하기를, “변명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이야말로 배우는 사람의 법도로 삼을 만하다.

人有毀謗我者，則必反而自省。若我實有可毀之行，則自責內訟，不憚改過。若我過甚微，而增衍附益，則彼言雖過，而我實有受謗之苗脈，亦當剗鋤前愆，不留毫末。若我本無過，而捏造虛言，則此不過妄人而已，與妄人何足計較虛實哉？且彼之虛謗，如風之過耳，雲之過空，於我何與哉？夫如是則毀謗之來，有則改之，無則加勉，莫非有益於我也。若聞過自辨，嘵嘵然不置，必欲置身於無過之地，則其過愈深，而取謗益重矣。昔者，或問止謗之道，文中子曰：“莫如自修。”請益，曰：“無辨。”此言可爲學者之法。

[해설]

남의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한다. 곧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친구는 나에게 적이 되고,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스승 이란 말이 있다. 이렇듯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반드시 정말로 좋은 일은 아니다. 입에 쓴 게 약이란 말도 이와 서로 통하는 말이다.

완전무결한 이상적 인간인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별개로 하고, 사람은 누구나 말과 행실에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을 고친다면 이미 그 잘못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한다.’

소위 군자와 소인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논어》〈자장편〉에서 자공은,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이를 보고, 고치면 사람들이 다 이를 우러러 본다”고 하였다. 더불어,

“소인은 잘못하면 반드시 억지로 꾸며 댄다”고 하는 말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분명 해진다.

요컨대 성인이 아닌 이상,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피할 수가 없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았으면, 선뜻 잘못을 고쳐야 하며,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어의]

- 훼방(毀謗) : 혈뜯어 말함. 비방함.
- 내송(內訟) : 마음속으로 자책함.
- 잔서(剗鋤) : 깎아 없앰.
- 전건(前愆) : 예전의 잘못.
- 효효(曉曉) : 두려워하는 모양.

- 문중자(文中子) : 수(隋)나라 왕통(王通)의 시호(諡號). 용문(龍門) 사람. 자는 중엄(仲淹). 《문중자중설(文中子中說)》이란 책을 지었는데 《논어》를 모방해서 자기의 언행을 기록했음.

[음훈]

謗 : 비방할(방)

訟 : 송사할(송)

增 : 더할(증)

衍 : 넓힐(연)

깎을(잔)

鋤 : 호미(서)

愆 : 허물(건)

捏 : 손으로찍을(남), 만들(남)

曉 : 두려워할(효), 떠들(효)

愈 : 더욱(유)

선생이나 어른을 모실 때에는 마땅히 깨닫기 어려운 의리에 대해 질문을 하여 자기의 학문을 밝혀야 한다. 또 마을 향당의 어른을 모실 때에는 마땅히 조심하여 공손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묻는 것이 있으면 조심조심 사실대로 대답한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마땅히 도의를 토론하여 연마하고, 다만 글자의 뜻이나 이치를 이야기하고, 세속의 지저분한 말이나 정치의 잘잘못이나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나 남의 잘못을 일체 입에 올리지 않는다. 향당의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비록 물음에 따라 응답할지라도 끝끝내 야비하거나 더러운 말은 하지 않아야 하며, 비록 점잖게 스스로 몸가짐을 갖더라도 절대로 자랑하거나 높은 체하는 기색을 두지 말고, 오직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끌어 반드시 학업으로 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에는 곡진하게 타일러서 효도와 공경과 충성과 믿음의 도리를 말해 주어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하면 향당의 풍속을 차차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凡侍先生長者，當質問義理難曉處，以明其學。侍鄉黨長老，當小心恭謹，不放言語，有問則敬對以實。與朋友處，當以道義講磨，只談文字義理而已，世俗鄙俚之說，及時政得失，守令賢否，他人過惡，一切不可掛口。與鄉人處，雖隨問應答，而終不可發鄙亵之言，雖莊栗自持，而切不可存矜高之色，惟當以善言誘掖，必欲引而向學。與幼者處，當諄諄言孝悌忠信，使發善心。若此不已，則鄉俗漸可變也。

[해설]

천재일우(千載一遇)라는 말이 있다. 천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뜻으로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을 말한다.

원굉이라는 사람은 지독히도 가난했다. 글재주가 있었으나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장의 끼니를 위해 수송선의 일부 노릇을 해야 했다. 이러한 원굉이 후에는 동양군 태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우저(牛渚)에 주둔한 명문 출신인 사상(謝尚)이 어느 가을날 개울에 배를 띠

워놓고 달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청아한 목소리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사상은 그 시구에 취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다 소리가 그치자 하인을 보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시를 읊은 이가 원평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더불어 시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사상은 그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참군(參軍 장군의 속관)으로 삼았고 후에 동양군의 태수까지 되었다. 이 사이 원평은 많은 글을 남겼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문선(文選)》에 실린 〈삼국명신서찬(三國名臣序贊)〉이다. 이것은 명신들의 찬양에 서문을 붙인 것이다.

‘대저 만년에 한 번의 기회는 세상으로 통하는 길이며, 천년에 한 번의 기회는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니(千載一遇), 이 같은 기회를 만나면 기뻐하게 되고 기회를 잊으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것도 낭패다. 서로 비슷한 얘깃거리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그 지식을 발휘할 기회를 잊게 되는 것이다. 항상 미래를 위해서 지식을 쌓아두어야 할 것이다.

[어의]

- 난효처(難曉處) : 깨닫기 어려운 곳. 이해하기 어려운 점.
- 비리(鄙俚) : 풍속, 언어 등이 상스러움.
- 유액(誘掖) : 이끌어 도와줌.
- 순순(諄諄) : 곡진(曲盡)하게 타이르는 모양. 총성스럽고 근실한 모양.

[음훈]

黨 : 무리(당)	磨 : 갈(마)	俚 : 속될(리)
掛 : 걸(쾌)	褒 : 더러울(설)	誘 : 달랠(유)
掖 : 부축할(액)	諄 : 간곡할(순)	悌 : 공경할(제)

항상 온순하고 공손하고 자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남을 해치거나 물건을 해치는 일이라면 털끝만치라도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반드시 남을 해친다. 이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없애버린 뒤에야 인(仁)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常以溫恭慈愛、惠人濟物爲心，若其侵人害物之事，則一毫不可留於心曲。凡人欲利於己，必至侵害人物。故學者先絕利心，然後可以學仁矣。

[해설]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냥 지내고 나면 나중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춘추시대 진(晋)나라와 진(秦)나라는 서로 인척 관계를 맺고 화평하게 지냈다. 그러나 워낙 어지러운 세상이라 서로 이해가 상반되면 어제의 벗이 오늘의 원수가 되는 수도 있었다.

문공(文公)이 죽고 양공(襄公)이 진(晋)나라의 임금이 되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진(晋)나라는 진(秦)나라를 공격했다. 싸움은 섬서(陝西) 지방에서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 진(秦)나라 목공(穆公)은 진(晋)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그 지방의 주민 3백 명이 죽을 힘을 다하여 목공을 구해냈다. 이 3백 명의 주민들은 전날 목공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다. 목공의 은혜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목공이 그의 말(馬)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기산(岐山) 기슭에서 이 말을 얻은 그곳 사람들이 임금의 말인 줄을 모르고 그 말을 잡아먹었다. 나중에 이 일이 탄로가 나자 말을 잡아먹었던 3백 명의 주민을 모조리 모아서(聚) 불잡아 갔다. 중한 벌을 받게 될 참이다. 이때 목공은, “말은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 짐승의 일로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들으니 좋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

면 사람의 몸에 해롭다고 하더라!” 하며 그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술까지 주었다. 죽을 줄 알았다가 술까지 얻어먹은 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목공의 은혜에 감동했던 것이다. 이들은 훗날 위기에 처한 목공의 목숨을 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다.

춘추시대 때 진(晋)나라 위무자(魏武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과(顆)라는 아들이 있었다. 위무자는 병이 나자 자기 아들 과에게 명령하기를, “나의 애첩(과의 서모(庶母))을 개가시켜라” 하였다. 그러는 사이 위무자의 병이 위독해졌다. 다시 아들을 불러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내가 죽은 뒤 나의 애첩을 반드시 내 무덤에 같이 순장(掏葬)시켜라’는 것이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유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아들 과는 차마 서모를 순장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처음의 말대로 개가하도록 주선했다. 처음 정신이 말짱할 때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얼마 후 아들 과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보씨(輔氏)라고 하는 곳에서 양쪽 진영이 진을 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진영 사이에서 어떤 노인이 풀을 엮고 있었다. 그 풀은 우리가 어려서 장난할 때 묶어놓고는 남이 걸려 쓰러지게 했던 그런 풀이다. 얼마 후 적군인 두호(杜回)가 쳐들어 왔다. 그런데 두호는 그 풀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결국 과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날 밤 과는 꿈에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이 과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 서모의 친정아버지요. 당신이 내 딸을 순장하지 않고 다시 개가시켜 주었으므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풀을 엮었던(結草) 것이오.”

이것이 바로 결초보은(結草報恩)이다.

[어의]

- 혜인(惠人) : 남에게 은혜를 베풀.
- 제물(濟物) : 사물을 제도함. 사물을 구제함.
- 심곡(心曲) : 마음속. 심중(心中).

[음훈]

濟 : 건널(제)

시골에 사는 선비는 공적인 일이나 예를 지켜야 할 경우 등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관청에 드나들지 말아야 한다. 고을 원님과 지극히 친한 사이라도 자주 찾아가서는 안 된다. 하물며 친구가 아니라면 더 말해 무엇하랴. 의롭지 못한 청탁 같은 것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居鄉之士，非公事禮見及不得已之故，則不可出入官府。邑宰雖至親，亦不可數數往見，況非親舊乎！若非義干請，則當一切勿爲也。

[해설]

개인적인 일과 국가의 공적인 일을 구별해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대문을 가로질러 못질을 했다. 사람들이 물으니, “내 조카가 이 조정랑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돈을 주고 이것저것 청탁을 할 것 같아서 미리 막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만큼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중국 덕청에 사는 부자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는 돌아보지 않고 돈으로 벼슬을 샀다.

그가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고을 현령에게 잘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서 별떡 일어나 칠혹 같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만하면 현령도 기뻐하겠지.’

그는 황급히 현령 집 대문을 두드렸다. 현령은 밤중에 사람이 찾아왔으므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잔뜩 긴장해 있었다. 그러나 부자의 말은 전혀 엉뚱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한시라도 빨리 현령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봄에 곡식을 심고 누에도 치는데 한 달에 두 가지 일을 하자니 바쁘기만 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봄에 곡식을 심고 가을에 누에를 치도록 하면 어떠할까요?”

현령은 어이가 없었다. 약이 올라 천천히 대꾸하였다.

“좋은 얘기이기는 하나, 가을에 누에를 치자면 날이 추워서 뽕잎을 구할 수 없을 텐데 뽕잎은 어디서 구한다지 ?”

쓸데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이다.

문 앞이 저자(市)를 이룬다는 문전성시(門前成市)는 권세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들끓는다는 뜻이다.

전한(前漢) 때 일이다.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조정의 실권은 왕망(王莽)을 포함한 왕씨 일족으로부터 외척인 부씨(傅氏), 정씨(丁氏)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당시 20세인 임금은 동현이라는 곱상하게 생긴 사내아이와 동성연애에 빠졌다. 중신들이 간했으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그중 장관 벼슬에 있던 정승(鄭崇)은 거듭 간하다가 급기야 임금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다.

그 무렵 조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아첨꾼으로 왕실과 인척간인 정승을 시기하여 모함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임금에게, “폐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정승의 집 문 앞이 저자를 이루고 있사온데 문초 하옵소서”라고 말했다.

임금은 당장 정승을 불렀다.

“듣자 하니 그대 문전은 저자와 같다던데 사실인가?”

“예, 폐하. 신의 문전은 저자와 같으나 신의 마음은 물과 같이 깨끗하오니 한 번 더 조사해 보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정승을 옥에 가두고 결국 정승은 옥에서 죽고 말았다. 물론 조창의 모함은 거짓으로 판명돼 나중에 삭탈관직을 당했다.

[어의]

- 관부(官府) : 관청.
- 사삭(數數) : 자주.
- 간청(干請) : 요구함. 비람. 청함.

[음훈]

치세장

처세장 제십 處世章 第十

제10장 세상을 사는 방법

마지막으로 〈처세장(處世章)〉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科舉)의 폐해를 말하고, 공부를 함이 과거급제가 목표가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효심에 달렸다고 말하며, 공부도 여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되는 것이다. 틈틈이 글을 배우고 덕을 쌓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만약 과거 공부를 하면서도 그 분수를 잊지 않는다면 과거 공부와 성리학을 겸해서 공부해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벼슬을 얻음에 나타해지기 쉬우나, 벼슬을 얻기 전의 마음과 같이 하여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옛날의 학자들은 벼슬을 하려고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학문이 이루어지면 윗사람이 천거하여 등용되었다. 대개 벼슬은 남을 위한 것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과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으니, 비록 하늘에 통달하는 학문이 있고 남보다 씩 뛰어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시험이 아니면 자기가 깨우친 도를 실행할 벼슬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가르치고, 형이 자기 아우에게 권면하는 것이 과거시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선비들의 습관이 나빠지는 것은 오로지 이 과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 선비 된 자들은 대부분 부모의 희망과 가문을 위하여 과거 공부에 힘쓰는 일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마땅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으며 그 때를 기다려 성공과 실패를 천명에 맡겨야 할 것이지, 벼슬을 탐내어 조급해 하거나 속을 태워 그 본래의 뜻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古之學者，未嘗求仕，學成則爲上者舉而用之。蓋仕者，爲人非爲己也，今世則不然。以科舉取人，雖有通天之學，絕人之行，非科舉，無由進於行道之位。故父教其子，兄勉其弟，科舉之外，更無他術，士習之偷，職此之由。第今爲士者，多爲父母之望，門戶之計，不免做科業，亦當利其器俟其時，得失付之天命，不可貪躁熱中，以喪其志也。

[해설]

시험장에서는 잘하는 사람도 낙방하는 수가 있고 못하는 이도 급제할 때가 있다. 일이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

여기에서 옛날의 과거시험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 과거는 우선 크게 문과(文科) · 무과(武科) · 잡과(雜科)로 나뉜다. 이중 문과는 다시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로 나누어지는데, 소과는 또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로 나뉜다. 생원과는 사서 삼경(四書三經)을 시험하고, 진사과는 시(詩) · 부(賦) 등의 문장을 시험한다. 생원과에 합격하면 '생원'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진사과에 합격하면 '진사'라는 호칭을

붙여준다. 물론 문과는 서얼을 제외한 양반의 자제들만이 응시할 수 있다.

무과는 궁술(弓術) · 기창(騎槍) 등의 실기와 병서(兵書) 등의 필기시험을 함께 보았다. 원래는 양반의 자제들만 시험 볼 수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천민들까지도 응시할 수 있었다. 합격자에게는 '선달(先達)'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잡과는 주로 중인(中人) 계급에서 시험을 쳤는데, 역과(譯科 동시 통역사), 의과(醫科 의사), 음양과(陰陽科 천문지리학자), 율과(律科 법무사) 등의 네 과가 있었다.

이상으로 미루어 우리 고전문학 속의 주인공 중 치밀한 성격의 허생은 생원과 출신이고, 호방한 성격의 이몽룡은 진사과 출신,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무과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시험에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고시공부를 하는 것이다.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경제적인 걱정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과거시험에 합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평생토록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있겠는가. 출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생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어의]

- 무유(無由) : 이유가 없음.
- 문호(門戶) : 문중(門中).

[음훈]

做 : 자을(주)

俟 : 기다릴(사)

躁 : 조급할(조)

熱 : 더울(열)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 공부에 얹매여 학문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또한 평계대는 말이고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버이를 봉양할 적에 몸소 밭을 간 사람도 있었고, 돌아다니며 품팔이를 한 사람도 있었고, 쌀 포대를 쳐다 주던 사람도 있었다. 몸소 밭 갈고, 돌아다니면서 품팔이하고, 쌀을 질 때에 수고로움이 심하였으니 어느 겨울에 글을 읽었겠는가. 오직 자기 부모를 위해 수고로움을 맡아 자식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글을 배웠는데도 또한 덕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비 된 자들은 어버이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맡으면서 옛날 사람 같은 자를 보지 못하였다. 다만 이 과거 공부 한 가지 일이 곧 어버이의 마음에 바라는 것이라 하여, 이미 과거 공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과거 공부가 비록 성리학과는 같지 않으나 역시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공부는 몸소 밭 갈고, 돌아다니며 품팔이하고, 쌀을 등에 지는 것보다 백 배 편하다. 하물며 남은 여가에 성리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다만 이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으레 과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 동요되어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다투어 도리어 힘든 일을 해서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선현의 말씀이,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오직 뜻을 빼앗길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만약 능히 과거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키는 그 뜻을 잃지 않는다면, 과거 공부와 성리의 공부가 병행되어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명색은 과거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고, 명색은 성리학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착수하지 아니하여, 만약 과거 공부를 기준으로 꾸짖으면 말하기를, “나는 성리학에 뜻을 두고 있어서 이런 과거 공부에 급급할 수가 없다”고 하며, 만약 성리학 공부를 기준으로 꾸짖으면 말하기를, “나는 과거 공부에 매여서 다른 일에 힘쓸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양쪽으로 편리한 대로 행동하면서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 세월만 보낸다. 그러다가 마침내 과거 공부와 성리학 공부 두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게 되니, 늙은 뒤에 비록 누우친들 어찌 하리오. 아아!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人言科業爲累，不能學問，此亦推託之言，非出於誠心也。古人養親，有躬耕者，有行傭者，有負米者。夫躬耕、行傭、負米之時，勤苦甚矣，何暇讀書乎？惟其爲親任勞，既修子職，而餘力學文，亦可進德。今日之爲士者，不見爲親任勞如古人者，只是科業一事，是親情之所欲。今既不免做功，則科業雖與理學不同，亦是坐而讀書作文，其便於躬耕、行傭、負米，不翅百倍，況有餘力，可讀性理之書哉！只是做科業者，例爲得失所動，心常躁競，反不若勞力之不害心術。故先賢曰：“不患妨功，惟患奪志。”若能爲其事而不喪其守，則科業理學，可以并行不悖矣。今人名爲做舉業，而實不著功，名爲做理學而實不下手。若責以科業則曰：“我志於理學，不能屑屑於此。”若責以理學則曰：“我爲科業所累，不能用功於實地。”如是兩占便宜，悠悠度日，卒至於科業理學，兩無所成，老大之後，雖悔何追？嗚呼！可不戒哉？

[해설]

공부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재미도 있고 깊게 빠져들어 훌륭한 업적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대학에 갈 때도 싫은 학과를 지원한다거나 하면 결국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마련이다. 처음 시작이 어렵더라도 적성과 취미를 잘 살려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의]

- 궁경(躬耕) : 몸소 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
- 행용(行傭) :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품팔이를 함.
- 부미(負米) : 쌀을 쳐 나름.
- 임로(任勞) : 수고를 함.
- 주공(做功) : 공부를 함.
- 이학(理學) : 성리학(性理學)의 약칭. 성리학(性理學)은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설명한 유교 철학. 송(宋)나라의 주염계(周濂溪), 장횡거(張橫渠),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주희(朱熹) 등이 주창(主唱)한 학설.

- 조경(躁競) : 초조하게 다툼.
- 유유도일(悠悠度日) :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세월을 보냄.
- 하추(何追) : 어찌 미치랴.

[음훈]

累 : 여려(루), 얹맬(루)	備 : 품팔이(용)	託 : 부탁할(탁), 칭탁할(탁)
暇 : 겸려(가)	任 : 맡길(임)	翅 : 뿐(시)
妨 : 방해할(방)	竝 : 아우를(병)	悖 : 어그러질(꽤)
屑 : 깨끗할(설)	悠 : 오랠(유), 한가지(유)	鳴 : 탄식소리(오)
呼 : 부를(호)		

사람들은 아직 벼슬하지 못했을 때에는 오직 벼슬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이미 벼슬을 한 뒤에는 또 벼슬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이와 같은 생각에만 골몰하여 그 착한 본심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랴. 벼슬이 높은 사람은 도(道)를 행함을 주장하니, 도가 행해질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할 것이다. 만일 집이 가난하여 녹봉을 받기 위한 벼슬을 면치 못한다면 모름지기 내직을 사양하고 외직으로 나가야 하며, 또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거하여 굽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다. 비록 녹봉을 받기 위한 벼슬이라고 하나 또한 마땅히 청렴하고 부지런히 공무를 받들어 행하여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 관직은 돌아보지 않고 녹봉만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人於未仕時，惟仕是急。既仕後，又恐失之。如是汨沒，喪其本心者多矣。豈不可懼哉？位高者，主於行道，道不可行，則可以退矣。若家貧未免祿仕，則須辭內就外，辭尊居卑，以免飢寒而已。雖曰祿仕，亦當廉勤奉公，盡其職務，不可曠官而鋪啜也。

丁丑季冬書。

《擊蒙要訣》終。

[해설]

세상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가난해도 청렴하게 살아간다면 보람도 있고 후세에 칭송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청렴결백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

우리나라에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못된 습관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이러한 탐관오리(貪官汚吏)들에게 따끔한 일침(一針)이 될 만한 청백리(淸白吏)의 이야기이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의 일이다. 순천(順川) 부사로 최석(崔碩)이라는 사람이 있

었는데, 청렴(清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가 비서랑(秘書郎)이 되어 서울로 돌아갈 때, 그곳에는 높은 벼슬을 얻어 서울로 전근 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여덟 마리씩 주어서 보내는 풍속이 있었다. 최석에게도 여러 마리를 끌고 와서는 좋은 말로 고르라 했으나 최석은 아무 말이나 골라서 끌고 갔다.

말마다 짐을 싣고 떠나 서울에 무사히 도착한 뒤, 최석은 이제 말들이 할 일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고 순천으로 모두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석이 서울로 올라갈 때 끌고 간 말은 여덟 마리였으나, 순천 사람들이 되돌려 받은 말은 아홉 마리였다. 그중 한 사람이 말 등에 꽂힌 편지를 집어 펼쳤더니 거기에는, ‘이 망아지는 내가 서울로 가던 도중에 낳은 새끼 말로, 분명 내가 순천에 있을 때 어미 말이 임신을 했을 터이니 아울러 망아지까지 돌려보낸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순천 백성들은 하늘이 주신 청백리라고 하면서 최석을 위해 송덕비(頌德碑)를 세우니, 그 비를 팔마비(八馬碑)라 했다.

당(唐)나라 신천(神泉)지방 군수 장 아무개는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났었다.

어느 날 군수는 자기집 대문 위에 큼지막한 방을 써서 붙였다. ‘모월 모일은 군수의 생일이다.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데 고을의 사람들은 아무라도 예물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 방을 보고 한 아전이, “군수 영감이 일부러 우리에게 생일을 알리는 것이니 우리가 어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소.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합시다”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도 그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군수 영감의 생일날이 다가왔다. 고을의 사람들은 각자 성의를 다하여 예물을 바쳤다.

군수는 그 예물을 일일이 다 살펴본 뒤에 다시 말하기를, “다음 달 내 아내의 생일에는 절대 예물을 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며 신신당부를 하였다.

청렴결백을 빙자한 거짓된 관리라 하겠다.

[어의]

- 골몰(汨沒) : 한 일에만 빠짐.
- 녹사(祿仕) : 녹을 타기 위해 벼슬을 함.
- 광관(曠官) : 벼슬자리를 오래 비워 놓음.
- 포철(餉啜) : 먹고 마심. 음식을 먹음.

[음훈]

汨 : 빠질(골)	懼 : 두려워할(구)	廉 : 청렴할(렴)
曠 : 빌(광)	餉 : 먹을(포)	啜 : 마실(철)

지은이 소개 | 이이 李珥 (1536~1584)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 강릉(江陵) 출생. 본관은 덕수(德水), 호는 올곡(栗谷)·석담(石潭).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이원수,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 어려서 학문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3세에 진사시 합격을 시작으로 모두 아홉 번이나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으며, 학문뿐만 아니라 국가경영과 사회개혁에도 앞장선 경세가였다. 『동호문답』,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의 명저를 남겼다.

옮긴이 소개 | 정후수 鄭後洙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추사 김정희 시 전집』, 『논어집주』, 『천자문』, 『시경』, 『북산산고』 등을 주해하였으며, 저서로 『조선후기 중인문학 연구』, 『해객금준제이도 제사』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격동요결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8월 28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작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33-4

*표지 제작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